

### 누가복음 1:1-38

1장이 너무 길어서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1장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뒷장이 더 재미있어요.

책거리 했습니까? (김성훈)

시간 중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20분이나 늦게 와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훨씬 재미가 있어요. 뒷부분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보통은 새로 시작하면 누가복음에 대한 서론을 미리 좀 해야 되는데 머리 아픈 서론은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좀 편안하고 가볍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뜻이 뭐예요?

내용이 같다. (김성훈)

쉽게 말하면 내용이 같다는 뜻이죠. 共觀 즉 관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태면?

4복음서.

4복음서인데 앞의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네 권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질문 한 번 해봅시다. 4복음서 시작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당한 평소 실력이 있어야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퀴즈문제도 이런 것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싱겁게 시작한 게 이 네 권 중에 어느 것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럼 말을 바꿀게요. 대답하기 쉬운 것부터 할게요. 제일 따분하게 시작하는 책?

마태복음.

왜요?

죽보.

예. 죽보가 나오니까 제일 따분한 게 맞아요. 찬찬히 읽어요? 건너뛰어요?

거의 건너뛰어요.

죽보가 나오면 거의 건너뛰는 게 일반적이지 싶은데 다른 데는 건너뛰어도 마태복음 죽보는 건너뛰지 마세요. 그건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거창하게 시작되는 책은요?

요한복음.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아주 웅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일 싱겁게 시작한 책은? 마가 아니면 누가죠?

마가복음일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바로 들어가 버려요. 정말 싱겁기 이를 데 없어요. 그걸 왜 싱겁다고 말하느냐 하면 누가복음의 서론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을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은 어떤 느낌을 줘요?

오래된 느낌, 오래 지난 뒤에 쓴 거 같아요.

이상한 느낌이다. 뭘 보고 그게 오래된 거 같아요?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미 앞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 난 후에 기록이 됐다.

아! 시간상으로 좀 뒤에 기록이 됐겠다, 이 말이죠? 다른 기록에 비하면 좀 늦은 편이겠다? 좋은 관찰입니다.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 (김은옥)

그런 느낌을 주더라. 맞는 얘깁니다. 지금 질문한 것은 시작할 때 이야기만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정말 따분하게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아주 웅장하게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싱겁기 이를 데 없어요. 누가복음은요? 그러니까 이걸 찬찬히 들여다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냥 근성으로 보면 차이가 분간이 안 되요. 1장을 다 봐야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1장을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첫째 이유는, 이 안에 유명한 시가 여러 편 나와요. 그 중에 보통 시가 아니고 아주 유명한 시가 몇 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여기 찬송시를 가사로 해서 바하가 유명한 칸타타를 썼거든요. 찾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악보를 다시 꺼내서 뒤적이다가 왔는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좌우간 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시가 여러 편 나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얘기 안 하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가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들어가는 셈이죠. 그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장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모습이라든가,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예수님의 탄생, 그 주변 이야기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껴야 되는데 다른 거 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요. 이게 왜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됐는지 아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록한 사람의 수준이...

하이 클래스니까.

맞아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의사.

의사였어요. 의사들은 보통 병만 잘 보는 게 아니고 다방면에 능력을 지닌 사람이 더러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의사면서 찬송하러 온 분이 있었죠. 의사면서 성악가 흉내를 좀 내더라구요. 누가는 흔히 말하기를 역사가요 문학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잘 쓴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이 써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 분들이 알 만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가 있죠?

바울.

바울?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쓴 적이 없는데...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관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요? 마태거나 마가일 것 아니에요.

(쏘아붙이듯) 두 명밖에 더 돼요? (김진우) (모두 웃음)

아니 그래, 두 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대면 되잖아. 내가 많이 대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아는 사람 있냐고 물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나와도 되잖아요.

마태. (김진우)

그런데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마가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한복음이 제일 늦어요. 이 앞의 세 권은 사실대로 묘사하려고 애를 썼다면 요한복음은 그 후에 이 사실들에 대한 해석을 붙인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고 우리 성경에 기록이 안된 다른 글들도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기록을 했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성경에 들어왔고 다른 책들은 성경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 중에 성경에 채택되지 아니한 책을 소위 외경이라 하는 거죠. 정경과 외경을 어떻게 채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했는데 누가는 왜 또 그 얘기를 따로 기록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록이 많이 있는데 왜 또 자기가 기록을 하려고 했을까? 다른 사람이 글 쓴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요?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뭐였을까요?

아름답지 않아서요. (김진우)

에이. 본인이 하는 말 중에서 찾아야죠.

4절에 배운 바에 확실한... (주연찬)

차례대로... (김은옥)

그렇죠. 차례대로. 아! 이걸 차례대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하나 더 있는데?

자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은옥)

일단은 차례대로 자세하게 좀 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누가가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4복음서 중에 아니면 신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책이다.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주연찬)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데 꼭 합정이 있는 법인데.

안 맞을 것 같아요. (김진우)

(웃으며) 그렇지요. 내 생각에는 마태복음이 가장 길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은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페이지를 보니까 누가복음이 정말 조금 차이로 길더라구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주연찬)

예?

그냥, 한 번. 할일 없이 그냥. (주연찬)

할일 없는 청년회 사람들이 확인했었습니다. (박주영)

그런데 그걸 그냥 확인했다고요? 아무런 일도 없는데? 나는 왜 확인을 했느냐 하면 '자세히'라는 구절을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자세히' 하면 제일 길겠네. 그런데 아닌데, 마태복음이 더 긴 것 같던데 하는 생각이 나길래 찾아본 거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누가가 의사고 하나까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이 클래스고 그런 '자세히' 이런 걸 갖다가 전에 청년회에서 성경공부할 때 누가복음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다른 복음서도 보고, 어느 게 기냐. 그냥 무심결에. (주연찬)

그러면 완전히 무심결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봤으니까 됐구요.

원래 절이 나누어졌나요? (김은옥)

아니죠. 쓸 때는 절이 없죠. 나중에 추가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 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지로 대조해 보는 것이 제일 쉽죠. 페이지로 제가 이렇게 맞춰봤는데 정말 아주 비슷한데 간발의 차이로 누가복음이 더 길더라구요.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진 게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필요성이 또 한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명희)

그렇죠.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가 누구인지는 저도 찾아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도 원어 설명을 가끔가끔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공부를 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코람데오. (이명희)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니까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로'?

사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김은옥)

필레오에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필레오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부모자식 간에는 보통 다른 말을 쓰죠.

아가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쓰지만 친구간의 사랑은 필레오라 하거든요. 이 필레오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는 셈이죠.

홀리한 이름입니다. (김진우)

홀리? 함부로 쓸 말이 아니더라구요. 히브리어의 홀리는 병들었다는 뜻이 되더라구요. 주의해야 돼요.

(모두 집사님을 향해, 못 마땅한 듯이) 어. 크...

하나 배웠다고 요새 티를 많이 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도 고생을 많이 해 놓으니 생각나는 게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 하구요. 좌우간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어떤 인물인지 명확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누가가 볼 때에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4복음서의 특징을 조금 더 정돈을 해보면 재미있어요. 가령 이렇게 설명을 한 번 해봅시다. 제일 쉬운 거는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죠?

믿지 않는 자들. (김은옥)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인가? (김은옥)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원 높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박진순)

그렇죠,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표현이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족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다? 주로.

왕이다.

왕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죠.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더 자세하게 저도 공부를 해봐야 할 요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기록과 초기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은 그 상황을 염두에 둔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닥쳐오는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만한 고난을 겪으셨느냐를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이런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종이라는 설명

을 자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맞설 것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마가복음이 특별히 좀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일단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시한 헬라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 나가는 겁니다. 자세하게 써 나가는 동시에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았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죠. 그러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려고 애를 쓴 거죠. 4복음서를 대강 요정도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처음에 잘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말씀. (김은옥)

말씀이라고 하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목격자. 일꾼. (이명희)

그러면 글 쓰는 자기는 뭔데? 그러니까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을 목격한, 일꾼된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일꾼들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란 사람이 나오죠. 어디서 많이 들던 이름이죠? 비슷하거나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알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더라. 처음 들어요? 비슷하거나... 엘리사벳.

엘리자베스. (김진우)

엘리자베스 맞아요. 영어 성경 보면 이게 그대로 엘리자베스예요. (모두 진우를 보며 귀여운 듯이 웃음)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 맞췄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엘리사벳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전 몰랐어요. (이명희)

에이, 난 또. (김은옥)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누군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김은옥)

아니 알고 있었으면 다행이구요.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조그만 한 차인데 엘리자베스와 엘리사벳이 같은 단어라고 쉽게 생각을 못하죠.

구약의 인물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김은옥)

성경에서 찾는다고 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박주영)

질문이 분명하지 않았나 봐요. 다음부터는 좀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죠.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왜 엘리자베스를 엘리사벳이라고 기록했느냐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전부 간단하게 적었던데... (한승창)

엘리자베스는 영어고 엘리사벳은 헬라어 아니에요? (박주영)

어차피 영어도 거기서 그렇게 갔는데.

영어로 발음하는 것하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름 옮긴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김은옥)

엘리자베스는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엘,리,자,베,스. 한글이잖아. 영어로는 Elizabeth잖아.

한문의 음만 빌려서... (한승창)

그럼 왜 여기에 엘리자베스라 안 하고 엘리사벳이라고 했나요?

엘리자베스 그 음이 없으니까 엘리사벳. (한승창)

그럼 신문에도 엘리사벳이라 쓰지. (웃음)

베드로 보고 피터라 하고 그러잖아요. (김현석)

아, 피터가 베드로예요? 아 그래요?

바울은 폴이고.

잘 아네. 그럼 어려운 것 하나 물어봅시다. 야고보는요?

제이콥.

야고보서를 영어성경에 제이콥이라고 그래요? 야콥은?

야고보서는 제임스이고 야콥은 제이콥. (김은옥)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라고 발음이 변한 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그 집어내느냐 하면 이런 고유명사를 성경에서 번역이 빨랐거든요. 성경에서 이 말을 엘리사벳이라고 옮겨왔는데 일단 먼저 번역한 사람이 엘리사벳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 다음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번역한 걸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주면 좋는데 성경에 들어가 있는 용어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새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사용된 표현이라도 좀 따라주면 안 되나.

그런데 이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영문성경을 토대로 번역된 거예요? 아니면? (김은옥)

처음에는 영어에서 바로 번역이 되기도 했을 테지만 지금은 원어에서 바로 번역이 된 겁니다. 처음에 영어를 바로 옮기려니 도무지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가령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사밧 데이(*sabbath day*)라고 써놓고 따로 해설을 붙이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좌우간 영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보세요. 엘리자베스라고 발음하는 거나 엘리사벳이라고 발음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굳이 따로 쓸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미국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이 훨씬 원어의 발음에 가깝대요. 영어보다도. (김은옥)

가깝죠. 그건 확실해요. 우리말 예수는 히브리 원어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지저스(*Jesus*)라고 하는데 많이 달라요. 맞아요. 히브리 발음은 영어보다 우리 발음에 훨씬 가까워요. 영어가 오히려 이상해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옆으로 너무 쏘다. 이러다 어느 세월에 갈려고.

선생님이 먼저.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제외시키려는 나쁜 버릇 때문에 그래요. 가령 학교에서 성경연구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활시간에 하나 합시다 이러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학생과장 선생님 “되겠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교감 선생님 “그것 좀 괜찮겠나?” 간신히 승낙을 얻어도 교장까지 통과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연구 하면 통과가 안 되는데 다음번에는 에이 그러면 고전연구 이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연구라 해놓고 성경공부할 애들만 끌어당기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궁리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 이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꾸 꺼려하고 힘들어 하난 말이에요. 이러다보니 성경 빼라, 뭐 빼라, 그러면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제쳐 놓고, 못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뭔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아! 저건 종교적인 거다 해서 아예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가령 역사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성경에만 언급된 것이 있으면 인정을 안 해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 튀어나오면 ‘어, 그것 성경에 있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어찌면 더 사실에 가깝다는 걸 사람들은 계속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얘기도 그냥 성경이다 아니면 종교적이다 싶으면 색안경부터 먼저 끼고 뽀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일단 알고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미리 예봉을 피해갈 수 있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런 예가 참 많아요.

몇 주간 신학교에 가 있다가 개학해서 출근했더니 어떻게 지냈어요? 하는데 전국간 것처럼 좋더라고 대답을 했더니 전도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미리 방어벽부터 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인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 뭐 한다 할 때도 최종 목표를 전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두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하다못해 구제한답시고 쌀 가마니 들고 가면요, “전도하려고 그러지요?” 하고 선수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위해서 작전을 쓰다시피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무리 주의 계명과 율례에 흠이 없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말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럴 때는 이 의미가 그만큼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더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너무 따질 필요가 사실은 없구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이가 없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경건하게 살다보니까 아이가 없었다. 그런 거는 아닌가? OX로 할까요? 두 사람의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알 수 없죠. (김진우)

너 그러면 다 보고 알려 하면 뭘 알겠니? 그러면 앞으로 아무 것도 못한다. 안 보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고.

이건 엘리사벳이 얘기를 못 낳는 상태였다는. 그러면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김은옥)

당연히 있지요. 있으니까 못 낳지. 그래 놓고 또 물음시다. 하나님이 못 낳게 했다?

오. (김성훈)

아까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그건 어떡해요? 골치 아파져요.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낳았느냐 하면요? 성경이 참으로 묘한 구조로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돼요. 인

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두 사람이 신체적인 결합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건 맞아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필요할 때까지 아이를 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생각도 맞는 거예요. 양쪽으로 보면 항상 그게 다 맞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우리끼리는 그게 안돼요. 사람의 일로는 안 되지마는 성경이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이 내 의사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의사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뜻도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들어봐도 어차피 하나님의 손바닥이에요. 성경이 그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것이 두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한 사건이라고 해도 맞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한나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늘 성전을 맡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성전 일을 맡아서 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죠?

제비뽑기. (주연찬)

제비뽑은 거는 아니고요.

반열의 차례대로. (주연찬)

반열이 뭐예요? 반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겁니다. 나뉘어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누가 할래, 그걸 제비를 뽑았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의 수가 많으니까 제비를 뽑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요, 분향하러 들어간 그 성소가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참으로 엄숙하고 두려운 곳이거든요.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잘 놀고 있는데 뿔뿔 나뉘어 나뉘어 놀래요. 무섭다 하고 있는데 나타나면 더 놀래요. 놀래서 병어리가 되지 않았을까. (웃음) 그래서 병어리가 된 거 아닐까요? 왜 병어리가 됐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김은옥)

정말이에요? 놀래서가 아니고?

천사가 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한승창)

왜 말을 못하게 하는데?

헛소리할까봐. (한승창)

무슨 헛소리?

얘기를 못 낚는 상황인데 낚는다고 하니깐... (한승창)

설마 나가서까지 그러려고? 헛소리할까 싶어 그래서 말 못하게 했다?

그 아이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병어리로 말을 묶었다가... (김은옥)

그러면 별이 아니네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옥)

그럼 별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그럼 1년 동안 병어리 노릇하는 게 별인 줄 알았는데 별 아니네요.

아니 20절 자세히 보면 앞부분은 '너가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별의 성격이 있고,

뒤의 말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라' 그 때 니가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된다. (김은옥)

훌륭한 관찰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앞으로 다른 집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

딴 집이 뭐야? (김은옥) (모두 웃음)

이 집 말고, 대흥교회 사무실에 한 팀 모이고 저쪽에 방 하나 떼주어도 된다는 얘깁니다. 니가 안 믿으니까 하고 별을 준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라도 이 사가랴가 자기가 1년 동안 병어리가 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 동안 병어리 노릇했는데도 원망을 안 한단 말이죠. 속도 좋다.

그런데 병어리로 있을 동안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김은옥)

말도 못하죠. 아침 말 못하죠. (웃음) 거짓말 안 하고 오늘 당장 여기 나갈 때 내일 아침까지만 입 꼭 다물고 말 못한다 하고 다녀보면 대번에 알죠. 전 학교에서 가끔가다가 애들이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집에 갈 때까지 일체 입 떠지지 말라고 시켜봐요. 연습을 한 번 하자고 하면 웬만한 경우엔 많이 노력하고 따라 해요. 그렇게 한 번 지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말하는 게 어려우면 눈 감고 다니는 것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 못하는 것이 별이라고 치면 이거 큰 별입니다.

어마어마한 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뭐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게 자기에게 참 답답함이고 고통이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더라도 절대로 그걸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벌을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벌로만 끝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부모의 경우에도 대체로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야단 디게(심하게) 쳐 놓고도 나중에 징징거리고 울고 있으면 누가 달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그런데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커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뺐는데 징징거리고 울고 있는 걸 보면요 도리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른 걸로 또 갚아주게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더 있다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천사의 예고를 자세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구요? 14절 쯤에.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된다.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칩시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김은옥)

또?

엘리야의... (김은옥)

많다 그죠? 뒤에 계속 나오죠. 그쵸합니다. 그 중에 우리하고 닮은 점. 혹시 나하고 닮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김성훈) (모두 웃음)

우와. 한 개는 닮은 게 있다. 소주는 마시지 않는다. 맥주는?

그런 것도 안 마시기 때문에. (김성훈)

그것도 안 되구요? 맥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자! 한 개 나왔어요. 혹시 다른 거 없어요?

모래로부터 성령충만.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깐 17절에 주를 인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 (한승창)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주일학교 애들 열심히 가르치는 것하고 관계가 있겠다, 그죠? 어쨌건 비슷한 거 하나 나왔구요, 그 다음에 없어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거 어때요?

친척들은 기뻐하는데. (김성훈)

어제 제가 교직 생활 21년 송별인사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넣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학교 와서 어쨌건 다른 선생님들 하기 힘들어 하는 일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조금 일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애는 많이 썼지만 능력부족이어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마음은 그랬다는 사실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꺼내기도 전에 물어버린 선생님들이 몇이 있으니깐 나도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같이 있었던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정이 많이 들었구나 싶어요. 어려운 일 있어서 이거 우짜마요? 하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내가 할게가 대답이었거든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잘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일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게 선생보다는 내가 덜 받을 것 같으니깐 내가 할게. 내가 잘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지나고 난 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다른 선생님들을 참으로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헤어지면 섭섭해 하는 것이 정한 이치지만 제가 어제 받은 느낌은 좀 달랐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겠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고 나왔어요. 크게 선을 베푼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좀 통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나오면서 부족한 대로나마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했구나라는 나름대로의 만족감이랄까 그런 게 분명히 있더라구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내가 힘든 일을 조금 더 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꼭 갖고 살기를 바라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걸 겁니다. 내가 돈을 조금만 더 쓰기로 하고요.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쓰기로 하구요. 그 다음 이거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지저분한 일일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에 해당될 소지가 많아요. 순교자 어찌고저찌고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작게라도 희생하는 각오로 살면 이런 기쁨을 누릴 날도 있어요. 물론 힘든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요한을 닮은 게 더 많으면 좋겠지만 포도주나 소주나 이런 거 말고 이런 면에서 하나라도 자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해주면요 신앙이 그래도 있다면 툭커링 '예' 해야죠. 그런데 예 안 하고 탄소리 한 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는 낫다라는 생

각이 들어요.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사라. (김은옥)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는 나아요. 왜?

웃지 않아서. (주연찬)

웃진 않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무슨 별다른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닌데 사가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에 웃었던 말이야. 사가랴는 웃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말 안 들어도 차원이, 말 안 듣는 것도 차원이 있고 느낌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면서 읽으면 재미가 더 있어요. 그러다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감격적인 발견을 하는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1년 동안 병어리로 지내면서도 사가랴는 전혀 그게 별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없었으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아예 병어리인 사람은요 말 못해도 별로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말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어리가 되어버리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부터 거지는요 먹을 거 없어도 편안해요. 거지 팔자가 얼마나 좋은 팔자인지 압니까? 세상에 고민 없는 팔잡니다. 거지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절대 돈 벌기 위해서 일 못해요. 영국의 어떤 거지는 지하도에 침대까지 갖추어 놓고 타임지 읽고 있던데... 잘 살던 사람이 거꾸로 거지가 되면 괴로워서 못 살 겁니다.

사가랴요? 처음부터 병어리였으면 괜찮죠. 말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어리로 지내야 하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병어리로 지내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버리니까 그 답답함이 오히려 역으로 감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갔을 때도 기쁘겠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데도 그게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쁘다고 하니까 내면 속에 솟아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진짜 기쁨이죠. 우리에게 뭔가 주셨기 때문에 기쁘 그런 기쁨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그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면은 기쁨도 함께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기쁨은요 이 환경은 변해가더라도 그 기쁨은 우리 속에 항상 남아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말 못하는 답답함이 있고 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더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부인을 몹시 사랑하면요 부인한테 두들겨 맞고 뜯겨도 결코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잘 사는 방법은요?

부인을 사랑하는 거. (김미숙)

그렇죠. 사랑하는 게 맞아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인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요 어지간히 쥐어 뜯겨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내가 힘이 안 듭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것도 선생이라고' 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요 그 시간이 일 년 내내 힘들어요.

우하하하. (김성훈)

웃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내가 학교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 선생이 어떤 선생님인가에 관계없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유리한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도 이러하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옳지, 그것 말고 그가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채워줘서 만족스럽다는 그건 분명히 일시적입니다. 사가랴가 병어리가 되어서 그 답답함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고 전혀 '왜 내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그제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아플 했는 그 말 한마디밖에 없는데요' 그런 원망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짓발짓 하는 것을 영어로는 *Body Language*라 그러죠.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형용으로. (김은옥)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22절에 '그 형용으로'라는 것이 쉽게 풀이하면 손짓발짓으로 해서 의사를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을 조금 바꿔봅시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 시간쯤 지난 뒤에 '오늘 목사님이 기도 오래하시네' 하고 기다렸는데 두 시간쯤 지나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더라구요. 병어리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말을 못하고 병어리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슨 일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은옥)

가령? 우리끼리 얘기니까 마음대로 해봐요. '우리 목사님 들었나'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 없어요? 아

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걸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나아요. 왜?

이상을 본 줄 알았다. (김은옥)

예. 이상을 본 줄 알았다는 것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고 떨렁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바꾸어 우리 상황에 갖다 집어 넣어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니 하나님을 만나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연습 한번 해 봐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우 아니더라도 역사가 계속 되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전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예요? (김은옥)

뭐 있었을라구요? 더러 있던 일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실험을 한 번 해볼 거라. 일부러 병어리 흥내... 과연 뭐라 할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거냐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갔다 이럴는지. 그러면 우리 신앙에 우리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왜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말을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분이 만약에 성령충만한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김은옥)

있을 것 같지요.

그런 것 약간씩 통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김은옥)

이 안에서 보면 확실히 그래요.

어떤 미쳤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구나. (김은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런 쪽으로 가 있으면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먼저 할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 부지런히 다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순간에 보면 이런 영적인 쪽으로 더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똥한 쪽으로 더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똥한 쪽으로 먼저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탓인지도 몰라요. 좌우간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갈 거냐 조건은 신앙만 좋다면야 뭐... 제법 신앙적인 얘기하죠. 막상 결정할 때가 되면 이거 다 무시돼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멀리 있을 때는 남의 일같이 신앙적인 얘기 줄줄하다가 막상 결정할 때 보면 신앙이 우선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구요. 이거 어려워요. 좌우간 신앙적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고방식이 신앙적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멀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거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복종할거냐. 멀리 있을 때는 '예' 해놓고요 나중에 진짜 연애할 때쯤 생각해 보면 내가 저거한테 복종해야 된다? 그때부터 슬슬 아니다 쪽으로 가요.

히히. 저거? (김성훈)

'저거' 그러니까 이상해요? 자기 신앙 보고 '지가' 하는 부인들 우리 교회만 해도 많아요. 자기 남편 보고 '지가 뭐'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까? 안 산다고 봐야지요. 그건 틀림없어요.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고 공부는 많이 하고 그럼에도 신앙적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표가 그런 데서 납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예요. 사소한 일 하나라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어지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유심히 살피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을 옛날 얘기로 보지말구요 항상 내 현실에 개입을 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세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다섯 달 동안이나 숨어지냈거든요. 다 늙은 할매가 애뻤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어 지냈을 것이다. 맞을까? 안 맞을까?

그것도 있고, 애 가졌다고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다섯 달 되면 어느 정도 표시가 나는 것 아니예요? (김은옥)

아!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해요. 왜 숨어지 내?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읽으세요. 정답 몰라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구요. 그리고 제가 이런 구절을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지. 이게 정답이던 얘기는 또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주연찬)

선생님. 이게 숨어있다는 말이 말 그대로 숨어있는 그 행동입니까? (김은옥)

숨어있다는 것이 집안의 조용한 곳에서 지내는 거라고 봐야죠. 설마 무서워서 숨었겠어요? 그래도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부끄러워할 만한 짓을 했는가 한 번 찾아보세요. 뒤에 보면 자랑스러워했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5절에는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주연찬)

그 부끄러움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애기를 가지기 이전까지 부끄러움이지, 애기 가진 그 이후는 반대죠. 오히려 그 이전까지는 정말 부끄러웠는데 이젠 애기를 가졌다. 이걸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숨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은 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평생소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심조심. (주연찬)

5개월까지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5개월 지나면 그래도 좀... (박주영)

확실히 5개월 맞아요?

원래 3, 4개월이거든요. 제일 조심해야 하는 시기고 3, 4개월이 가장 유산되기 쉬운 시기거든요. (박주영)

그러면 경험은 없지만 이론은 아주 밝았다. 엘리사벳도 그죠?

그거야 여자를 모이면 주고받는 얘기들이니까. (김은옥)

그래요?

노산이니까. (주연찬)

그러면 이 구절을 보고 남자들이 느끼는 것하고 여자들이 느끼는 것하고 당장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신체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김은옥)

신체적인 안정. 그 다음?

정신적인 안정. (주연찬)

정신적인 안정도 필요하구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도 있겠고. 태교, 그런 의미도 포함해서 아마 하나님과 조용한 곳에서 영적인 교제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그런 얘기죠. 어쨌든 5개월 동안 그렇게 있다가 마리아한테 들킨 셈이네요.

6개월 아네요?

여섯째 달에, 혹은 여섯 달이 되었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여러 가지 말을 전해줍니다. 한 번 해봅시다. 첫째, 무서워 말라. 옛날 애들 연극하고 춤추면 천사로 나오는 애는 늘 무서워 말라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내가 하나님께 은혜 얻었다. (주연찬)

간단하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주연찬)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어떻게 된다?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다윗의 위를 이어받는다. (주연찬)

다윗의 위를 이어받는다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죠?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마리아가 어느 말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라. (김성훈)

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충격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네 아들이 앞으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아니면 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우선 그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라라는 게 충격 맞아요. 맞아요?

맞죠. (김성훈)

웬 충격?

뒤에도 보면 이 말 끝나자마자 남자도 모르는데 왜. (김성훈)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성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들을 낳으리라. 남자들은 잘 모르겠다. 충격이 어떨는지... 여자라도 모를 거라, 아마. 뭐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미혼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은옥)

미혼모가 된다 해도 상상이 잘 안 되죠?

미혼모라도 그런 접촉을 했기 때문에 미혼모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아무런 남자를 모르는데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충격보다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주연찬)

황당하다. 그럼 천사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마리아도 별 신앙이 없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이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몇 명)

그러면 다 비슷하네. 아브라함, 사라, 사가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율법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김은옥)

당연하죠. 사실은 이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현재 정혼한 상태거든요.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이거는 틀에 맞아 죽게 되어 있거든요.

약혼자의 애를 가져도? (김은옥)

일단 죽을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좋은 말 듣기는 어렵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정혼하고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동침하지 않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요셉이 '나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38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김은옥)

예.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거하고 제일 흡사한 성경구절 한 번 찾아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가장 의미가 통할 것 같은 성경구절? 잘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비슷한 상황? 이걸 여자 이야기니까 여자들이 맞춰야죠.

예수님이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김은옥)

이걸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주십시오. 나 임신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이 경우도 그렇고. (김은옥)

목숨 건 일이 하필이면 예수님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왔으니까. 여자 얘기잖아요. 여자를 찾으면 될 걸 왜 남자를 찾노?

죽으면 죽으리다. (김미숙)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구절은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안다 그죠? 그런데 그 구절이나 이 구절이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단순히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전에 뭐부터요? 꼭 해봐야 알아요. 처자/처녀/가 아를 뱃단다. 이러면 죽는 건 죽는데 그전에 경상도 말로? 온 동네 남사스럽워 가지고, 남사스럽다는 말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답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더니만 이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대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경우는 자기의 결단이고 각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반응. 똑같나? (김은옥)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똑같은가. 내가 볼 때는 거의 마찬가지로요. 하나만 더 하고 매듭을 지음시다. 이런 거 참 재미있는데요. 아까 얼핏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참 자상한 일면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충격일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쫓아 보내놓고도 하도 불쌍하니까, 못 한다고 못 한다고 저렇게 뺨뺨이 도는 걸 쫓아 보내놓고 나니까 저게 가긴 가는데 불쌍하단 말이에요. 하도 불쌍하니까 조금씩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뭐가 있죠? 자기 형을 불러다 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런 엄청난 말을 해놓고 마리아가 지금은 열렬에 신앙적인 고백을 했다 해도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하다보면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어쩌면 혼자서 이런 걸 감당을 못해낼지도 모르죠. 요셉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 임신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했다 이러겠어요? 요셉도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내 여잔데...

가만히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이 들겠으며 어디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람의 위로가 또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충분해야 정상이겠지만 어쩔니까 사람이 약한 존재인 것을. 마리아에게 이런 예고를 하고 마리아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그놈 신앙 좋네! 하고 내버려두실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안에 있고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한 번 대답해주세요.

하나는 엘리사벳이. (이명희)

그렇죠. 엘리사벳이 들어서 도저히 얘기 가질 수 없다는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알게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자기 주변에서요. 그래서 천사가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면 아마 뒤에 친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잘 아는 사일 겁니다. 잘 아는 사인데 거리가 꽤 멀어요. 적어도 150km 정도 먼 거리입니다. 39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있는 동네가 유대 한 동리라고 되어 있죠?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 아래쪽이잖아요.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요?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먼 곳입니다. 꽤 먼 곳에 있었으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많죠. 그런데 천사가 가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임신했다

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오만가지[온갖] 잡념이 떠오를 텐데요 이 먼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가서 위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것이고 도리어 엘리사벳이 나중에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심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놓으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섬세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죠?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김미숙)

그렇죠. 이 가브리엘이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두려워 말라고 조치를 다 취해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우리 삶 속에서 더러더러 느끼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좀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적어도 마리아가 하나님에게서 이런 섬세한 손길을 느낀 것은 최소한도로 고백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한 것이 더 먼저 아닙니까? 그 일들은 먼저 이루어졌을지라도 마리아를 위한 사전조치인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런 뜻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뭐죠? 예수라는 말이 헬라어 쪽으로 넘어와서 생긴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여호수아, 호세아하고 예수하고 철자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를 헬라어 쪽으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로스안젤레스를 한자로 음역한 게 뭐죠?

나성.

예. 바로 그런 식이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32절에 보시면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위, 위라는 것은 왕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다윗의 왕위는요 오래 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 때. (김은옥)

그렇죠. 다윗이 죽었을 때 하면 안 되고요. 다윗의 위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영원하리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위반 아니냐 이 말이죠.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그러면 지상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김은옥)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은 지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김은옥)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바로 현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현실을 넘어 그 뒤쪽이 더 중요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같이 뭐 많이 주겠다 그랬잖아요. 몇 명이 나 주셨죠?

한 명. (김현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당대에 얻은 건 없어요. 다 늙어서 어썰픈 아들 하나 얻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 위반 아니예요? 그걸 우리가 먼 훗날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그 많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될 게 아니예요. 하다못해 그렇게 많은 아들 줄려면 마누라도 한꺼번에 여럿을 주든지 언뜻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을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성경에 약속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김은옥)

글쎄 나중에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봐야지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겠어요.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이해가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도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아하스왕에게 하나의 징조로 주어졌던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먼 훗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더 크게 품고 있었던 말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래 계속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가올 예수님의 나라, 영원하게 이어져 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다윗의 왕위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까요? 한 450년쯤 유

지가 되었는데 오래갔다고 말할 수도 있고 금방 없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만 다윗의 위가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꽤 오래 지탱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까 바로 북쪽에 있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은 250년 사이에 왕조가 아홉 개, 왕조가 아홉 개라는 게 무슨 뜻이 있더라?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왕이 죽는 이런 번고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250년 동안에 아홉 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요. 약 450년정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왕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보면 이 왕위가 얼마나 튼튼했다는 걸 금방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내려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론은 아닐지라도 그 진짜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다윗의 왕위는 실제로 견고하게 이어져 갔어요.

나중 역사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10지파는 혼혈이 되어서 사라지지만 다윗의 나라는 다시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사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가 2,000년쯤 뒤에 또 살아나서 저렇게 중동에서 펄펄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 약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적인 의미는 나중에 나올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에서 무궁하리라는 것 역시도 메시아 왕국을 염두에 둔 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의하면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주연찬)

똑같은 표현인데 약간 어려워요. 좀더 쉬운 말로?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찾아보세요.

처녀. (김은옥)

예.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남편이 없잖아. 법적으로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의 아이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성경에 바보 같은 얘기 써놨다구요.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얘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얘기일까? 어떤 점에서 바보 같을까요? 뭐 으레 유명한 사람이나 옛날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면 전설 같은 이야기 다 따라붙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아니 그런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 아니에요? (김은옥)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 들고 나오면요. 안 통해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주야 합니까? (김은옥)

할 수 있다면 좋죠.

우리 자신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어떤 과정을 따져서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김은옥)

저절로 믿어져 버리면 축복이긴 한데 그걸 나를 위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홍희)

그러니까 그게 결국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걸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네. (김은옥)

안 믿는다고 하면?

무슨 말로 얘기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김은옥) (한바탕 웃음)

그건 맞아요.

성경에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배홍희)

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유독 집적거리는 게 바로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이죠.

그러면 나는 지옥 가라 나는 믿고 천국 갈게. (배홍희) (한바탕 웃음)

그렇게 무식하게 들이밀지 말고 이걸 어떻게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글을 누가 썼느냐 하니까 의사가 썼단 말이에요. 생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썼으면 무식해서 그렇게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분은 의사란 말이에요. 당대의 최고 학문을 배운 지식층인데 무식하게 아무 소리나 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가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더라고 나름대로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위인화시키려는 의도로 글을 썼다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절대로 안 넣어요. 말이 될 만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미화시키든지 하지, 자기가 생각해 도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집어넣을 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일을 함부로 집어넣을 수 있을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특히 학자들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가졌다는 사람 고집요, 얼마나 센지 아세요?

지금은 어찌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 대학시험 칠 때요. 어느 대학을 갈 거냐에 따라서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요. 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니까. 그 학자의 주장에 맞추어서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 고집요? 말도 못해요. 우리교회 첼로 선생님 있죠? 손가락 움직이는 거요. 자기 선생님이 요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걸 가르쳐 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한 사람이 찍혀서 평생 고생했다고 그러네요. 첼로 연주하면서 손가락 조금 다르게 움직이면 어떤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요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제자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것 한 번 가지고 평생 찍혀 고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배웠다는 사람의 고집이에요.

의사인 누가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안 넣어요. 그런 고집이 있음직한 누가가 자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권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넣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의 의사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누가가 무식한 사람이 아닐진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동정녀 얘기를 공부도 안 했거나 어설픈 촌놈이 그 얘기를 써 봤다면 으레 바보같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누가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렇게 써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합시다. 더 질문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를 위하여서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누가복음 1:39~80

지난주에 38절까지 보았죠? 39절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산중엘 왜 갔을까요? 39절에 보니까 산중에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확인하러 간 거 아니에요? (배홍희)

천사의 말을 확인하는데 왜 산중에 갔을까요?

지름길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가랴의 집이 산중에 있나? (김은옥)

사가랴의 집이 산중에 있었겠죠. 이스라엘 지형을 설명할 때에 산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유대 지형은 산지, 광야, 평야... 이런 식입니다. 산이 목적지가 아니고,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가 산지였기에 그리로 갔다는 뜻을 산중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방을 나타내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엉뚱한 질문 하나 합시다. 예수님과 요한의 첫 만남은 직접 만남이 아니고 이런 만남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간접으로 만났다 그죠. 어떻게?

벧속에서.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나요? 대화는 안 되었겠지만 서로 마음은 통했다 그죠? 엄마들의 귀와 입을 통해서 그죠? 실제로 그럴까요? 태아가 엄마의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갔을 때가 엘리사벳이 몇 개월 때죠? (배홍희)

6개월쯤 되죠.

그러면 되겠네. (배홍희)

6개월이면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일단 임신을 했다 하면 보는 것, 느끼는 것들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이 있대요. ‘아 놓고 난 다음에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음악교육 시킨다고 레슨 보내고 뭐 하고 열심히 하지 말고 애 가졌을 때 좋은 음악 부지런히 듣는 것이 싸게 친다/먹힌다.’ 그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지 잘 모르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가졌고 안 가졌고를 떠나서 평소에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늘 밝고 건전한 쪽으로 움직여 가면 아이가 저절로 그 쪽으로 갈 경향이 높다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웃어야지, 어찌해야지 하는 것보다 평소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이 벧속에 들어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다 그죠? 단순한 태동이 아니고 여기 표현을 빌린다면 아마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참 유명합니다. 지난번에 마리아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거든요.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은 그것 안 하고 설명만 할게요. 우리 한국 찬양곡 중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제목이 ‘영원히 하시리로다’일 겁니다. 김보훈 씨 곡인데 요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를 그대로 가사로 해서 만든 겁니다. 바하가 이 가사를 가지고 그대로 칸타타를 써놓은 곡이 있어요. 한 곡이 아니고 아마 여러 사람의 여러 곡이 있다는데 *Magnificat*라고 합니다. 왜 그 찬양곡의 이름을 *Magnificat*라고 하느냐 하면 이 마리아의 찬양을 라틴어로 옮겼을 때에 첫 구절이 *Magnificat*입니다. *Magnificat*란 말의 뜻이 뭘까요? 자, 1절을 보고 한 번 찾아봅시다. 가령 국산 *Magnificat*라고 할 수 있는 김보훈 씨 곡에 의할 것 같으면 첫 소절이 ‘내 영혼이...’이니깐 그 곡 이름은 ‘내 영혼이’가 돼야 하는데 사실은 그 곡의 이름은 ‘영원히 하시리로다’거든요. 그런데 라틴어로 옮긴 첫 마디는 *Magnificat*입니다.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찬양하라. (주연찬)

어?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성악하는 사람이라 다르다. 제가 그걸 확인하느라고 악보를 얼마나 뒤적였는지 알아요? 그렇게 쉽게 맞춰버리다니... 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찬양하라’가 맞아요. 성경 본문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 역에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즉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찬양하라’라는 이 유명한 곡들이 써졌을 정도로 이 찬양이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전에 제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던져봤죠. ‘이걸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 봐라’ 대충 압축시키면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것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 이거든요. 그렇게 내용 요약을 하고 거기서 두 글자만 뽑아서 사람 이름을 만들어 봐라.

사실은 우리 딸 이름을 전 이 구절 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 다’라는 뜻으로 ‘은영’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 ‘하영’이 등등. 그런데 가장 걸작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하길래 이름은? 하니깐 ‘메주’라는 겁니다. 이름이 메주라?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왜 그리 우습던지요. 웃음을 못 멈추어서 기억으로는 20분 정도는 진행을 못했어요, 웃느라고. 시작할라 하면 웃어버리고, 시

작하려면 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메주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진형이 작품입니다. 아주 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넘어갑시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아주 큰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참 기쁨인데 지금 마리아의 처지가 기뻐할 처지 맞아요? 마리아가 지금 이걸 이렇게 기뻐하고 웃어도 될 처지인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시아를 주시는,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게 했던 그것은 기뻐하고 처녀가 잉태했으니깐 들로 처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주연찬)

그런데 이 안에 걱정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 (주연찬)

그럼 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냥 집사님이 자주 그러니까. (주연찬)

만날 두 가지가 답일 줄 알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보면은 기뻐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냥 봤을 때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들로 처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주연찬)

그러니까 어떡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믿음이 신실해서. (박진순)

이렇게 정리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나 고통은 그대로 다 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통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더 능가하는 기쁨이 훨씬 많습니다. 가만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들은 전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아픔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싹 없애주셔서 내가 평안함을 누린다? 아니요. 여전히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들에 맞아 죽었는데 안 아팠을까? 그런 질문을 가끔 던지는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스테반의 입장에서는 안 아팠겠죠. (주연찬)

아팠을 것 같아요.(김은옥)

그런데 그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걸 보는 그 기쁨이고 들에 맞는 아픔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신, 불신간에 똑같이 닦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요.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이 닦쳐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노이로제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걸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아픔을 쉽게쉽게 넘기는 거죠.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김종상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좋은 모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부인 보고 가끔씩 물어요. "혹시 얘기 아빠 병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미술이 엄마가 "예, 압니다." 그러면요 고개를 가웃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암으로 곧 죽을 사람인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나 식구들을 보니까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병원에서 암환자들을 돌봐온 간호사들이 봐도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게 살다가 갔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어려움이나 아픔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받아들이는 자세나 강도가 다르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 능가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 앞에는 어려운 문제라고는 전혀 안 생길 거다? 아니에요. 걱정거리, 고민거리, 어려운 것, 힘든 것, 온갖 애를 다 써도 돈 안 생기는 것, 이런 거는 똑같아요. 차이점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늘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쉽게쉽게 극복하고 이겨 나간다는 점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 같아요? 괜히 또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으므로 이러지 마세요. 내 생각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건 기뻐할 일이 절대로 아닐 것 같으니까. 본문을 보면서 어떤 점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했다고 느껴지나 보세요.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 (김은옥)

그렇죠. 그걸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를 찍거나 저기를 찍거나 대충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마리아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이거겠죠.

물론 그것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아마 기쁨의 원천 아닐까 싶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이 어느 날 내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다. 요즘은 꿈같은 일이지만 옛날에 그거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다. 요즘이야 그런 낙도 없지요.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능하다고 표현합니까? 51절부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고 권세있는 자를 그 위에서’ 그 위라는 것이 높다(上)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리(位)입니다.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 말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 혹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분이 바로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이런 큰일을 행하셨다라는 게 핵심이죠. 이래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욕을 얼마나 얻어먹을지 전혀 생각도 안 하구요.

선생님이 심부름 하나 시키면요 왔다갔다 먼 길을 뛰어야 하기도 하고 다른 애들보다 몇 시간이나 더 오래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도 애들은 선생님이 나한테 보여준 관심 그것만이 즐거운 겁니다. 요즘은 학생과 선생님 사이가 그렇게까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듯해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계산도 덜 줄 모르는 바보가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됐을 때예요. 그가 내게 이런 관심을 보여주고 내게 이런 부탁을 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나중에 한 번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힘든 일을 부탁해도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난 옛날에 첫 애인한테 당했던 게 있어요. 여름 방학 때 제가 포항 내려오면서요 필체가 참 좋은 아가씨더러 일주일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주일학교용 패도를 좀 써놓아 두세요 하고 부탁을 해놓고 왔거든요.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아이들 찬송가 몇 백곡 되잖아요. 그걸 한지에 깨끗하게 해서 패도 1권 다 만들어 놔드려요. 정말 재주가 좋다. 글씨가 참 예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별 말은 안 했어요.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들어서 연애를 일 년쯤 하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팠지만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복습을 했는데 나는 자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나가는 투로 한 마디 툭 해요. “제가 여름에 그 더울 때요. 아이들 찬송가 패도 1권을 다 썼는데 그게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 맞다. 한지 전지에 일일이 글 다 써가지고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더운 여름에 신앙이 좋아서 그랬겠냐 하는데 그때서야 깨달음이 오는 거 있죠. 아! 맞다.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사랑이 없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평해졌어요. 사랑이 주는 즐거움은 힘든 일이 주는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는 사람 나쁜 사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일반적인 경우의 하나님과 특별한 경우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부자를 공수로 보낼 수 있는 것. 부자라고 큰소리 쳐봐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알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면 금방 비천한 자는 뭐가 되죠? 높은 자리로 올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를 두고 하는 얘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암만/아무리/ 부자면 뭐해? 나한테 줘야지. 그렇죠? 그런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54절. 55절.

그렇죠. 그 앞 절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과 이런 분이시라고 설명을 해놓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라는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여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퍽퍽 주지 않으면 별 소용없죠.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자, 또 넘어갑시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요, 이웃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다. 무슨 뜻이에요? 엘리사벳이 처음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는데... 머 그런 일이 있었겠죠. (배홍희)

왜 핵심을 빼먹고 빙빙 돌아요?

애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낳았으니까. (김은옥)

그렇죠. (쪽소) 그래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애를 낳아봐야 알죠. (배홍희)

아니, 나도 안 낳아봤어. (김은옥) (쪽소)

아니 그걸 꼭 낳아봐야 알아요? 나도 안 낳았는데? 여기 낳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이,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은포 어릴 때 특하면 남의 얘기를 해요. 제발 은포 데리고 목욕 좀 갔다 오세요. 옆에 있는 어느 선생님은 딸만 셋 있는데 목욕탕에 아들 데리고 오는 사람 보면 눈물이 다 난다나? 이런 건 서러움 속에 들지도 않아요. 자식이 없어서 수난을 겪은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워낙 많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 늙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걸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요 유대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됐을 겁니다. 첫째? 하나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아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됐어요.

애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낳았다.

그걸 꼭 '애 못 낳는 여자가' 이래야 되겠어요?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 보세요.

사가라나 엘리사벳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일 테니까.

다 늙어빠진 할머니...

그러니까 사가라하고 엘리사벳이, 다 늙어빠진 영감 할머니가 자식을 하나 낳았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뻐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었죠. 그것 말고 하나 더?

원래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버지... 그거 뭐지? 그거 우리나라로 하면 김 씨면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배홍희)

다시 말하면 이름의 특이성 때문에란 뜻이죠?

예. 나는 왜 그렇게 말이 안 나올까. (배홍희)

그것도 자주 표현하다 보면 늘어요. 다 잘해 버리면 나도 선생님 못하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말하는 것도 재주예요. 자주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숨씨가 늘고 모두가 훌륭한 선생님이 된다면 좋겠어요. 이름의 특이성이라는 것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아무렇게 짓나요? 신중하게 짓나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지어요? 그래서 이도 있고... 이상한 이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중하게 지어요? 제가 청년시절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한 번 해봤어요. 자기 이름에 대한 소개를 한 번 해보자. 자기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졌는지 한 번 보자 해서 몇 십 명이 모여서 했는데 발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 이름, 우리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부터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첫 딸이니까 이름을 지을 때 은혜의 구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보물이란 이런 의미로... (김은옥)

그건 자랑할 만하다 그죠?

이름만큼만 살아야지. (김은옥) (웃음)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 딸애 얘기했지만 아직은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적어도 누가복음,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이해할 때쯤 되면 앉혀놓고 니 이름이 이렇게 돼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해줄 겁니다.

선생님 이름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김은옥)

제 이름요? 우리 큰아버지가 왕년에 작명으로 이름을 날렸거든요. 작명 알아요? 점잖게 말하면 작명. 달리 말하면요? 한학을 하셨거든요. 옛날 우리 동네에서 우리 큰아버지가 지은 이름 안 붙은 사람 잘 없을 정도였어요. 다른 집에는 다 돈 받고 지은 이름이고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제 이름하고 사주를 가지고 가서 재보고 헛소리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우리 큰아버지께서 사주팔자하고 잘 꿰어 맞춰 놓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빛을 못 보는 이름인데요 동양철학관에 가면 빛 보는 이름이에요. 장모가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할 건데 우리 처가는 전혀 안 믿는 집안이거든요. 평소에 믿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렇게 대성할 거라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무사통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점쟁이지만 전혀 엉터리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제 이름에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됐을 그 또래들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부모의 신앙이 담겨 있는 이런 이름들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부모가 가진 신앙이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 자식들이 그 이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재까지 우리는 잘 안됐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름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나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야곱. 야, 임마 웃긴다. 그게 무슨 꼴이나 바꿔. 뭘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이름이 압삽하거든요. 발음이 비슷해요. 압삽하다는 것하고요. 여태까지 한 짓을 봐. 너 인생을 얼마나 압삽하게 살았냐. 이름 바꿔. 그 이름 바꾼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름 할부로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똥단지 같이 가문에 없는 이름을 붙였더라. 이게 유명해질 소지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의 특이성이라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 말 자체는 좋은 뜻입니다. 그것 말고 하나 더 있다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진 거?

요한의 아버지가 말을 다시 하게 된 것. (김은옥)

거의 1년 가까이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이름 짓고 나더니 말을 하게 됐다.

그런데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천사가 사가랴한테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되는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하라고 전달을... (김은옥)

했겠죠. 말은 못하지만 글씨라도 전해줘야지요. 다른 데 가서 말은 못해도 집에 와서 부부사이에서 적어도 아무 의사소통 없이 1년을 지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내가 왜 병어리가 됐어? 이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배홍희) (한바탕 웃음)

당연히 묻기는 했겠죠.

그런데 웬지 60절에서 63절인가 읽어보면 모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김은옥)

글쎄요. 대화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싫어요. 자,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한 마디가 있다면요? 참 묘한 이름을 하나 붙였다. 병어리로 있다가 말을 하게 됐다.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말?

주의 손이. (주연찬)

그렇죠. 66절 제일 끝에 '주의 손이 저와 함께하심 이러라'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이런 거는 애들한테 도움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Open Sesame!* 우리말로?

열려라 참깨. (김은옥)

어디 나오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동굴 문을 열 때의 주문이다 그죠? 병어리가 된 사가랴가 입을 떼는 데는 무슨 주문이 필요하죠?

찬송하리로다. (김은옥)

입을 못 떼고 있는데 찬송하리다 하면 입이 떨어져요?

요한.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주문 그랬으니까...

요한이라고 말한다.

지금 병어린데?

그럼 요한이라고 쓴다.

좀 자세하게 보세요.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주연찬)

아니. 쓰면 쓴다. 말하면 말한다. 이게 들어가야지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쓴다. (주연찬)

옳지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쓴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사가랴가 서판에 뭐라고 썼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이름은 요한. 여기까지 쓴 거 아니에요? (김은옥)

글쎄요. 우리말로는 이게 애매해요. 그 앞에 있는 '그 이름은'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 문장을 자세하게 한 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작은따옴표를 붙여보란 말이죠. 저가 서판을 달라하여 '요한'이라고 썼으면 아마 성경에 '달라하여 요한이라 쓰매' 이러면 되겠죠. 그 앞에 '그 이름은' 하고 붙어있던 말이에요. 요 말을 사가랴가 서판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거 국어실력을 묻는 겁니다. 성경실력이 아니고.

썼을 것 같아요. (주연찬)

썼어요? '그 이름은 요한?' 우리 말 '이라' 때문에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 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영어성경이라도 찾아봐야죠. 그래서 보니까 *His name is John.* 이니까 '이라'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썼겠다 싶어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헬라어를 뒤져가면서 해야죠. 이렇게 뒤

저가면서 공부하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꼼꼼히 읽어보면 '그 이름'이라는 글자를 요한이 서판에 직접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국어실력이 필요한 경운데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은옥)

우리말 번역상의 문제이긴한데 글썽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원어까지 보고 왔으면 좋았을 걸. 앞으로는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는 위의 영어문장처럼 술어동사가 있는 문장임] 다만 느낌으로도 '이라'까지 써진 것 같아요. 좌우간 아들의 이름을 쓰는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일의 마침이다 그죠?

그러면 또 심술긋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 이름을 쓰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마지막 일이라면 사가랴가 처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최초의 일은 뭐였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배홍희)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약속하신 그 일의 마침은 아이에게 이름 짓는 걸로 끝났구요 그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가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 (박진순)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글로. (박진순)

쓸데없는 질문이라 하잖아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왜 질문하세요? (김은옥)

왜 질문하냐구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었는 거네. (배홍희) (자매들의 큰 웃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부부사이의 이런 관계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많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부사이에 큰 장애를 가지고 올 여지가 아주 많아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봅시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최초의 일은요 부인과 함께 자는 겁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자식...

예.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 드린 몸입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죽을 때까지 동정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글썽 그걸 위대한 신앙이라고 표현해야 할런지.

결혼을 해서 동정으로 살았다구요? 그럼 결혼은 왜 해요?

왜 했냐구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억지로 시켰겠지요. 결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평생을 헌신하겠다 해서 좌우간 동정으로 살았다는, 천주교에 박해가 한창 심하던 시절의 이야기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작정하고 사는 게 본인들에게는 위대한 일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왜 하나 할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생각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하고 동시에 요즘처럼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지는 것은 오히려 이 소중한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가요 1년 동안 말을 못했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한 마디 했거든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찬송을 해요? 찬송을 되게/뭉씨/ 하고 싶었겠다 그죠? 찬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동안 병어리로 있다가 드디어 입이 떨어지면 첫마디, 뭐부터 하겠어요? (웃으며) 시원하다?

찬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속 말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박진순)

알았어요. 사가랴하고 수준이 좀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사가랴가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한 마디로, 무슨 찬송? '내 평생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찬송은 했습니다. 뭐에 대한 찬송이었어요?

메시야를 예비한 요한이 태어난... (박진순)

자기 자식 요한이 태어난 게 아니고 메시지를 예비하는 요한이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예비하고 그 다음에... (김은옥)

예.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이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놓/놓/긴 뭘 놓고? 자기 애를 낳았잖아요. 자기 애를 낳고 왜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김은옥)

아니. 예언도 무슨 관련이 있는 예언을 해야지. 낳기는 자기 애 낳고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 그러니까 요한이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배홍희)

어? 잠깐만,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게 요한의 탄생인가요?

그 아이의 역할에 대해서 사가랴가 분명히 알고... (김은옥)

그 아이관? 자기 아들이요? 그러면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한 찬양이겠네요?

그런데 여기 76절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배홍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를 주셨고 자기 아들은 그 메시아의... (김은옥)

이게 사가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얘기잖아요. (배홍희)

이게 천사가 제일 처음에 사가랴에게 왔을 때 얘기를 했는 게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겠다... (박진순)

물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얘기가 두 개예요. 두 개로 갈라져요. 앞 쪽 얘긴 뒤에 대한 찬양? 메시아에 대한 감사 찬양이죠. 이상하다, 자기 아이를 낳아 놓고 왜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을 하느냐 말이죠. 자기 아이의 역할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쁜 게 자기 아들 때문에 기쁜 거예요? 메시아 때문에 기쁜 거예요?

둘 다. (박진순)

둘 다지마는 어느 쪽 비중이 더 크냐 말이죠? 메시아 쪽이죠? 자기가 지금 늙어서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다는 그 기쁨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고 자기 아들은 그 메시아에 달려 나오는 일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도 사실은 이 요한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걸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의 탄생을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있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요, 예수님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요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할 일이 생겼다. 내 때문이 아니고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아지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 거냐 생각하니깐 기쁘더라, 이렇게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야, 요번에 내 횡재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에 혹은 내게 좋은 일들이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 그게 성령충만한 삶이죠. 우리 삶들이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해요. 그래서 예수 빼버리면 시체. 그거 맞아요. 예수 빼버리면 시체인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자식이 없어서 남사스럽게 살다가 지금 아들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데 그걸 따져보면 결국 주신 메시아에 대한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오구요, 오히려 그 쪽을 감사하는 것이지 자기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내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 일에서 정말 기뻐할 때 내가 왜 기뻐하는지 한번 짚은 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그 분 때문에 오는 기쁨이어야 하고 우리 삶 자체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이요 제가 오늘 원어 성경을 펴놓고 대조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거니까 한 번 해봅시다. 이 사가랴의 찬양이 히브리어의 문학양식 중에 교차덧구법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때 보통 되풀이 하면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복의 위치가 아주 재미있어요. 제일 앞에 나온 것은 제일 뒤에서 반복하고 두 번째 나온 것은 끝에서 두 번째 위치시키고, 세 번째 나온 이야기는 끝에서 세 번째 위치시키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먼 양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반복이 되는 방법, 이걸 교차덧구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씩 부를 테니까 찾아 보세요. 연필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68절 보면 '그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제일 뒤쪽에 어딘가 붙어 있어요.

주의 백성. (김미숙)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요. 69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의 불'이라는 '구원'이죠? 어딴나 보세요.

77절에 '구원'

그 다음 70절에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

76절에 '선지자'

그 다음 71절에 '원수'란 말이 나와요. '우리 원수에게서와'라는 것?

74절에 '원수의 손'

72절에 보면 '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조상' 어딴죠? 73절. 차츰차츰 앞으로 오고 있죠. 마지막 때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맹세가 거기 있죠?

73절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조여 들어오는 표현방식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표현방식인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이런 양식에 맞추었을 때에 주는 느낌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찬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그냥 말로 전한 거 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면 맛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방금 살펴본 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맺구가 맞더냐구요. 그래서 연필 갖고 표시해 가면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그어봤는데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엇갈려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꼭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죠? 시조도 3.4. 3.4. 3.4. 3.4. 그 다음 3.5. 4.3. 조금 틀려도 괜찮죠. 조금은 틀려도 되는데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

종장 맨 처음 3.

그렇죠. 이걸 절대로 안 틀리죠. 유대인들의 이런 표현방식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차해서 반복시킨다는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함부로 허물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안 맞는 게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어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어요. 원어를 몰라도 이런 정도는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 관심 가져보세요. 정확하게 좌우로 들어오면서 짝을 이루고 있더라구요. 제가 재미 삼아 영어성경 맞춰봤는데 *MTV* 성경에는 한 군데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영어는 도치법이 있으니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다 싶어요. 우리말 성경도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말도 순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바꾸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말은 두 군데나 안 맞거든요. 가능하다면 틈틈이 원어 공부도 해보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가볍게 몇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아브라함과 사라, 한나와 엘가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공통점 두 가지? 이 세 부부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자식을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데 이렇게 공부할 때는 금방 알지만 퀴즈문제로 '다음 세 부부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내놓으면 재미가 있겠다 그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가고 문학가이고 역사가이기도 한데 이 안에 보면 의사로서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병 고치는 것. (주연찬)

누가가 무슨 병 고쳤어요? (웃음)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또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대요.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참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왜? 어차피 원어를 모르니까. 누가는 전문용어를 썼을지라도 우리말로 옮길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 옮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일반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전문용어를 누가가 얼마나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적었다는 것도 어지간히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특징적인 거요, 1장을 자세히 보면 이걸 다른 성경하고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봤던 거하고는 아주 특징적으로 달라요. 1장을 유심히 봐왔으면요.

애기 얘기도? (박진순)

애기 이야기인데 다른 복음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냐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 1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찬양이 많아요. 다른 말로 시가 많다는 거예요. 1장에 몇 개가 나오나 보세요. 이 한편 한편이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통은 이런 거 나오면 내용도 뜻도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마리아의 찬가부터 유명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누가가 쓴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 혹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도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겁니다.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으로는 어때요? 누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두 권을 썼다 그죠? 분량으로 치면요? 1등은 안될 거라. 가만, 분량으로 1등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울은 많이 썼지만 짧은 게 많다 그죠? 아, 그래도 바울이 1등이겠다. 바울이 분량으로 1등이면 누가는 분량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2등입니다. 사도행전도 보통 긴 게 아니고 누가복음은 더더구나 가장 긴

근데요. 이렇게 긴 글을 아름다운 문체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가방 끈이 길어서. 하하하... (김은옥)

어째 가방 끈이 길어서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가방 끈이 짧아서 짧은 글 몇 개밖에 남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의 글들이 다 짧잖아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사람의 값어치가 더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공부라는 것이 꼭 학교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든지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노력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베드로가 겨우 베드로 전, 후서 합쳐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밖에 못 남겼잖아요.

누가?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한 사람인지 처음에 잘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글들을 남겨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이 만약에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바울 서신들이 자연스럽게 근거를 가지는 거예요. 중요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어디에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아! 사도행전하고 이거 비슷하다 싶은 게 혹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아주 강조가 돼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대학부랑 고등부랑 같이 누가복음 공부할 때 그때 선생님께서 성령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오는지 문제냈어요. (주연찬)

어려운 문제냈네. (배홍희)

그건 안 어려워요. 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특징적이다 싶은 거는 표시를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안 어렵다는 거는 찾아보면 예를 들면 성령은 세모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반복이네 그러면 다시 가서 동그라미를 쳐놓는다거나 이런 짓 잘해요.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는 표시 다 해놨는데. (주연찬)

그래서 성경책을 자주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나오는 찬양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온 찬양들이거든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나와 있어요. 15절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 35절에 있고요, 41절에 있고요, 67절에 있어요. 장면장면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졌던 누가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공부할 분량도 좀 많다 싶어서 말을 좀 급하게 하고 몇 가지는 뺐거든요. 나중에 읽어보고 질문할 것 있으면 다시 하고 그러세요. 분량도 상당히 많은 책이고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써놓은 것 같으면 쉽게쉽게 넘어가면 돼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읽을 책이 아니에요. 요즈음 젊은 친구 둘하고 기숙사에서 한 방 쓰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붙들고 앉아 있으면 옆에서 그래요. "집사님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습성이지머 별 것 아니야.", "오늘 아침 뭐 했어요?", "누가복음 서너 구절." 새벽 두 시간 내내 서너 구절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깐요. 그래야 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 시간에 나와 보면 방에 전부 불이 꺼져 있어요. 시끄러운 일 없고 조용하잖아요. 방해할 사람도 없고 혼자 앉아서 성경 몇 구절만 붙들고 왜 이랬을까 하고 씨름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어요? 나와 하나님만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겁니다. 만날 텔레비전에 녹아서 늦게까지 보다가 아침에 온갖 복새통을 다 떨고 간신히 일어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성경도 늘 조용할 때 펴놓고 많이 읽어야 하지만 때로는 한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랬을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궁금하거든 질문도 하고 그러세요.

제가 워낙 구석구석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웬만큼 의문스럽다는 것은 다 지적을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저하고는 영 딴 생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오면 나중에 어디 선가 누가복음 공부를 할 때 그 얘기 제가 절대 안 빠뜨립니다. 제가 쓴 교재 안에는요 다른 애들이 한 말을 삽입시켜 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건 다 출처를 밝혀 놔요. 이건 누가했는 말이다. 이름까지 명시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찬찬히 보고 질문도 하고 그러십시오. 마칠까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이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인도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누가복음 2 장

자, 질문할 단어 없어요? 뜻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 강보가 뭐예요? '말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라는 데?

포대기. (김은옥)

구유는 뭐예요?

밥통. (주연찬)

자,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예. 둘 다 맞아요.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뭐죠?

존엄한 자. (김은옥)

존엄한 자의 구체적인 뜻이 뭐예요?

신적인 차원. (김은옥)

그렇죠. 신이란 뜻이에요. 보통 책에 보면 존엄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신으로 떠받들어졌 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말은 신으로 떠받 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이 생겨난 게 있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이름을 따서 달력에 한 달을 집어넣었거든요. 아마 July겠죠? 그걸 본따서 이 아우구스투스도 한 달을 집어넣었어요.

August예요? (김은옥)

예. 그래서 원래 로마시대의 달력엔 열 달이었는데 두 달이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름이 이상하 게 뒤틀려 버렸어요. 가령 October가 10월이잖아요. 그런데 Octo-는 원래 8이라는 뜻이에요. 가령 오징어 다리 몇 개인지 아세요?

열개?

여덟 개.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죠. 문어를 영어로 Octopus라고 합니다. 문어 다리가 여덟 개거든요. 그러면 오징 어 다리는 10개입니다. 이런 영어 실력 탓에 오징어 다리와 문어 다리 개수를 전 틀리지 않아요. 안 그 러면 몹시 헛갈릴 텐데. 그런데 이게 두 달이 밀려나서 10월이 되었는데 줄리어스 시저하고 아우구스투 스라고 불렀던 옥타비아누스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시대 때 그 위대했던 황제였더라 는 점을 미리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초라한 증거를 두 개만 찾으라 하면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김은옥)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적어도 왕으로 왔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정상인데 그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 을 때 헤롯의 궁으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왕으로 나셨으니까 왕궁에서 났을 것이다 하고 궁으로 갔는 데 알고 보니까 궁이 아니고 마구간에서 낳더라. 사람들의 기대와 좀 다르게 태어나신 거죠. 또 있 어요? 오늘 새벽에 녹영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꼬마/그 놈의 아이?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출세해 있 어요. 호텔 같은 방에서 지금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마구간, 그것도 구유. 어디예요? 말 밥통에. 이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와도 되냐 말이죠. 그것 두 개만 지적해도 되는데요. 그것 말고 혹시 또 하 나 지적을 한다면?

축하한 사람들이 왕의 탄생치고는 너무... (김은옥)

너무 초라해요? 축하사절이 좀 시원찮다. 그것도 말 되네. 그런데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게 여기 포항에서 말한다면 포항 옆에 있는 흥해나 신평쯤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서 정말 조그마한 촌 동네에서 그것도 마구간의 말 밥통에 누워계셨더라. 그리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초라 해 보였더라. 반면에 아우구스투스는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신으로 대접받고 있는 그 때에 우주 의 창조주이신 그 분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는 얘기죠. 사실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가 선지자가 유명한 게요, 미가 5장 2절에 뭐가 예언돼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레초에니라'라는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인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에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장소를 지적하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라고 정확하게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유명한 장소지만 실제로 마리아가 살았던 곳하고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마리아는

어디서 살았죠? 갈릴리 나사렛이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 내려와서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상으로는 아주 먼 곳입니다. 약 150km 정도 된다고요. 교통이 불편하던 그 옛날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정도 거리면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예언대로라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애기를 낳아야 합니다. 현실은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예언은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다면요?

호적을... (주연찬)

호적을 썼어요? 대답을 그걸 왜 호적이라고만 할까? 아구스도의 명? 가장 명답은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렇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아우구스투스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얘깁니다. 로마에 평화를 안겨주었다고 해서 이 시기를 Pax Romana라고 하는데 그 공을 기려서 신으로 떠받들어졌던 그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주 작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라는 걸 알면요, 참 허파 뒤집힐 일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이때 호적령을 내려서 기록하는 바람에 아무도 예수를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못해요. 호적에 남아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데는 이의를 안 달아요. 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의 출생을 증명하는 데에 공헌한 바가 아주 큼니다.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더라는 얘깁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꼭 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적어도 15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 와서 꼭 낳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윗 때문에. (김은옥)

다윗. 왜요? 다윗의 동네에서 나야 하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김은옥)

그렇다고 갈릴리에서 나면 다윗의 약속하고 관계가 없나요? 꼭 거기서 낳아야 하나요? 다윗하고 관련지은 것은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도 사실은 재미있어요. 베들레헴의 말뜻이 뭐죠?

떡집. (이명희)

그렇죠. 떡집이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구요 '레헴'이라는 게 떡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고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떡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방앗간에서요.

방앗간에서 나와요? 그러면 베들레헴 뜻을 방앗간으로 고쳐야 되겠다.

떡방앗간. (주연찬)

떡은 떡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유머스러운 분이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단 말이죠. 그것 아니라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 붙여준 사건 보세요. 참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요. 뜻이 뭐죠?

열국의 아비. (김은옥)

열국의 아비? 사람들이 많이 웃었을 거라. 아들 열 명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열 개의 나라를 거느린 아버지.

열 개가 아니라, (김은옥)

아, 미안, 미안, 이 열국의 '열'은 십이 아니라 '여럿'列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여러 나라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예요?

없을 때 아니예요? (김은옥)

예.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이름은 정말 거창했지요. 나중에 생겼지만 겨우 어설픈 아들 하나예요. 참 재미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도 이름 자체가 참 압압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함부로 주신 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름 한 자 한 자에 깊은 의미가 재미있게 담겨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반드시 떡집이라고 불리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면 것은 엄숙하고 장엄함 속에 유머스러움을 감추고 있는 정말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도 거기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어요? (김은옥)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름이 언제 붙었는지. 한 번 뒤져볼게요. 이 동네가 그렇게 이름 있던 동네는 아니에요.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소식을 알리려면요 이걸 누구한테 알리는 게 잘 하는 것이겠어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김은옥)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소식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겨우 목동들에게 알려졌거든요. 알릴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요 목동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동박박사들,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이명희)

동방박사가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목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건 아니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밤잠을 잘 안 잔다. (이명희) (웃음)

시므온과 안나는 늙어서요? 잠을 안 자고? 밤잠을 잘 안 잔다. 그걸 조금만 더 하면? 저도 혼자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왜 이 기쁜 소식을 겨우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 좀 더 없을까 하다가 이게 뭐 억지가 될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깨어 있는 사람들이란 느낌이 들어요. 이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들은 밤에 안 자고 일하던 사람들이고요 시므온과 안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진짜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팀은 육체적으로 깨어 있던 사람이고 두 팀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어쨌든 영육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대표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꼭 그렇다라고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에 현대는 계속 이런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져 갑니다. 밤새도록 컴퓨터 두들기다가 꼭두새벽에 잠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깨어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깨어있다고기보다는 정신이 해롱해롱 해지는 경향이 더 농후한 것 같아서. 그건 재미로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요 베들레헬 다윗의 동네에 가보면 얘기가 하나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준 표적이다 이러거든요. 표적을 좇려면 좀 거창한 걸 쥐야지 그게 무슨 표적이야. 표적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것. 가령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준 표적처럼 온 땅에 이슬이 내리는데 자기가 놔둔 양털만 안 젖는다거나 온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고여 있다거나 머, 이 정도는 돼야 표적이라 할 수 안 있겠어요? 메시아도 메시아같이 왔으면 그 고생을 안 해도 될텐데...

기독교의 많은 요소,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은요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화려하거나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나 봐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화려하거나 눈에 뜨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이사야 53:2)' 그랬거든요. 마른 땅에서 비썩/비썩, 바싹/ 말라비틀어진 줄기 하나 올라온 것,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화려하고 웅장해서 모든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가운데 시작된 게 없어요. 조그마한 시작이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변해있더라. 그런 예는 기독교 역사에 참 많습니다. 바울이 해놓은 일이 너무나 크니까 위대하다지만 당시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다녔던 일이 세계사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이 갔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세계역사의 물결이 그 쪽으로 흘러간 셈인데요 바울 자신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지금처럼 화려하고 큰 교회들이 아니라 가정에 몇 명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가르치다가 쫓겨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눈에 조그마하고 보잘 것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버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표적도 때로는 너무나 초라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소한 것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나 우리가 시작했던 일들이 정말 초라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일의 작은 시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큰 용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고요 천군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쓸

쓸한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연주 혹은 공연을 준비했는데 관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연주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천군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지 않다는 얘깁니다. 누가 없어요? 관중이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관중은 누구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죠. 사람에게 있거든요. 천군천사가 아무리 찬양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는요 계시록에 가면 나오듯이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몹시 쓸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군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라도. 그냥 두렵고 무섭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라도 하나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느낌을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받았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 가실거지만 지금은 외로워 보여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을 것 같아요. (이명희)

왜?

비둘기. (이명희)

원래 아이를 낳고 결례의 기간이 지나서 결례를 행할 때는 돈 많은 사람들 같으면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양 한 마리정도 돼야 번제가 될 게 있지, 비둘기 가지고 뭐 번제 드릴 것 있겠어요? 번제단이 서러워 울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린양으로 제사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 두 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일부러 그런 놈은 나쁜 놈이겠지만 그런 걸로 봐서 마리아와 요셉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외국어로 옮기기 어려운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한국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있죠. '한이 맺혀서'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옮길런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안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걸 옮기기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몇 십 년을 헤매다가 만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응어리가 풀렸다. (한승창)

그 다음에요? 꼭 붙는 말이 있잖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김은옥)

아,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은 또 남은 한이네요 그죠? 한국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의 개념이라는 게 참 다른 나라 말로 옮기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안에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과 만나. (주연찬)

만나는 별 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므온부터 봅시다. 시므온한테 그런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김은옥)

그 동안에는요? 한이 맺혀서 묶여 있었던 건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놓아 주시는구나. 한이 풀렸다는 것과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을 품고 살아온 것하고 시므온이 품고 온 '한'하고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시므온의 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걸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한은 예를 들면 헤어져진 가족을 만나길 기다리거나 개인적인 억울함 이런 거... (김은옥)

그럼 비슷하네. 만날 사람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나요?

개인적인 차원하고. (김은옥)

하나는 개인적이고 하나는 공적이고? 그러니까 차이라는 거는 명백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한국사람들은 소망보다는 맺힌... (한승창)

시므온에겐 성령이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잖아요. (김은옥)

맞아요. 맞는데 그걸 남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자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품고 있는 한은 괴로움의 연속이죠. 시므온이 품고 왔던 한은 괴로움이었을까요? 소풍날을 기다리는 아이의 설레임 같은 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단다라는 그 설레임으로 기다렸던

한이죠. 기다린다는 점에서 동일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풀렸다고 말하는 그때까지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고 시므온의 경우는 이걸 고통으로 기다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어주시는 놀라움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연속이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고통과 감격은 늘 비슷합니다. 간지럼을 너무 안타는 사람은 전 걱정이 좀 돼요. 간질어도 간지럼 안타는 사람 왜 걱정되는지 알아요? 간지럼이라는 느낌은 싫지만 결혼해서 살다보면 성적인 느낌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거든요. 마땅히 느껴야 할 때 느끼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예전에 누군가를 장난으로 간질었는데 전혀 간지럼을 안타더라구요. 혼자서 걱정스러운 거 있죠.

그게 정서적인 문젠니까? 아니면 신체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김은옥)

글쎄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각상의 문제지 싶어요.

치료하면 가능하겠네요. (김은옥)

못 느끼는 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이명희)

느낌이 없으니깐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 느끼는 신경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예요? (김은옥)

간지럼만 못 느끼겠죠. 좌우간, 시므온은 오랜 세월동안 누리고 있던 설레임이 이제야 이루어진 겁니다. 참 기뻐했을 겁니다. 그 다음 시므온의 얘기를 보면서 제가 왜 이 소리하는지 맞춰 보세요.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모든 오락을 끊고 하루쯤 금식도 하고 엄숙하게 지내죠.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안 받았으면 내게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놀라운 기쁨이 주어진 것이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내가 그때 이렇게 고난당했으니깐 너희도 좀 심각하게 지내!'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때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는 마음껏 즐겨워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고난주간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고 슬퍼할 게 아니고 오히려 축제 기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지 싶어요. 내 생각이...

누가 뭐라 그래요? (김은옥)

다들 그렇다는 말이지.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다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얘기죠. 고난주간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주간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정말 즐거워해야 할 주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축제주간으로 지내는 걸 예수님께서도 더 기뻐하실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나느냐 이 말이지.

34절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주연찬)

예, 그거 맞아요. 무슨 생각이나 하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그 예수를 보고요 자기 마음은 어떤데요? 얼마만한 긴 세월이었는데는 모르겠지만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아기 예수를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로 인해서 누가 앞으로 고통을 당할 건데요? 마리아가 고통당할 걸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한없이 기뻐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리아는 이 아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것이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시므온이 웃을 수 있어요? 시므온은 지금 한없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야 되지요. 우리도 그러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야 참 고생을 하셨죠.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주연찬)

즐거워해야죠. 앞으로 건의를 해볼 생각이라.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거죠. 우리는요? 그것 아니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없었는데. 우리는 즐거워하는 게 옳다는 뜻입니다.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거는 맞는데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을 기념하자는 거 아니예요? (김은옥)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초대교회사에 대한 책을 보니까 고난주간 때 우리가 지금처럼 슬퍼하는 것보다는 떡을 떼고 기뻐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승창)

내 개인적으로는 고난주간 슬퍼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주연찬)

그게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라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은옥)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잖아. 오락을 금하고...

아니, 뭘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규정을 만들어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그 기간을 특별히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김은옥)

정숙하게? 아니면 기분 좋게?

기본적으로는 축복이잖아요.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주일 중에 한 끼씩 금식해서 그 앞에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한 그 밥값을 계산해서 모아서 누구 돕는 헌금으로 나중에 내고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의 일은 괜찮지 않을까요? (김은옥)

물론 괜찮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좋은데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쁨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까만 옷을 입고 장례분위기를 내고 어떤 분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주연찬)

좀 슬프게 지내는 거 맞아요, 실제로.

그런데 저는 그게 꼭 이렇게까지 울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연찬)

왜 울어요? 나는 좋기만 하던데.

그런데 보면은 개인자인데... (주연찬)

자, 그런 면이 있다는 점만 기억하고 지나갑시다. 시므온은 좌우간 지금 감격 중인데 한편으론 뭐가 보이려고 하나까 마리아가 앞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을 것인가 그게 보이더라 얘기죠. 안나도 한 마디 하고 갑시다. 안나는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0살은 넘었을 것 같아요. (김은옥)

100살요? 왜요?

왜냐하면 결혼생활을 7년 정도 했고 과부가 된지 84년이거든요. 합치면 벌써 91살이잖아요. 최소한 열 살은 넘어서 결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열 살? (김은옥)

그런데 물어보면 안나 나이가 백 살 넘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 이걸 근성으로 봐버리거든. 근성으로 봐버리니까 아! 팔십 얼마라는 거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팔십 얼마쯤 답이 잘 나와요. 그게 꼼꼼하게 안 본다는 얘깁니다. 최소한도로 백열 살 정도로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때에는 결혼을 몇 살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불행하죠? 안나나 시므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목격한 게. 목격하고 이내 죽었지 싶어요. 그렇죠? 아니면 죽기 일보직전에서야 봤을 가능성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백열 살 넘은 할머니가 보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하긴 그때도 금식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었다니까 모르긴 하겠지만요.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해놓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더덕요. 성경에 나온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더디게 이루어져 나간 것?

아브라함. (한승창)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겠다 해놓고?

25년. (한승창)

25년요? 칠십오 세 때 그렇게 계산하면 25년 맞네요. 그럼 빨리 줬네. 그런데 그걸 꼭 그때부터 계산하지 말고 적어도 아브라함이 결혼했을 때부터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독하게 안 줬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이 동작이 느린 대표적인 사건?

약속은 아닌데요, 다윗과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겠다고.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과 바울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한승창)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에게 해오신 약속이 둘 사이를 영원히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나단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약속을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하고 또 요나단 베냐민 지파로 온 바울에게... (한승창)

아하,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단 말이죠?

김성일 장로님이 말씀하시길래... (한승창)

나도 처음 듣는 얘인데.

그것도 약속이었거든요. (한승창)

그것도 하나의 예언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동작이 느린 것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살이가 400년인데 그 400년 뒤에 출애굽한 일이 이루어진 것. (김은옥)

그것은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은 끝났는데 그걸 38년 동안... (한승창)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것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별을 선 것이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이구요. 400년 종살이한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종살이, 종살이 그러는데 400년 다 종살이 한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종노릇이라는 핏박이 닥쳐온 것이지 그 이전에는 오히려 종노릇 한 것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400년 동안은 그러면 야곱과 그 자식들과 일가가 다 애굽으로 옮겨간 그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이요? (김은옥)

예. 400년이라 하기도 하고 430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사람을 하나 찍었는데 누구죠?

모세.

모세죠. 모세가 몇 살 때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팔십 세.

그러면 재를 구해내야 되겠구나 하고 모세를 보내놓고도 팔십 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동작 느린 거 맞나요? 노아 홍수 때 이놈들 멀해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몇 년간 있었어요?

백이십 년요.

좌우간 동작 참 느린 분 맞아요. 시므온이 언제 니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고 몰라도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영광을 지금 누린 셈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표현을 빌린다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했는데 그런 고통이 앞으로 오게 될 거란 얘기죠. 마리아가 언제 이런 아픔을 맞게 될지 두 가지쯤 지적을 해보세요. 하나는 금방 나오겠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김은옥)

예, 그때 아마 엄청난 고통을 안 겪었겠어요? 또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 가출을 하셨죠?

여기 나오는 거요?

여기 나오는 것 말고 언제 가출했어요? 나이 서른에. 예수님의 행위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출입니다. 가출해서 뭐 하는데? 이상한 놈들 몇 명 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해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출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실 때에 모친과 형제들이 데리러 온 적이 있어요. 왜 데리러 왔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 예수가 좀 이상하다 해서 집으로 데려 가자고 왔을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다' 하시는 말씀.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완전히 틀은 거 맞잖아요. 이해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이 서른이 돼서 가족을 다 팽개치고 가출을 시도했는데 아마 적어도 마리아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히 괴로웠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쯤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 어릴 적 얘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누가복음의 이 부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외경에 더러더러 나온 얘기가 좀 있긴 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접어봐놓고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있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러면 왜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을까요? 아니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릴 적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그것부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비록 하나뿐이지만 누가는 기록을 했거든요. 왜 여기 이 기록이 남았을까? 이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차례대로 써 보내는 차원에서. (김은옥)

두 가지인데 하필이면 그걸 찍어요?

자세히. (곽경미)

자세히, 차례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야기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 기록된 거는 자세히 쪽을 찍는 게 맞죠. 그런데 누가가 자세히 쓴다고 예수님의 어릴 적 얘기를 하나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빠진 게 뭐일 것 같아요? 자세히 쓴다고 쓰는데 다른 성경에 있는 것 빠뜨린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동방박사. (김은옥)

그렇죠. 동방박사 얘기가 빠지고 없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상하다? 누가도 자세히 쓴다고 하면서 왜 그걸 빠뜨렸을까? 짧지 않은 이야기를요. 이유가 있

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묘사하면서 왕의 모습과 관련된 것은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한 셈입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 받고 고난당한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한 이야기는 누가가 기록하려는 의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쓸려는 의도에 따라서 얘기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러는 게 역사라는 건 잘 알죠? 다들 처녀 총각이 돼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아이는 부모에게 짐이다? 아니면 기쁨의 원천이다?

둘 다. (주연찬)

둘 다예요? 허, 참. 우리 집에 지금 세 살 바기 조카가 와있는데요 온 식구들에게 다 사랑을 받죠.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죠. 제가 성경책을 끼고 다닌 지가 40년이 다 되어가지만 성경책 찢어진 기억이 없는데 이 녀석이 내 성경책을 찢어놓은 것 있지요. 몹시 가슴이 쓰리지만 어떡해요? 글자 없는 여백에만 스킨치테이프를 붙여 봤어요. 예전에는 컴퓨터의 자판을 아이들이 와서 장난쳐도 별일이 없는데 지금은 안돼요. 마우스 가지고 몇 군데 찍어버리면 완전히 화면이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고 있을 때 이 녀석이 근처에 오면 비상입니다. 장판에 오만 낙서 다 해버리고요, 두들겨 깨고요, 화장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잉잉거리죠. 지금 우리 집은 항상 비상대기 상태인데 아이들 키우는 일은요 힘들고 고역이면서 동시에 어른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줘요. 우리 어머니 표현 빌리면 '이게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미웠다가 귀했다가'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도 다 커서 부모에게 한 번 그랬던 모양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한 마디 했을 것 같아요?

니 뭐하고 돌아다니노? (주연찬)

그러면 아주 순한 엄마예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부모가 일행과 함께 가다가 일행 가운데 예수가 어디 있을 거다 하고 갔는데 며칠 만에 없는지 알았어요? 하루 만에 어? 없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옵니다. 며칠 걸려서 돌아오죠? 사흘 동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해가 좀 가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이 나와요. 왜 하루 갔다가 돌아오는데 사흘 걸려요?

가는 길은 분명하니까 하루 만에 간다치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오는 길이 사흘이나 걸린 거죠.

(한승창)

그렇죠. 자식을 사흘간 찾아 헤맨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아까 엄마가 그렇게 부드러운 말이 나온다고 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집에 연락 안한 채 선생님 집에 가서 일을 돕다가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저번에 제가 대학부 수련회 때 말을 안 하고 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가출신고해서 실종됐다고 파출소에 신고 했어요. (주연찬)

나도 우리 아버지 첫마디가 '파출소에 니가 가서 이야기해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파출소에 아/애가/ 행방불명됐다고요. 비상이 걸려서 난리를 치고 있었더라구요. '뭐 아침까지 기다려 볼일이지 뭘 그래' 그건 우리 마음이고요. 집에서 자식이 안 들어오는 것을 아는 부모 마음은요 안절부절이죠. 그래도 파출소에 행방불명됐다고 신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가 영해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포항에 왔는데 터미널에서 작은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큰 애 손을 잡고 작은 애 이름을 부르면서 남부교회 앞에 터미널이 있을 때인데 두 시간을 풀었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애 하나 데리고 야! 야! 하면서 두 시간을 풀었대요. 두 시간을 풀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버스를 타고 영해로 갔답니다. 집에 가보니까 작은 애가 집에 와있더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왔냐?" 하니까 "아빠도 안 보이고 형도 안 보여서 버스 타는 아무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좀 같이 태워줘요" 그래서 같이 버스 타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분인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보고 완전히 실성했다고 느꼈을 거야." 하더라구요. 그 얘기 듣는 우리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아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 심정은 죽을 지경이었죠. 자, 부모 마음이 이렇다는 정도는 알고 사흘 길을 거꾸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성전에 태연스럽게 앉아 있거든요. 자, 뭐라고 한 마디 할까요?

막 야단칠 것 같아요. (주연찬)

"어디 갔노?" 이래요? 성질 급한 아버지 같으면 손부터 올라갑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황현주)

눈물이 나오? 반가워 가지고? 좌우간 그 사흘 동안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을 게 틀림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게 한편으로는 기쁨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짐이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천하태평이다 그죠?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도 되나요? 아이들은 때가 되면 부모에게 다 반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첫 반항은 언젠지 아세요?

밥 안 먹을 때. (한승창)

벧속에 있을 때 아이가 엄마를 몹시 괴롭히죠. 왜? 나갈려고. 이게 제 1 반항입니다. 이게 엄마를 몹시 아프게 해요. 소위 말하는 산통이라는 것 있죠. 나중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애기 못 낳겠다라는 여자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실컷 키워놓으면 중학교나 고등학생 때쯤 까닭 없이 부모가 자꾸 미워져요. 그 때를?

그 전에 미운 일곱 살이라는 것도 있던데. (김은옥)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까닭없이 부모가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심리적으로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반항은 반항인데 완전히 이유 없는 반항. 영어선생님이 “야, 물이 뭐고?”, “H<sub>2</sub>O” 이러죠. 과학선생님이 “야, 물이 뭐고?” 하면요. 답이 뭔지 아세요? “Water” 이러죠. 이 이야기에 제목을 붙여 보세요. 이유 없는 반항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을 너무 잘 듣는 것도 사실은 문제구요. 너무 안 듣는 것도 또 문제예요.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유명해진 사람 혹 알아요? 소위 위인들 중에.

요한. (한승창)

어느 요한요?

갈릴리 요한. (모두 큰 웃음) 바닷가에 자기 부모님을 버려두고 따라온 제자들. (한승창)

그런데 부모들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동의했을지도 모르죠. 나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할게요. 나이팅게일이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부모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 같은 부잣집 귀족의 딸은 그렇게 천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랬거든요. 지금은 간호라는 일이 귀한 일일는지 몰라도 적어도 나이팅게일이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귀족의 딸은 뭐 하는 게 일인데요? 임무가 뭔데?

사교장에 가서... (주연찬)

그렇죠. 사교장에 가서 사람 사귀고 춤추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유일한 임무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그 임무를 팽개치고 간호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딸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영어책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주느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실력으로 가령 일류고등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는 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나서면요. 아버지 팔짝 떨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나이팅게일의 경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얘기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나이팅게일이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부모의 말을 한사코 듣지 않고 반대서 결국은요. 별명이 뭐죠?

백의의 천사.

맞아요? 그렇게 된 게 부모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유명해지는구나 그죠? 애들이 잘못될까 싶어서 한 마디 더 해주어야 돼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유명해지는 거는 틀림없는데 둘 중에 하나다. 백의의 천사처럼 유명해지든가 아니면 감방에 들어가서 유명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무슨 차이냐 하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바가 있어서 부모 말을 안 듣는 경우는 좋은 일로 유명해질 가능성이 더 많고 태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게을러터져서 말 안 듣는 거는 famous(유명)가 아니고 notorious(악명)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깐 원대한 포부도 없을 바에는 차라리 말 잘 듣는 게 나아요.

부모나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듣고 순종하는 경우는요 그렇게 큰 인물이 되기보다는 평범하게 살게 될 겁니다. 큰 인물이 될려면요 우선 부모 말을 잘 따르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 자기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만은 양보 못한다 해서 부모 말이고 선생님 말이고 안 듣는 놈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큰 인물이 될 소지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둡시다. 아이들 대할 때요 선생님 말이라 하면 무조건 잘 듣는 아이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모 말을 잘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래요. 잘 들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 했거든요. 단 한번,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출한 것 빼고는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나 마리아였을까요? 더군다나 마리아 말이에요. 혹시 그 이유를 본문에서 알만한 것이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유독 마리아였을까?

마리아는 사귀들을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둘 줄 아는... (김은옥)

사려 깊은 여인? 22절 한 번 보세요.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왜?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죠. 23절은요? 같은 얘깁니다. ‘주의 율법에 쓴 바’라는 것하고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27절은요 ‘율법의 전례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전에 하던 예대로 하려고... 그런 얘기거든요. 41절요?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니까 아무나 쪽 찍어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냥 빈둥빈둥 놀고 땡땡이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되고... 이런 일은 잘 없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광패출신 목사님 그런 경우는 아십니까? (김은옥)

김익두 목사님이 광패출신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경우죠.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를 받아서 나오는 경우 말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냥 농땡이 치고 게을러터졌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경우가 있는냐는 겁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늘 준비되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더 많은 것으로 말기셨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 어릴 때 무디가 구두수선공이었는데 놀라운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 책을 유심히 보니까 그 설명이 틀렸어요. 단순한 구두수선공 무디가 아니에요. 비록 그가 구두수선 하는 직업을 가졌을망정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보잘 것 없는 구두수선공 무디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무디였더라 말입니다. 그를 구두수선공 무디라고 말하면 안돼요. 비록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었을망정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사로잡혀서 말씀에 열심을 품었던 그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란 얘기죠.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죠.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말 있잖아요. 많이 공부했던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록을 남겼지만은 공부를 별로 안 했던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달랑 베드로전후서밖에 못 남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 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고 마칩시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가 자신들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자꾸 기이하게 여겼더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자기가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도 그 의미를 실제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데 좌우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고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자꾸 확인을 시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나 방법을 다 찾아보세요. 마리아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전부?

독자들이 찾아온 것. (김은옥)

시므온이... (김은옥)

시므온요? 아이고 저 영감 웃긴데이 이러지 않았을까?

안나가 예수를 38절에... (김은옥)

예. 다 늙어가는 할매가 무슨 저런 소리를 다 하노.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김은옥)

그건 너무 거창하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김은옥)

예수님이 그 때는 어릴 때인데요 야가 또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2장이 좀 길기도 하고 얘기도 조금은 산만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에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조차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소도구로 사용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정말 조그마한 일로 시작이 돼서 너무나 놀라운 일로 번져간 것도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위대한 일의 시작일지도 모르니 우리들이 작은 일에 더욱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대로 이루어져 갔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누가복음 3 장

디베료 가이사라 혼히 우리가 쓰는 말로하면 어느 황제인지 아세요?

티베리우스. (김성훈)

어째 그래 쉽게 나오노. 그럼 조금 어려운 것.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문제는 질문 안 해요. 알 수 있다 싶어서 묻는 거예요.

앞에 나온 사람 아니예요? (김은옥)

당연히 그렇죠. 앞에 나왔으니깐 묻는 거죠. 아우구스투스요. 왕좌를 그 사람에게 물려받은 것이거든요. 부자지간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양아들이라 그런대요.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2장과 3장 사이는 실제로는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한 때하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한 때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요? 그 사이에 황제도 바뀌었고...

18년? (김은옥)

대답을 너무 잘한다. 조만간 하산해야겠지만 하산하기 전에 명성을 확실하게 해놓고... 앞 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12살 때 이야기가 있었으니깐 18년 정도 간격이 있다 그죠.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이 사이에 인도에 갔다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온갖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그렇게 귀기울일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아! 저거 이상한 짓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로 알려졌던 사람이니까 최소한도로 그 이전에 목수일을 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인도에 갈 겨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밑에 동생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고 아버지 얘기가 거의 안 나온 걸로 봐서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없이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목수일을 열심히 했다고 보는 게 아마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록할 것도 없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거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은옥)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 이름을 먼저 대죠.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리아의 아들이라 안 그러죠.

아니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니까 마리아의 아들... (김은옥)

설마 그 말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염두에 둔 표현일까? 그렇게까지 생각은 나도 못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얘기된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죽을 소지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되죠. 요셉과 관계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는 일이지 공개된 일은 아마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릴 때 사생아처럼 멸시를 받았다는 의미로 푸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은옥)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한 번 살펴는 보겠지만, 그렇게는 생각 안해 봤어요. 그리고 또 있는 게 요셉의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아버지 얘기가 이후에도 안 나오고.

물론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해석도 가능한데 제가 인제 들은 게 있으니까... (김은옥)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어놓는 게 좋겠고 혹시나 또 그럴만한 근거가 제시되면 그 쪽일 테구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런 이야기 있으면 그쪽도 들어놓고 그러시다. 딱 이거다 답은 아닐 테니까요. 적어도 내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목수일을 열심히 해왔고. 그런데 사생아라고까지는 글썽요. 얘기가 됐겠나..

만약에 그 호칭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을 부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생아일 경우 그렇게 불렀을 수 있잖아요. (김은옥)

있겠죠.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사생아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건 연구해볼 문제 맞네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나 고통을 다 체험하셨다. 그 예를 들면서 어릴 때부터 아마 사생아로서 멸시와 천대를 겪었을 것이라라고 풀이하신 거 같았어요. (김은옥)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다 싶는데 선뜻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조금 두고 봅시다. 우리가 공부할 문제지만 이쯤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설명으로 분봉왕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많이 나온다 그죠. 누가 자세히 기록한다는 점이 이런 면에 있어서 배경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것도 조금은 우리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디베로 가이사 빼구요?

당연히 빼야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디베로 가이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일부 권한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이사하고 비교할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누가 제일 애들 말처럼 높은 사람일까?

총독 아닐까요? (배홍희)

실제론 총독이 제일 높아요. 분봉왕이 뭐예요? 흔히 하는 말로 영주죠. 부분을 빼서 지방의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배경설명을 조금 하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그 헤롯을 가리켜서 헤롯대왕이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헤롯 가계를 읽어보니까 부인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들도 의심해서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연산군처럼 조금 가정적으로 험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자기가 다스리던 영토를 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1절 보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돼있죠.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그 헤롯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인데 그냥 여기 '헤롯이...'라고 돼있거든요. 다른 헤롯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있던 그 지역을 때렸어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넷,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강을 건너 동편지대 쪽을 갈라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 거기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다하고 사마리아하고 이 지역을 때려준 게 누구냐 하면 아켈라오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무능해서 쫓겨나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황제가 총독을 보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영토가 3등분이 됐다가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에만 황제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고 다른 두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그냥 그렇게 지켜나갔어요. 그 다음에 인제 안디바,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이 안디바도 나중에 조카에게 왕 자리를 뺏겨버립니다. 그 빼앗은 조카 이름이 아그립바입니다. 나중에 바울 때에 나오는 아그립바 왕이란 사람이 있어요. 대총 헤롯 가계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은 그렇게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권력이 세다 그럴까요? 그러면 총독인 셈이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있는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돼있죠. 이 기록은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기록이 잘 없더라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루사니아라는 사람의 기록은 잘 안 남아 있나봐요. 거의 없어요. 누가 기록을 여기서 했는데 '아빌레네'라는 지역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다메섹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다메섹 옆의 땅이니까 대총 이스라엘에는 이 세 사람이 나누어서 다스렸고 그 옆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라는 정도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이 대제사장은 원래가 종신직이거든요. 종신직이라 하면 한 사람밖에 없어야 하는데 왜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나 나올까? 가능성을 이렇게 추측을 해보세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 정상이에요.

장인하고 사위 관계 아니에요? (김은옥)

아, 평소 실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데 관계는 장인하고 사위가 맞아요. 역사에 보면 한 나라에 왕이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한 사람은 상왕이고 또 한 사람은 상왕 밑에 있는 왕, 이 왕을 뭐라 하죠? 왕이라고 그러나요? 잘 모르겠다.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관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인이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사위가 또 대제사장이 될순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 것 같아요? 짐작으로? 이런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왕이 있으면 사도들은 사도권이 있듯이 왕도 자기의 자리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한승창)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이 살아 있으면서 다른 제사장을 임명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유대역사에.

아, 대제사장직이 세습제입니까? (김은옥)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이 임명했던 기록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임명을 했어요? (김은옥)

글쎄요.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로마에서 임명을 했어요. 식민지로 돼있으니까. 로마황제의 임명을 얻었거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안나스였겠다 그죠? 그런데 로마에서 이 안나스 대제사장을 무슨 이유였든간에 도중에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 임명한 게 가야바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치느냐 하니까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치고 공식적인 제사장은 가야바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로마에서 임명한 제사장은 가야바고 유대인들이 따르는 제사장은 안나스고. 그럼 누가 더 실권이 있을까요?

안나스.

실제로도 안나스가 영향력을 다 행사해버립니다. 그 당시 시대상황이 어중간해서 제사장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한 형편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인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빈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럴 때에도 왜 광야 혹은 빈들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빈들이란 어떤 곳이죠? 외로운 곳? 특별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게 참 이

상해요. 광야에서 외치면 뭐해? 사람 많은 도시에서 외쳐야 회개할 사람이 하나라도 더 생기지. 왜 '광야에서'란 말이 자꾸 나올까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미심적은 게 맞아요. 제가 이 글을 써놓았는데 언젠가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집사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새로운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글을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 들었죠.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할게요.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빈들? 세례 요한이 왜 빈들에 가서 지냈을까요?

참 성격이 독특한데? (김성훈)

사람이 뭔가 이렇게 평범한 거나 일상적인 것과는 다르게. (김은옥)

튀어 불라고?

혼자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한 의미를... (김은옥)

하나님까지 들먹이지 말고 왜 갔을까? 왜 빈들에 가 있었을까? 빈들에 가 있으면 좋은점이 뭐가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한다. (배홍희)

그럴 수 있죠. 무슨 생각요?

우리가 공부하러 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공부하러 들어간 게 아닐까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김성훈)

저 요즘 빈들에 살아요. 텔레비전도 없죠, 신문도 없죠. 일주일 만에 집에 와보면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고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도 안 본다. 신문도 안 본다. 뭐만 하는데? 그런 걸 빈들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빈들에서는 모든 오락적인 요소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지는, 나름대로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유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보는 거죠. 빈들에서 외치면 뭐해요 사람도 없는데. 사람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조용하게 하나님만을 목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빈들은 어차피 입도 그리 즐거운 곳이 못되거든요. 입도 눈도 귀도 즐겁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어떻게 본다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빈들에서란 말이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이런 곳을 잘 안 갈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이라도 그렇게 지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집 자체가 빈들과 같은 곳이어야 하구요. 지난 주일인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느냐고 얘기가 됐죠. 보통은 텔레비전에서 뭔가를 보려고 트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틀어버리죠. 그래 놓고 하염없이 앉아있죠. 그렇게 되면 책 볼 시간 없죠. 성경 볼 시간도 물론 없어요. 때론 의도적으로 그런 걸 줄여보고 끊어버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금식 한 번씩 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런 것이 빈들에서 사는 삶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서서 본격적인 일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걸 알았지만 결국은 다시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을 물러가 있었습니까. 고향에 있었던 시간, 아라비아쪽 사막지대에 가서 3년을 있었나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빈들 혹은 광야에서 머무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집이 빈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텔레비전 말고도 뭐가 있죠?

가족들.

가족들요?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좋은가봐. 보통 사이 좋은 게 아니면 전혀 방해가 안 되는데. 밥만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면 하루 종일 안 보이고... 요즘 또 심한 경우가 컴퓨터. 불었다 하면 밥을 새워버리죠. 우리교회 어느 집사님도 "신랑 컴퓨터 사주고 난 뒤에 신랑 뺏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기 불어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한대요. '도대체 뭐가 그리 재미있어서 그런고' 해서 없을 때 자기가 불붙고 해봤대요. 밥새도록 하다가 아침에 밥도 못해줬대요. (쪽소) 그 다음에 7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그 앞에 빠뜨린 질문 하나 하구요. 옛날에 임금들이 길을 나서면 앞에 왜 '물렀거라' 이러나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원님 행차하는데 물렀거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씻' 하기도 하고 간다고 그러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무엘할 때 '전대' (김은옥)

맞아요. 전대. 순우리말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요즘 왜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길라잡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길나장'이라고 불렀대요. 길나장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발음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길라잡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데는 '물렀거라'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배홍희)

어디에? 평소실력으로 때울려고?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러죠. 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인용했던 4절 5절 그걸 다 합쳐서 물렸거라가 아니고 뭘로?

예비하라.

예비하라고요? 다 포함하는 말로. 예를들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지고. 다 합치면요? 가장 대표적인 용어? 메시아가 오신다. 뭐해라? 회개하라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모양인데, 그런데 회개하란 말이 없죠? 이상하다 왜 없지.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메워져라, 낮아져라, 굽은 것이 곧아져라. 다 총괄할 수 있는 말, 하나? 내 생각에는 평탄케 하라라는 말이 대표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평탄케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길을 새로 닦아라라는 얘기에요. 메시아가 오기 좋도록 길을 닦으라는 얘인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에서 이 구절이 사용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린 때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곧장 오게 되면 뭐가 방해할 많이 놓는지 아세요? 곧장 오기 어려워요. 그쪽 지형을 알아야 돼요. 산악지대나 사막지대로 돼있기 때문에 바로 못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직선으로 온 게 아니고 어떻게 오죠?

돌러서와요. (김성훈)

어떤 형으로? 그 지형을 가리키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세계사 잘 배웠으면 이런 표현에 익숙할 텐데. 메소포타미아 지형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죽 둘러오는 이 지형을 가리키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김은옥)

그렇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존경스러워라. (배홍희)

존경스러울 것 없어. 맨날 가르치는 건데. (김은옥)

영어 선생인 나는? (쪽소)

그러니까 존경하려면 이쪽을... (김은옥) (쪽소)

바벨론 지역에서 바로 못오구요. 바로 오면 여기 지역이 사막이나 광야라서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강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죽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지형인데 여기 이사야에서의 노래는 뭐냐 하면 이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직통으로 길을 닦아버리라는 거예요. 뭐하게? 내 백성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쉽게 올 수 있게 길을 닦으라. 그 노래인데 이걸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하라라는 구절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제 1차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노래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진짜 의미가 뭐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이 '회개하라'죠.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이러하고 그 의미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 그 말로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뒤에 읽다보면 어려운 용어가 한두 개 있을 것 같은데요. 뜻 모르는 말 없어요?

늑장.

늑장이 뭐예요? 늑탈하여 징수하는 거. 늑탈에 징수니까 강제로 빼앗는 것.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차 이름이 하나 있네요.

무소.

뜻이 뭐죠?

무고하게 소송하는 것. (김은옥)

우리는 이럴 때 무고하게 소송한다고 안 그러죠. 무고하게 거짓말한다? 소송하는 거는 맞아요. 무고에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것도 힘이 있는 놈이 무고죄를 걸거든요. 차 이름 무소의 뜻이 뭔데요?

소 이름 아니예요? 버팔로 같은? (김은옥)

물소. 물소인데 '르'를 탈락시켰죠. 우리나라에 물소가 있었나?

소를 물에 담그면 물소죠 뭐. (김성훈) (한바탕웃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요한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주인과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의 표현을 빌린다면 왕과 길라잡이 이런 의미로 봐도 된다 그죠. 누가가 여기서 표현한 걸 보면, 아까 말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동시에 참고해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말씀. (김성훈)

맞아요. 누가복음에선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죠?

소리. (김미숙)

소리. 그러면 예수님과 요한의 표현은 말씀과 소리의 관계다. 참 재미있어요. 말씀은 뭐고 소리는 뭔데?

말씀은 그 분 자체고 소리는 스피커 소리. (한승창)

어딘가 줌...

말씀은 실제로 있는 거고 소리는 말씀이 뭐가 되어서 전해질려고 나오는 것. (배홍희)

알아들었어요?

아 헛갈린다. 언니 좀 해 볼래요? (배홍희)

더 어려운 거 같다. 이렇게 어렵게 갖다 부쳐놨는데 이걸 쉽게 갖다 부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자꾸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해볼래요? 말씀과 소리.

대통령과 대변인의 관계. (김성훈)

알맹이과 껍데기. (김은옥)

알맹이와 껍데기. 그래도 그게 제일 낫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말씀이고 요한이 열심히 하면 그건 소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데 그걸 보고 '소리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소리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애들이 열심히 진지하게 말하면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한승창)

옳지. (모두 통쾌한 웃음)

말씀과 소리와 관계는 정말 훌륭한 예가 있네요. 어른 말씀하시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거기에서 더 설명이 필요없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된 것이 이리저리 비교하다 보니까 재가 아주 재미가 있어서 해본 소립니다. 아무래도 소리에 의미가 담기고 격이 높아진 것이 말씀이다 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비시켜 놓은 이런 표현들이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쉬운 것.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죠. 이 말이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새끼들아!' 이러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 개새끼들아! 하고 어느 것이 더 심한 욕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 (김은옥)

독사의 자식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개는 사람을 해롭게 하지는 않잖아요. (김은옥)

아! 개를 왜 욕으로 쓰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죠. 전에 언제 했나?

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배홍희)

은혜로운 얘기도 많이 있을텐데 하필 그런 것만 평생가면 곤란한데... 우리가 쓰는 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개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한 동물이니까 별로 욕이 안 되겠다? 아, 천만에 말씀요. 그럼 왜 개를 하필 욕에다가 집어넣어요. 전에 설명을 했다니까 오늘은 그냥 지나갑시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아는 것이니까.

원데요? (김은옥)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한테. 나도 입 더럽히기 싫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험한 욕 같아요?

독사. 저주받은 동물이니까. (이명희)

주로 뱀은 말이죠, 사탄을 의미하는 동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이권 뭐예요? 사탄이라 하니까 이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욕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개 자제 분 이러한 거는 사람끼리 이야기거든요. 사람끼리의 욕이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권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비가 되는 욕이니까 큰 욕이 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한국사람들에게는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되어있네. 이거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욕이 무슨 자식들아 그러노. 그러면 개새끼도 아니고 개자식들아 이렇게 돼야 되네요. 여전히 의미를 정확하게 못 살려낸 번역이네요.

그렇지만 성경에 어떻게 새끼라고 하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배홍희)

(웃으며)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 하고 대조가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죠?

아브라함. (한승창)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

면 입이 벌어진 정도로 멋지고 훌륭한 표현이고 독사의 자식들이 하면 아주 험한 욕입니다. 적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해도 돼요? 이거,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고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해도 돼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별로 욕처럼 안 들린다 그죠. 욕처럼 안 들리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거꾸로 짐작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품이 고상하신 예수님도 이 말을 더러더러 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욕이 나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그 인격이 아주 좀 낮다고 봐야 하는데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격이 못나서 이런 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욕이 단순한 욕이기보다는 욕은 욕인데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지 싶어요. 10절인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선가 이 비슷한 구절하고 내용이 어떤가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하리이까, 형제들아 우짜고 했을 때 장면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도들이 혹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는가. 어디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오순절 때. 사도행전 앞 쪽에. (김은옥)

예. 앞 쪽에 있는 것 맞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찌할꼬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슴이 찢려서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고 했죠. 또 어디 있어요?

산상수훈에.

제일 쉬운 거 있는데.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그날 찬송하다가 옥문이 터지고 도망 안 가서 간수 만나 전도한 얘기 있잖아요. 그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김은옥)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얘기 같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전부 사실은 회개하라는 얘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 얘기는 상당히 길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 얘기도 따지고 보면 회개하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게 아니라 뭘로 회개하란 뜻이에요? 행동 자체를 가지고 회개하란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도요 가만히 들여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제일 문제가 될 만한 게 어느 말일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거. 부지런히 나눠주라. 나눠주라 그린다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까? 아직은 안 당해봐서 잘 모르지 싶지만. 내가 하나만 소개해볼게요. 14절 제일 끝에 있는 거. 뭐죠? 뭘 족한 줄 알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월급. 봉급. 월급이나 봉급을 족한 줄로 알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봉급이 많으냐고 물어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봉급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봉급이 이만하면 됐다. 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두 사람은 내가 본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주 특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만화 그려놓은 거 보니까 봉급 인상에 관한 얘기가 아주 비중이 높아요. 사람들이 이 회사 저 회사 기웃거리는 이유가 뭡데요? 다 봉급 때문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봉급 인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회사 사장님들이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배홍희)

그럼 무슨 얘기지?

받은 것 외에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뒤로 더 받는 것 있잖아요. 뒷돈이라 그러나.

(배홍희)

뒷돈 받아봤어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지요. (배홍희)

그런데 어떻게 알아? 맞아요. 모처럼 아주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자꾸 하다보면... 여기 얘기가 봉급 인상을 요구하지 말라에서의, 봉급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의 요점이 봉급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은 걸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란 뜻이죠. 그러니까 뒷돈 받을 궁리하지 말고 뇌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죠. 봉급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이 구절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정말 은혜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게 소위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초점을 안 두고 자기 나름대로 '야 이거 좋은 구절이다'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써먹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갖다 붙이

면 아주 나쁜 놈이 되죠. 성경구절에 그런 거 많아요.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보, 여보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 하고 간섭하면 이거 아주 죄악입니다. ‘아내들아’ 그랬으면 그 구절은 아내만 아는 거고 신앙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은 항상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려고 애만 쓰면 돼요. 안 되는 집안은 거꾸로 가는 거라. 남편이 외워야 될 걸 부인이 외우고 부인이 외워야 될 걸 남편이 외우면 그 집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미 그 말씀은 성경말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사장님이 멋진 구절이다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한 그건 독사의 자식입니다.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의 그 핵심에 늘 접근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너무 애용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데도 이렇게 보다가 ‘어, 그게 아닌데요’라는 얘기는 필요하다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퍼놓고 영똥한 소리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요번에 제가 비싼 CD를 하나 샀는데 언젠가 사야 되겠다고 버르던 걸 하나 샀거든요. 비싼 거라 그런지 책을 하나 끼워 주더라고요. 끼워주는 책이 뭐 별볼일 있겠어요? 그래도 공짜니까 받아서 첫장을 펴니까 설교집이라. 설교집인데 첫설교를 읽어본 다음에 아! 이걸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읽어보고 소감을 말해 보라고 했더니 자꾸 피식피식 웃는 거 있죠. 내가 가장 나쁘다고 말하는 전형적인 설교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숙독을 하겠다. 숙독을 해서 이런 설교가 있는데 이걸 요약해서 이 설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라라는 교재로 쓸 거다. 표본 자료로 쓸려고.

얘기하나 할까요. 베세메스로 가는 황소 얘기 있잖아요. 그걸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첫째 황소는 부지런하다. 둘째 황소의 희생정신을 배우자. 셋째 황소는 충성스런 짐승이다. 그 이야기하고 성경의 그 본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걸 설교라고... 본문이 뭐라고 하느냐 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넘어갑시다.

가끔 회사나 직장에서 보면요 교회 다닌다 하는데 “제발 너는 예수 믿는다거나 교회 다닌다는 티를 좀 안 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죠? 세례 요한이 볼 때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쪽정이

그것도 되겠지만은 또다른 답이 있는데요. 제발 교회 다닌다는 소리하지 마. 아니면 행동을 바꾸든지. 그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김은옥)

그 말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러지 말고’에 해당되겠네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 (김성훈)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거는 좀 나아. 그거는 니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짓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잘해봐. 이정도 의미가 되겠는데 제발 니 교회 다닌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란 얘기죠. 살다보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제발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마라. 이런 소리 나오면 안돼요. 사실은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좀 능력 있다 싶은 사람이 보이면은요 대뜸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아,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은 절대로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이렇게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요 예수님하고 나하교의 차이를 요한이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신들미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김현수)

그 말은 예수님은 뭐고 나는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신들미를 푸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종

그렇죠 종이죠. 종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종.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에다가 자기를 비유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뉘대? 주인이죠. 예수님은 귀한 주인이고 나는 종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보다 못하다.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또 있나 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배홍희)

예. 맞아요. 사실은 물세례라는 거요. 물로 세례 안 받으면 천당 못 가나요? 전에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뭐하지만은 적어도 성령으로 주어진 세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물

로 주는 세례가 유효한 것이지 성령세례가 없다면 물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대비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반만 가르쳐 드릴게요. 짝지어 보세요.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다. 나는요?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어? 여기 알곡하고 쭉정이는 예수님과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퀴즈 할 때 있으면 써 먹어야겠다.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다. 나는요?

키. (김성훈)

그렇죠.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고 나는 추수하는 도구, 키라고 있잖아요 17절에. 그렇게 비교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야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는 거죠. 역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요 요한에게도 그만큼 능력이나 뛰어난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정말 칭찬 받아야 할 대목이 뭘까요? 사실은 우리도 다 이러해야 하지만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칭찬한다면 뭐라고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김성훈)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김은옥)

맞아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 자기에게로 오는 시선들을 전부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란 뜻에서 자꾸 그쪽으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한승창)

돼요. 아이들은 당연히 선생님을 좋아해야죠.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둘 다 좋아야 되는 거죠. (배홍희)

내가 바로 물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함정을 팠더니 승창이 걸렸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당연히 좋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할 만큼 온갖 짓을 다 해야 돼요. 품 잡고 있으면 안돼. 아이들 눈에 우리 선생님 참 귀여워 소리가 날만큼 귀여운 짓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선 뭐해야 돼요? 재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끌어당겨야 하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시선을 모아모아 이것을 전부 예수님에게로 돌려버려야 하는 거죠. 돌려놓을 때는 나는 빠져나가야 합니다. 제일 나쁜 선생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생님. 이걸 아주 나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만 좋아해서 모아놓고 거기서 끝나는 선생님. 아주 나쁜 선생님이죠. 아주 나쁘죠. 제대로 갈려면요 아이들의 시선을 나에게로 모아서 이걸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이런 일을 교사가 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 모아서 이 시선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려버려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애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제가 총각시절에 하숙하던 촌에 세수를 하다보니깐요 앞에 새끼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길더라구요. 따라가니까 담 위로 올라갔는데 그 위에 보름달 같은 호박이 하나 달렸어요. 그게 호박줄기에요. 이상하다 호박이 저렇게 다 익었는데 왜 안 자르고 그냥 놔두는가. 시골에서 호박을 기를 때요 이게 호박줄기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새끼줄같이 보이는데 그냥 놔두더라구요. 그래도 한때는 이게 시퍼렇고 굵은 줄기가 되어서 모든 양분을 저리로 보내는 통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말라비틀어져서 새끼줄같이 있는데... 저는 호박 잘 익은 걸 보면요 감동적이다 생각해요. 호박을 누가 자꾸 나쁘게... 그것 참 보기 좋은 겁니다. 저 호박이 열릴 동안에 이 줄기가 얼마만한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줘요, 줄기를. 호박 저 것만 보면 아, 이려고 있잖아요. 그때 제 머리 속에 스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선생은 이 줄기가 돼야 한다.' 나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이들 시선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바깥 마른 줄기처럼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게 선생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착한 선생이죠?

놀랬다. (배홍희)

세수하다가 앞에 있는 그걸 보고. 그게 지금도 안 잊혀지고요 만약에 선생님들 교육을 해야 된다 뭐 한다 할 때 그것 아니어도 어느 때가 되도 그 얘기는 꼭 합니다. 선생은 그래야 한다. 그래 놓고 세례 요한을 보면요 그 역할에 정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라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돼야 합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면요 뭐가 안 되는데? 나를 싫어하는데 나를 거쳐서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가겠어요. 선생님 꼬라지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박장대소)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선생님 최고' 하고 따라가는 게 맞구요 그렇게 아이들이 흠뻑 빠져서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로 보내드려야 하는 거죠. 반면에 교회 애들 전부를 자기 풀마니로 만들면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참 잘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명은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재미로 읽거나 아니면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을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가 될 거냐 결단을 하란 얘깁니다.

뭐가 되기를 결단하라고 외치고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17절. 알곡이 될 거냐 쪽정이가 될 거냐 결단하라는 이게 성경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서 끝 이런 게 아닙니다. 알곡이 될 거냐 쪽정이가 될 거냐? 어떻게 알곡이 되죠? 알곡이 되는 방법은 그 위에 얘기했잖아요. 두 벌 갖고 있으면 한 벌 나누고요.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므로 해서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벌 갖고 있으면 한 벌은 나누어줘라. 그런데 있는 것 쥐버리면 나는 뭐하노. 이렇게 될 소지가 있죠. 주변상황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하고 다 쥐버려라 그런 뜻은 아니예요.

이런 질문을 한 번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앞에 길을 닦는 게 원래 사명인데 괜히 18, 19절. 왕의 잘못을 비난하다가 일찍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것 아니예요?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요?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서. 이렇게 한 번 물어볼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배홍희)

그래야 하는데 엉뚱한 사회 개혁이나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안돼죠?

아니죠. 해야 하죠. 그것도 교회가 할 일인데요. (배홍희)

할 일이에요? 한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교회 인식이 참 안 좋아요. 성당갈래 교회갈래 절에 갈래 물으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 일변이 성당으로 알았는데 지난주엔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1번이 불교래요. 2번이 가톨릭이고 3번이 교회래요. 20년 전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적어도 성당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하고 의견을 내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회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 쪽으로 가보세요. 세례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닦아야 될 사람인데 괜히 왕의 잘못을 비난하고 지적하다가 죽었던 말이에요. 임무를 제대로 감당한 거냐 못한 거냐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그 영향력이 정말 큼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니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누가 니한테 이런 권세를 줬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거꾸로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이 준 거냐 아니냐?"고 물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했다가는 백성들에게 맞아 죽겠고 하늘로부터 온 거다고 하려고 하니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면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었냐 할 거고 그 말 속에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대답 못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못 하겠다 하고 끝내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감히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거다라는 소리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사후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말한 사람이죠.

또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어차피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뭔대요?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죽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죽는 게 맞고 맞아요. 세례 요한의 삶에 있어서 교회든 사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든 할말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나이 30은요. 이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서른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어디서 똥판지같은 질문만 자꾸 하는지 내가 생각해도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나이 같아요. (배홍희)

요새 같으면 서른이 인제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맞죠. 왜 그러냐 하니깐 대학 마치고 대학원 갔다오고 군대 갔다오면 서른이 넘을려고 하는데요, 금방 서른이거든요. 이때 서른은요? 요새 서른에 장가가면 그렇게 늦다고 안 그래요. 조선시대에 서른에 장가가면 그때 '에헴' 할 때예요. 이때 유대사회에서는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맘때가 돼서 시작하죠. 모세는 몇 살 때 시작했죠? 팔십에 시작했죠. 늦었어요? 누가 날보고 물어요. "아이고 지금 가서 우째하겠노!" 하고 나보다 계산 더 열심히 해대고 앉아있어요. 몇 년 하고 목

사가 몇 살에 되고 그러면 얼마하고... 내보다 계산 더 잘하더라구요.

목사님되려면 몇 년 걸려요? (배홍희)

몰라요. 50 넘어야 돼요.

전도사 몇 년, 강도사 몇 년, 부목사 몇 년 정해져 있나요? (배홍희)

학점 못 따면 1년 또 추가로 밀리고요. 그런 거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그걸 부지런히 계산하고 '아이고 그래서 우짜겠노'라고 하는데 한방 해줄려다가 말았어요. 모세는 팔십에 시작했는데. 나이가 뭐 그렇게 중한 거는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삼십에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느정도 든 것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그럴 일은 없지만은 가끔 제가 볼 때 못마땅한 게 있고 있어요. 가령 젊은 전도사요. 교회전도사로 나가면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문제가 좀 있죠. 젊은 전도사와 나이 많은 장로. 비록 역할은 다르지만 그 나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든 나이 많은 것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시내 어느 학교 얘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나이든 선생님하고 젊은 사람하고 싸우면요 나이든 사람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젊은 사람을 꾸중하면 이게 진짜 막말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보다 너희 애비같고..." 하네요. "나는 니같은 애비 안 키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이 많은 것도 자랑이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교 사회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두신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 일은 없겠지만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나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삼십에 시작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라고 친다면 하나님이 나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팔십에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모세가 팔십이 될 때까지 배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들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별 해담이 없겠네요. 젊은 전도사들한테 이 얘기 꼭 할게요. "너가 뭐 안다고 입마, 가서 젊은 나이에 큰소리 치고, 가서 나이 많은 어른들 섬기는 것부터 먼저 배워!" 혹시 어디 가서 얘기 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이거 어지간한 인내심 없으면 택도 없는 거. 이거 읽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족보하고 이걸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한 번 보세요. 지금 비교하면 조금 어렵겠다. 마태복음은 읽어보면 족보에 아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누가복음에 족보를 읽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3절부터 가면서 요셉 빼고 아는 사람 빨리 찾아보세요.

맛닷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김성훈)

나와요? 안 나올텐데요. 나는 전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찾아보세요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도 나오네요 29절에. 그 예수하고 우리가 아는 예수하고 다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 부르지만.

나훔.

나훔? 선지자 나훔? 아는 사람 맞아요?

나단 선지자.

우리가 아는 그 나단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동명이인인 사람 부르지 말라니까.

27절에 스룹바벨. (김은옥)

스룹바벨요? 야닐걸요. 왕 이름 스룹바벨.

38절에 예노스. (김성훈)

너무 멀리 갔어요.

므두셀라 (김성훈)

너무 멀리 갔다니까.

다윗. (김은옥)

다윗. 좋아요. 몇 절에 있죠?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의 아들이 누가 되었나 보세요. 나단이라고 되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되었죠. 왜? 마태복음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윗부분은 같아요. 어디서부터 갈라지는고 하니까 다윗 때 와서 마태복음 쪽보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내려가구요. 솔로몬으로 내려가는데 그 뒤 이름들을 보면은 아는 사람이 많아요. 왜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유대인의 왕... (김은옥)

예. 왕의 족보이기 때문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들이 계속 쪽 연결되어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이름들은 아는 이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 쪽보로 내려갔는고 하니깐 다윗에게서 나단으로 시작해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 가끔 가다가 예수도 나오고 스룹바벨도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스룹바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동명이인일 뿐이죠. 그래서 쪽보가 다르게 돼있는 겁니다. 이 쪽보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중에 지지를 받는다 그럴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 설명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쪽보는 마리아의 쪽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가 쪽보를 따라서 내려온 것이고 마태복음의 쪽보는 요셉의 쪽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거든요. 마리아의 아들이예요? 요셉의 아들이예요?

하나님의 아들. (김성훈)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타당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면 저런 면을 소개하느라고 4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두 쪽보가 소개된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육적인 조상을 더듬어 올라가는 마리아의 쪽보와 법적인 아버지의 쪽보가 필요한 이유가 있겠지요. 또 어떤 의미가 더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쪽보를 더듬어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이 쪽보를 더듬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나요?

하나님.

하나님까지 올라갔죠. 무엇을 염두해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김현수)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까지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이까지 연결해도 돼나요? 아담에서 스톱시켜야지 왜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려버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아요? 다윈이 만약에 이 쪽보를 기록을 했으면 열심히 올라가면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원숭이.

원숭이가 나와요? 원숭이는 중간쯤에 안 나오겠나. 다윗이 있는 자리쯤에 원숭이가 나올 테고 거기서 또 열심히 거슬러 올라가면?

단세포. (김은옥)

단세포?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쯤합니다. 아메바거나 아니면 또 그 위에 단백질로 끈적끈적한 상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배홍희)

다윈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윈은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 했으니까 이 쪽보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원숭이가 나올 테고요. 거기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메바 원생동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것하고 이 쪽보하고 비교하면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훨씬 인간의 존엄성을... (김은옥)

이렇게 해놓으면요 히틀러나 스탈린이 못 나와요. 왜 못 나와? 만약에 진화론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히틀러나 스탈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김은옥)

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나 말이지요. 그런데 쪽보를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원숭이도 나오고 아메바도 나오죠. 그러면 히틀러도 나오고 스탈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화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종족이고 저거는 멸된 종족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이 없었으면 히틀러나 스탈린이 안 나왔을지 모르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가면요 내가 잘 살고 저 사람이 못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더라. 너 일 안 했지 먹지마. 성경적이죠?

아닌데요. (김은옥)

아니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너 일 안 했지? 먹지마!” 이거 성경적 아니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한승창)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한 경우도 있잖아요. (김은옥)

아이고 참네. 내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 안 하고 땡땡이 쳐서 가난한 경우 말이야.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배홍희)

저렇게 대답을 해야지. (박장대소) 아까 그것하고 똑같잖아.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걸 보고 사장이 은혜를 받았다.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너 일하기 싫고 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먹지마. 그 일하기 싫은 사람을 먹지도 말라 하는 거는 일 열심히 하는 내게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누

구한테 하는 얘기? 그 말을 듣고 반성해서 일 열심히 하란 뜻이지. 나는 일 열심히 하니깐 일 안 하는 녀석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주지마. 이게 아니란 말이예요. 성경 적용 잘못하면 참 위험합니다. 이런 거는 성경뿐만 아니예요. 굉장히 많아요. 적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굶는 형제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게으른 자에게 책망하는 한편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있는데 형제가 둘이 싸우면요 니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싸우면 둘 다 야단맞게 돼있어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동생 뭐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도와준다고 같이 거들면 맞아죽을려구요. 성경의 원리는 내가 불쌍한 동생이고 게을러빠진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는 그게 성경적 원리 맞아요. 다윈의 원리에 의하면 강한 내가 약한 저놈 꺼 빼앗아 가진 게 당연한 겁니다. 다윈의 이론 같으면 힘 있는 놈이 약한 놈 붙들어 '야 일로 와바' 하고 주머니 터는 거요. 벌할 수 없어요. 왜? 유명한 말 있죠. 자연도태, 약육강식, 적자생존. 맞지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아주 힘센 놈은 살아남고 자연의 이치니까 내놔. 쥐야지요.

그러니까 다윈의 이론대로 따라가면 사람이 사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이야기를 태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다행스러운 거는 듣고 의미도 모른 채 달달 외우고 시험만 치고 끝내주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걸 만약에 생활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힘세고 강한 놈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약한 놈 아무리 쥐어 패고 뺏어도요. "야. 약육강식이라 그랬다. 변할 수 없는 자연의 원칙이야!" 하면 누가 어쩔 거예요 그거. 무서운 사회라는 거죠. 누가는요 쪽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생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요까지 합시다. 질문 있어요?

있잖아요. 엉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이, 읽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모세한테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잔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만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부모에게 아빠한테 얘기를 했을 뿐이고 태어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얘기해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빈들에서 하나님이... 아,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배홍희)

바로 저런 거예요. 열심히 묻다가묻다가 저렇게 발견하고 이러죠.

질문 해결됐습니다.

됐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혹시 나중에 고민하고 갈등거리 많이 있더라도요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를 자꾸 하다보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까 심한 고민은 혼자 넣어두지 말고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절대 풍탄지 같은 질문 아니니까 질문 자꾸 하는 걸 보이세요. 나중에 좋은 결과가 더 많아질 거예요. 또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 이렇게 물으면 참 어려운 답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최소한 열두 살 이전에 알았다는 얘기네요. (김은옥)

그렇죠.

아마 마리아가 계속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배홍희)

마리아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보다 더 몰랐어요.

아 맞다. 그런데 임신하기 전에 얘기해줬잖아요. 천사가. (배홍희)

이론적으로는 듣고는 끄덕끄덕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새겼더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배홍희)

그걸 다 알고 그 말의 의미가 뒤에 보면요 기이히 여겼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것 참 희한하네.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고 알아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령 어저께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온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참 웃겨요. 자기는 미국 프로 볼링선수래요. 이런 양반이 신대원에 들어왔어요.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깐 자기는 특기가 뭐냐. 교회 와서 꺾렁꺾렁한 아이들 더러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땡땡이 치는, 교회에서 갈도/감당하지도/ 못하는 애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종종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애들 전문이라. 교회에서는 암전한 척 하는데 학교 가서 개판치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가서 좌우간 시범을 한 번 먹이는 거예요. 걸어서 도저히 집에 갈 수 없는 곳에 놓아두고 밤중에 공동묘지에 끌고 다니면서 "니 그래 평소에 임마 큰소리 치고 있었제. 한 번 해보자. 이 새끼 니 이것도 못하는 주제에 뭐?"라고 밤새 애들을 죽이는 거라. 그래서 지 스스로 별 것 아니라는 걸 공동묘지로 끌고 다니고 산에 올려놔 버리고 못하겠다고 버티면 집에 가라 하고 내 버려두고 와버리고... 애를 완전히 삶아버리는데... 그래 놓고 "너 교회 왜 다니는데?" "예수 믿으니깐 다

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뭔데?” 이렇게 질문 몇 번 하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예” 그러죠. “예수 믿는 게 뭔데?” 해보세요. 막혀버리잖아. “믿는다면서?” “예. 믿죠.” “뭘 믿어?” “모르죠” 우리가 아는 많은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믿는다는데 들어가 보면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방법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믿는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설픈 놈들 붙들어 앉혀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구워삶아서 애 새로 만들어내고. 전에 우리 고등부 모양으로 형무소에 있다가 붙잡혀 나와 썰렁썰렁한 놈들 있으면 자기 전문이래요. 좌우간 덩치도 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뭐 믿느냐, 믿는다는 게 뭐냐 들어가 보면 막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거 없이 두리몽실해서 용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가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개념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자꾸 기이히 여겼더라는 게 따라 붙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배홍희)

글쎄요.

어떻게 예수님이 알아갔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구체적인 과정 자체는요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은요 성경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을 깨달아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행동하시는 하나하나가요 전부 구약 성경에 어느 구절하고 연결지어서 움직여 가셨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귀 탄 사건. 이런 것도 전부 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어왔었다라고 돼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경로냐 하면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나 신분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을 것도 같고 또 거기에 상당 부분이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성경말씀대로 이루어 갔다는 것도 맞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셨을 것이고 특별한 지혜도 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성경말씀 참 잘 알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선생님 뱀 얘긴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뱀처럼 지혜로와라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뱀의 지혜로움하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김성훈)

전에 언제 얘기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거라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하면 쉬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럴 수도 있겠고 뱀처럼 지혜로와라 하면 지혜로울 수 있겠는데 두 개를 다 하라는 거는 난 두 개 다 할 자신이 없어요. 왜? 싸울 일이 있으면 난 미리 저버리고 안 싸워요. 왜? 싸워서 이길만한 깡다구도 없을뿐더러 그것도 싫으니깐 내가 돈을 물어주고 쉽게 끝낼 수 있다면 바보같이 많이 물어줘버리고 끝내버리지 따지고 싸울 정도로 지혜롭지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밖에 못 따르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해냈을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위해서라도 지혜로워야 할 때가 많아요. 노력합시다. 다만 이때 뱀이 사용된 것은 사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 즉 영리했다는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의 뱀이 아니라 형벌받기 전의 뱀 말입니다. 마칠까요?

## 누가복음 4 장

자, 시작합시다. 누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역이죠. 여기에도 '성령에 이끌리어' 혹은 '성령의 권능으로'라는 표현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하구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한 게 어디서부터라고 보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40일 기도를 예수님의 사역에 넣을까 뺄까 이걸 묻는 겁니다.

넣어야죠. (임인규)

우리 예배는 보통 언제 시작하죠?

찬양하면서 시작하죠. (임인규)

찬양하면서 시작해요? 보통 준비찬송이라 그러잖아.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준비' 자를 빼고, 그 준비라는 게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보든지 아니면 마음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예배시작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인규)

공부는 많이 빠져도 평소 실력이 있어서 대답은 참 잘한다. 엄밀히 말하면요 준비찬송이라는 거 전혀 말이 맞지 않아요. 참 나쁜 말입니다. 준비기도라는 말도 있나요? 기도로 준비합시다라는 이런 소리 더러 하고 하잖아요. 기도와 찬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용으로 찬송을 부른다? 이 말은 좀 없어져야 하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느냐?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기도를 하러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성경 어디서부터라고 말하는 게 좋으냐, 3장 23절이 좋을 거 같아요. 거기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하고 이미 삼십 세쯤 됐더라는 얘기를 해놓고 잠시 족보 얘기하고 바로 들어와서 광야에서 기도생활하신 얘기로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신 그것이 사역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찬양도 이래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니고 이미 그 자체가 예배여야 하고 좀더 나아가면 우리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삶 전체가 사실은 예배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견해를 행겨두는 게 좋겠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사탄도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뭐야?

자존심.

자존심을 제일 먼저 건드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전체적으로 그건 다 깔려 있다 그죠?

식욕.

먹는 게 그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에 해당되나요?

예.

사실은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어찌면 여기 있는 세 가지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온 대로 명예욕, 식욕,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아까 뭐라고 했죠? 자존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이 아마 가장 약한 대목일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거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에서. (임인규)

에서요? 나는 장발장하려고 했더니. 이런 어떤 명예욕, 자존심. 사실은 먹는 문제도요, 먹는 문제 갖고 너무 초연할 필요 없고 좀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먹는 거 가지고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지금도 굶어죽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현실 앞에서는요 먹는 문제에 우리는 좀더 심각해질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좋긴 하겠지만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기억을 하고 또 먹는 거 때문에 너무 추접스런 사람이 되진 말아야겠고 좌우간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만은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만요 세 번째 시험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유혹거리가 되나 싶어요.

성전 꼭대기가 어느 정도로 높을런지 저도 못찾아 봤는데 옛날 고대 건물들이 웅장하게 짓느라고 꽤나 높았거든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게 유혹거리가 될까요? 요새 만약에 이 비슷한 현상이 있으면 유명해지겠다 싶은 현상이 어떤 게 있을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무사히 뛰어내렸다. 이것하고 비슷한 현상을 요즘 하나 해가지고 내가 유명하게 한 번

뛰어보려면 어떤 짓을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 꼭대기 종탑에서 우선 뛰어내리겠다 하면 사람이 몰릴까 안 몰릴까? 주택가라서 좀 효력이 떨어진다고 그죠? 저 앞에 미도성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내 될 거다” 그러면요? 어쨌든 뛰어내렸는데 무사하게 뛰어내렸으면요?

그 참 신기하네. (임인규)

신기하다 정도로 끝나버리겠어요?

매스컴 타겠죠. (주연찬)

매스컴 타죠.

12층에서 애 떨어졌는데 살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것은 매스컴 타는 거라.

얼마 못 가잖아. (임인규)

이 동네에서는 계속 유명하잖아. (김현석)

어쨌든 이런 것이 전부 어떻게 보면 우습다 싶지마는 나름대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사탄이 집적거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일은 메시아의 사역에서 이게 필수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라는 자식이 그냥 한 번 껌기로 해본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냄새가 사알살 난다 그죠. 냄새 안 나게 질문을 잘 해야 될 텐데. 묻는 품을 보니까 아 저건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필수적인 코스겠다 싶는데 그러면 그게 왜 예수님께서 거쳐야 하는 과정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정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말을 바꾸면 누구 때문에 오셨죠? 한 사람만 지적한다면요?

나. (임인규)

나 때문에. 지 혼자 살려고?

한 사람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해답이 되는 한 사람을 찍어야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누구 때문에? 딱 한 사람을 찍어서 해답이 되도록. ‘나’ 그러면 지 혼자 사니까 안 되잖아. 안 되면 둘 찍든지.

죄인. (김은옥)

죄인이 한 사람밖에 안돼요? 너무 좋아잖나. 나, 너, 우리, 죄인 다 포함할 수 있는 한 사람?

인류. (웃으며 김은옥)

아담.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그것하고 이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있겠다고 짐작을 해보세요. 냄새가 살살 나잖아. 예수님의 임무가 뭔데요? 아담이 버려놓은 걸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의 임무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시험 받아서 어떻게 되버렸어요? 시험에 불합격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재시치러 온 겁니다. 요새 늘그막에 공부를 시작해 놓으니 재시험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재시가 눈에 잘 보여요. 아담이 쳐서 불합격해 버린 그 시험을 예수님은 오셔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험이 의미를 더욱 가지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해 버린 그 시험하고 예수님이 합격해 버린 이 시험하고 연관성을 지으면 참 재미가 있어요. 한 번 봅시다. 하와가 처음에 시험에 빠질 때 쳐다보니까 느낌이 몇 가지 왔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김은옥)

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때 먹음직스럽다는 게 예수님의 시험 어느 것하고 연결되겠어요?

첫 번째 시험. (주연찬)

첫 문제하고 똑같아지죠. 두 번째 문제는?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하더라?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보암직하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에 관한 시험이다 그죠? 사탄이 뭘 보여주었죠?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험하고 그렇게 연결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것은 틀림없이 그렇겠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것하고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서 그걸 만천하에 한 번 나타내 보아라 그것하고도 관련시켜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아담이 실패해 버린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재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면 이 예수님이 시험을 꼭 받으셔야 할 이유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시험을 다 이기셨다? 이걸 제 질문이 아니고 옛날부터 유명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해서 시험을 이겼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죠. 사탄이 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신명기죠. 사탄과 예수님께서 주고받은 대화에 보면요 성경구절이 다섯 군데나 나와요. 이 중에서 좀 특이하게 인용된 것이 있는데 찾아보세요. 우선 4절에 하나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하기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인용 하합니다. 두 번째 인용은요 8절에 보면 또 '기록하기를' 인용해 놓은 말씀 있죠. 10절에도 '기록하였으되'가 있고 11절에 '또한'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또한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죠.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랬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용한 성경말씀 중에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게 발견이 안 되고 읽으면서 이런 걸 안 보고 지나갔다는 거는요.

12절에 다른 것은 '기록하였으되', '또한' 이런 것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한 듯한 느낌이 좀... '말씀하기를...' (김현석)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는 것하고 '기록하였으되' 하고는 같은 뜻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네 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구요 두 개는 사탄이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구절 갖고 자꾸 대답을 하니깐 사탄도 성경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이상 안 해요? 사탄이 자기가 예수님을 유혹할 만한 성경구절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여기에다 표현이... (주연찬)

있단 말이죠?

있을 리가 없는데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구절만 이어가지고 지어낸 것. (김은옥)

그렇죠. 당연히 사탄을 이롭게 하는 성경말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인용한다는 것은 본래 의도대로는 안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넘어뜨리게 할 만한 성경구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져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누군가가 '야, 임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갖다 대면 그 구절은 분명히 성경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도 그렇죠. 성경구절을 인용해서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같은 표현으로 된 게 없나 하고 성경구절을 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미. 뭔데? 자기 말이죠. 자기 말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전에 제가 예를 한 번 들었는데 통일교에서 옛날 신문광고 냈다는 거. '누가 예수를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라고 사도행전 할 때 제가 그 얘기 한 번 했죠. 그 구절만 파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것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앞뒤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성경을 앞뒤로 좀 잘라내서 인용하는 경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예는 적용을 잘못하는 예가 더 무서운 겁니다. 성경말씀 적용을 잘못해 버리는 거예요. 적용 잘못된 예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적용.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적용을 잘못하면 그 좋은 말씀도 독이 되어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예? 바로 튀어나와야 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 적용을 누가 쓰면 잘못된 거다? 남편이 그 구절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걸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남편들의 머릿속에는 그 구절이 없어야 합니다. 뭐만 있어야 하는데?

남편들아... (임인규)

그 다음?

아내 사랑하기를... (김은옥)

이것 봐. 이걸 여자들이 외우면 안 된다니까. 여자들은 그런 구절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야 합니다.

아멘. (임인규)

잘 한다. 이런 게 거꾸로 되어서요. 부인들은 만날 머릿속에 뭘 외우느냐 하면 '남편들아'라는 그 구절만 외우고 그 다음 남편들은 '아내들아' 이 구절만 외우고 있는 집안은 이걸 이미 성경을 떠나 있는 겁니다. 적용이 잘못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네 오른팔이 범죄거든 찍어버리라' 그 말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반성하는데 써야 되는 문제지 도끼 들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범죄하는 놈 없나 하고 돌아다니면요 보통 곤란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장으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들아 또는 자녀들아라는 명령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임인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막나가는데 봐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임인규)

막나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야, 임마 이리 와 봐라. 자녀들아’라는 이 성경구절 보지도 안 하나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아라는 이 구절은 가르치면 안 되겠네 그죠?

가르쳐야지요. (김은옥)

언제 가르쳐?

가르치라 했잖아요. 말씀요. (김은옥)

그것 빼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고 니가 자녀라는 이런 대립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것들은 가르쳐지고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어느 때 되느냐 하면 나는 남편이고 당신은 부인이잖아라는 대립이 됐을 때 이 구절이 나오면 이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주장을 내세우려는 거죠. 그런 대립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겠단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결혼으로 들어가면 가장 바람직하구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혼해서 살면서 보니까 아! 이렇더라.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봐가고 익혀나가고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아! 이런 성경구절이 있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안 살겠단다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임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때는 이미 적용의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안 살라카는데 우짜까요?’ 그건 도리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내나 그렇게 살지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방법 없어요. 성경구절 갖다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돌이켜서 그렇게 살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공부 잘하는데 집어넣어서 해가/공부하게 해서/ 오든지.

자, 너무 옆으로 갔네. 적용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합시다. 성경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충실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성경구절을 적당히 잘 땡겨와 가지고 할 수 없을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저번 주에 세례 요한 공부할 때도 그것 하나 나왔네요. **받는 요를 죽한 줄 알라**라는 구절 있었죠? 봉급을 죽한 줄로 알라. 그 구절을 보고 어느 사장이야 야! 이걸 멋진 구절이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봐라. 임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너 받는 봉급을 죽한 줄로 알라’고 돼 있잖아. 사장이 그런 소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대구요?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성경구절을 땡겨와서 말합니다.

특별히 애들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쳐야 할 입장에 서게 되면요 정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어떻게 가르치느냐로 고민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말씀에 빚대어서, 성경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걸 살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시다. ‘들을 보고 떡명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예요? 쉬운 주문이예요? 예수님에게, 더군다나 배도 고프는데.

쉽죠. (임인규)

쉽죠. 그것 한 번쯤 하면 안 되나요?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생각해봅시다. 그냥 한 번쯤 기적을 일으키면 안 되나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적이나 표적이 주는 의미가 한 번쯤 들을 떡명어로 만드는 이 상황하고는 전혀 거리가 동떨어진 상황인가요? (김은옥)

쓸데없이 합부로 이적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일은 없대?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김은옥)

물론 아니죠.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제일 좋을지 이리저리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것도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때에 들을 가지고 떡명이를 못 만드시는 이유가 뭐대?

사탄이 시킨 대로 하면 안 된다. (임인규)

왜?

사탄이니까. (임인규) (모두 웃음)

말은 맞는데

사탄이 하는 짓은 좋은 의도는 아니니까. (임인규)

무슨 의도이건 간에 나쁜 짓일 테니까? 맞고 맞아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사탄이 짐적거리다고 거기에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말이 틀린 게 없고 그만한 능력 있고 현재 그럴 필요가 있다 치더라도 내가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뭐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의 조그만 애가 짐적거리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이것도 문제죠. 항상 자신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야 이런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얘깁니다.

우리 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면 교회가 조그만 할 때는 괜찮다가 교인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면 본래의 사명을 약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아니면 사회적인 힘을 발휘해 보려는 욕심이 생겨납니다. 만민중앙교회 모양으로 그죠? 교회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 해서 때려 부숩어 버리고요 교회를 향해서 이럴 수 있나 하고 데모해 버리고요. 교회는 그런 류의 힘을 절대 발휘하면 안 됩니다. 사람숫자 가지고요 정말이예요 뜻밖이예요? 교회가 힘이 있다면 뭐 가지고 힘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낮아지고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교회가 힘을 가지면 괜찮아요. 그것 아니고 숫자 늘어나고 돈 많고 힘 생기니까 돈의 위력으로 사람 머리 숫자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틀맹이 가지고 떡 만드는 것 별문제 아닐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본질적인 위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선생님이 되어서도요 선생님이고 어른이니까 애들이 별 힘이 없으니까 한 대 쥐어박을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원래 위치가 뭐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애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합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요새는 어떤 그런... 뭐라 할까? 바른 인격이라든가 바른 생각 때문에 애들을 잘 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비극이긴 비극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가장 약점이다 싶은 것을 골라 시험을 하거든요. 지금은 40일을 굶어서 배가 고프니까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시험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약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할 겁니다. 사탄이 만약 나에게 시험을 걸어온다면 뭘 문제를 가지고 걸어올까요?

말 못해 (누군가)

말 못해? 말 안 해도 알겠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성훈이 얘기해서 안됐지만 틀림없이 이 질문에 '여자' 이랬을 겁니다. (쪽소) 다행도 여자문제가 걸리면 영락없이 걸려 넘어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서 가장 약한 게 맞을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문제에 걸려서 본의 아닌 실수 한 번 때문에 평생에 오점을 남겨두고... 의외로 좀 많아요. 결국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봅시다. 여자들은 괜찮죠? 별 문제거리가 없죠?

있어요.

있어요? 남자? 있긴 있다니까 그쯤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약점은 다 있으니까 자신이 스스로를 점검해서 사탄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죠. 좌우간 사탄이 시험을 걸어온다면 꼭 내게 가장 약한 그 문제로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가볍게 몇 개 넘어갑시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준다고 마귀가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켜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지켜처럼... (김현석)

그러면 마귀의 이야기가 틀린 거다 그죠? 혹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사탄 생각에는 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임인규)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을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탄의 말이 실제로 맞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임인규)

어쨌서요?

제 생각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의 영역 안에서, 영역이란 사탄이 활동하는 범위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 예를 들면 사람들 속에 권세나 영광이 있는 이상 사탄은 그 마음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자기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잖아요. (김은옥)

있죠. 그러면 사탄 말이 맞고 맞네요. 그죠?

영 영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김은옥)

그러면 대충 답이 되어가네요. 옴기서를 한 번 보세요. 옴기서에 나오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이 땅에서 마귀가 이거는 내 영역이다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요소가 제한적으로 있어요. 적어도 이 땅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요 마귀가 자기의 소유권이다라고 주장할만한 영역이 제한적이지만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완전히 가뒤편기까지는 적어도 사탄의 권세가 이 땅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소리하는 것도 완전히 무리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 땅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하에 있는 게 아니고 범죄한 이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적어도 이 땅의 상당부분이 사탄의 영역 속에 있다는 그것을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그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영영 떠나니라' 어디가 틀렸죠?

얼마동안

그렇죠. 좌우간 잠시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떠났다가 언제 또 나타나죠?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시 한 번 봅시다. 시험을 영어로 *temptation*, 제일 많이 쓰는 *test*, 조금 어려운 의미로 *trial*인데 사탄이 하는 시험은?

*temptation* (김은옥)

유혹이란 뜻이죠. 우리말로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니코스카잔차키스 (김은옥) (야!~)

맞아요, 그 '최후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때 실패한 그 사탄이 기회를 노리다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니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극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거기 나와서 다시 유혹을 한다는 이런 유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너무나 인간적으로만 묘사했다거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삽입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 때 문제가 좀 되었던 '소설'이죠. 사탄이 하는 시험이 그런 거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trial*을 주실지언정 이런 유의 시험은 결코 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가령 지켜야 할 것 참 많다 그죠? 왜 그래야 하죠? 여러분들은 왜 주일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소득의 십일조 드리고 왜 그래요? 누가 하라고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부모님이.

어쨌거나 부모님이 시키고 성경이 시키고 장로교 법이 시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배 보러 다니는 거다 그죠? 왜 우리는 이런 걸 지켜야 하고 해야 하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사랑의 표시나 그런 거 아니에요? (김은옥)

아니 자기 얘기를 나에게 거꾸로 물으면 어떡해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바로 그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배워서 교회를 다녔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처음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몰랐는데 성경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다 같이 우리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가서 우리 바뀌어야 돼요. 전부 남이 내게 시켜서 내가 따라갔는데 어느 때인가 '야! 이게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럼 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겠다'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틀림없죠. 분명히 인식을 해두자는 거예요. 제가 뭘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규례대로. (임인규)

그렇죠.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시간에 갔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가는 시간에 갔겠어요? 그렇지요. 바로 그렇게 자기 규례라는 게 되어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고 있지만요 분명하게 명심을 하면서 내가 예배시간에 출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어야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이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시켰기 때문이 아니고요, 장로교 법에 그렇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그것도 말은 맞지만 느낌은 참 안 좋아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규례로 확정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라는 거 있죠, 말요. 이게 전부 자기말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사실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말을 내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전부 자기말로, 자기만의 말로 바꾸어야 하는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옛날에 저하고 친하게 지낸 대학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제가 얼핏 지나다 보니까 애가 참 똑똑다 싶은 게 말이라도 한 마디 붙여보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내려오게 되어서 내려오면서 물었어요. 첫마디에 한 마디 물은 게 친구가 많으냐고 물었어요. 보통 대답은요?

많다 적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김은옥)

그렇죠. 친구 많으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쫓아다니니까 많아요 하고 답이 나왔으면 그 결과로 더 이상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많다 적다가 아니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친구 많으냐고 물었더니 '야는 사람은 많아요' 이러잖아요. 거기서 물려가지고 옛날에 돈 없던 시절에 사이다 한 컵 놔두고 서너 시간 앉아 떠들다 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상당히 친해졌어요. 존경하는 선배라 하고 나는 더 이상의 관계는 불가능하죠, 교회는 안 다니니까. 신앙은 없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연애해서 일이 크게 벌어졌을 때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도울 수 있는 게 내 말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

관계가 되긴 되었는데 친구 많아요? 할 때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럴 때의 내가 쓰고 있는 친구의 의미와 그 친구의 친구라는 말의 의미가 보통 쓰고 있는 말하고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난 옛날부터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다 싶어 버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거는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마저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좋은 단어예요. (임인규)

요새 애들 참 똑똑해. 나는 이것 참 나쁜 걸로 봐서 버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워낙 권닝이 심하니까 권닝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권닝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자기 존경심이 없는 애들이니까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 이러더라구요. 자기 존경심. 아! 그것 괜찮네.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 표현이 좋다좋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줄이면 자존심이 되더라구요. 어 그것 자존심이네. 그런 자존심은 있어야 되네. 그러고 보니 버려야 하는 자존심이 있는가 하면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자존심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내하고 들어서 자존심을 얘기할 때 후자 쪽이 될 거라는 거죠. 용어의 공통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 중에서도 내 나름대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 말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안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의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런 말했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 말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들은 거예요. 같은 단어를 두고 서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그것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말로 소화시키는 작업, 좀 어렵게 얘기하면 단어 하나하나에 명확한 정의를, 모든 단어가 다 그럴 수는 없구요 중요한 어떤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 하나하나의 의미를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정한 내 나름대로의 규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더라는 말 잊지 마세요.

그 다음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 것이란 말이 있죠.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죠? 언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

맞아요. 주의 은혜의 해.

희년.

희년까지? 선수 다 됐다. 희년, 뜻이 뭐예요?

희망의 해.

‘희망의 해’ 그건 좀 느낌이 안 좋아요. 혹시 희망의 해...

기쁜 해

기쁜 해 맞는데 희망의 해 이러면 왜 느낌이 안 좋은지 아세요? 이걸 나이가 좀 많아야 알 수 있는데 문선명이 많이 썼어요. 통일교 행사에 보면 무슨 희망의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붙였어요. 문선명이 하고 김일성이 좋은 말 다 버려놨어요. 동무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버려놨으니 친구란 말이 더 많이 쓰이죠. 기쁜 희 자입니다. 기쁜 해, 희년이 어떤 거죠?

빌린 땅 다 돌려주고 노예도 해방되고 (임인규)

내년이 희년이라면 땅도 집도 다 팔아먹어도 되겠네?

안 사죠. (웃음)

좀 사지... 희년에 대한 개념은 워낙 또 방대한 거니까 얘기는 할 수 없지만요 구약에 좌우간 땅과 노예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가만히 한 번 보세요. 그게 뭐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유독 이스라엘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뭐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요?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메시야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야를 원본으로 두고 그것을 기억케 하는 것이 구약의 희년제도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제도로 되어가야 옳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 방식대로 간다면 안 생겨나는 순간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법대로 가면 좋은 게 하나 둘이 아닐 텐데 그 하나님의 원리나 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이 땅이 너무 황폐한지도 모르죠. 좌우간 구약의 희년 개념이 바로 메시야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제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 있죠? 참 모해요. 왜 박해했는지를 차례차례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요셉의 아들

그게 제일 처음이 아닌데요. 우리 성경이 번역에 확실히 문제가 좀 있어.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메시아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니깐 뭐라고 그래요? 제일 첫 반응?

기이히 여기더라.

그건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23절에 이게 먼저 한 말 아닐까요? (임인규)

더 뒤로 가 버렸노.

이게 더 먼저 한 이야기 아녜요? (임인규)

그거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아니에요. 너희가 앞으로 이런 소리 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래서 우리말 성경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라는 말 있죠? 이게 사실은 증거하고라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이럴 때 영어성경 보면 좋죠.

모두가 그 사람을 좋게 말하고 (김은옥)

그렇죠. 영어로는 *They spoke well of hi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그를 증거하고라는 말은 그를 칭찬하고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 대단한 분이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이히 여겼더라고 하죠. 기이히란 말은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영어에 *wonder*라고 되어 있죠.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궁금하다. 또 하나는 놀랍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떤 한국사람이 영어 어설피게 쓰다가 뺨 맞은 적 있어요. 어떤 미군 병사가 시계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같이 찾던 한국사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한다는 게 *wonderful, wonderful*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뺨을 맞았거든요. *wonderful*에 훌륭하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는 이상하다는 뜻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랍다란 말하고 이상하다는 말하고 이게 동의어예요. 시계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이상하다 *wonderful*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하다, 이런 이상하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이롭다 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기이히 여긴다는라는 의미가 영어로 *wonder*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도 어떻게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놀랍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반응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임인규)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아주 놀랍고 경이롭게 여기다가 차츰차츰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우와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가만 있어봐 요셉의 아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설피른 목수의 아들이잖아라고 현실로 돌아오죠. 사람들이 훌륭하게 된 뒤에도 현재의 모습에 주목을 안 하고 자꾸 뭘 보냐 하면 어릴 때 모습을 자꾸 기억하니까. 그때는 사람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

지금 우리교회 권사님이 몇 분 안 보이시는데 옛날 계셨던 권사님이나 서 권사님은 날 보고 감회 젖은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저 쪼맨한 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죠. 40년 쯤 전의 모습들이 눈 앞에 어릴 겁니다. 그래도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이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누구말대로 '교회에서 공부 잘하고 뭐하고 열심히 있는 놈들은 다 어디가 버리고 제일 못하고 농땡이 친 저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목사노릇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이걸 제껴 놓고 옛날에 교회에서 땡땡이 치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요 은혜 받았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간혹 이런 면이 작용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떡했는 게 아니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현재 모습보다는 처음에 우와 했다가 차츰차츰 본론으로 그러니까 옛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더 봐버리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가까운 사람을 존경하기 어려워요.

자기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칭찬하기는 쉽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 맞아요. 결국 이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요셉의 아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보다는 배척을 하게 되어버리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해도 그 위대한 사상이나 인격을 빼내어 버리고 가까이 지내보면 진짜 별 거 없어요.

손봉호 장로님 잘 알죠? 현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 맞아요. 지금부터 이십여년 전이예요 구룡포 해수욕장엘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삐쩍 마르고 조그만 한 사람인데 옷벗겨 놓으면 더 볼품이 없어요. 지금 늙어서 더 쪼그라들었을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 제해버리고 그냥 보면 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막말로

옛날 누가 사람 몸에서 철분을 빼내서 못을 만들면 몇 개가 나오고...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인격이나 인품이나 이걸 보지 않고 옛날에 살았던 그 걸모습, 껍데기 그것만 보면 잘 알 수 없죠. 잘 안다고 해서 자꾸 사람을 그쪽으로만 보면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위대한 조상? 아니면 어설픈 조상?

위대한 조상. (임인규)

그 위대한 조상께서 과부의 집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문둥병을 이렇게 고쳤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얘길 거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깐 그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엘리야가 행한 그 두 가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왜?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려두고 이방인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어려운 시절에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안 일으키고 이방인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것 다 놔두고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언뜻 보기에 몰랐나봐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너희들이 배척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뻗어나갈 걸 말하고 그걸 유대인들은 못 견뎌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예수를 밀쳐서 죽일 놈까지 있었다라 그런 얘기죠.

그냥 비교는 말로 돌리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 사람이 이렇게 치료 받고 그런 얘기를 하니깐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생각하 지마라 이런 식으로 돌리니까. (임인규)

비슷한 생각인데 더 중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엄청난 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거는 더 이상의 모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하려는 얘기가 뭐냐 하니깐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죠.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임인규)

니나 잘해라. 고향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거라구요. 예를 들면 가끔 그 얘기 잘 하는데요 약국의 약사가 감기 걸려서 콜록거리면서 감기약 팔면 장사 잘 되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약국 감기약 안 팔릴 것 아니에요? 제 선배 한 분이 여기서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포여고 앞에 한샘학원 원장을 했는데 그 선배의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점마가 고등학교 갈 때쯤 되어서 포여고에 들어갈 수준이 되면 내가 원장노릇을 계속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장을 때려치우든지 아니면 아를 대구로 빼돌리든지 해야 된다.' 왜 그래요? "저거 집안도 못 가르치는 게..." 이렇게 되면 그 학원이 될까요?

그 애 포여고 갔어요?

여전히 포항에서 학원 잘 하고 있으니깐 갔겠죠. 지금 원장하고는 달라요. 자기 친구에게 원장을 넘기고 대신에 포고 뒤에 글샘학원을 인수해서 잘 하고 있어요. 아직 그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포항의 학원재벌이다 싶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소리를 한 사람이요. 그 후에 또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또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김은옥)

그때 뭐라고 그러죠?

.....

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니가 여기서 딱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니 몸의 병부터 니가 고쳐라. 이 소리 하고 나올지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자기 가족들 어렵게 살고 있는데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아주 잘 먹고 잘 살도록 고쳐버리든지 아니면 고향에 왔으니깐 기적을 한 번 일으켜서 고향을 위해 뭘 하나 해봐라. 그런 이야기일런지 모르죠. 그런 소리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좀 들어주면 안 되나. 예수님에게 마치 이런, 어떤 마술인 것처럼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라.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럴 때에 쓰라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이것하고 비슷해요. 옷을 근으로 달아 파는 거 있죠.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 때 옷 어디서 사왔느냐 하면 근으로 달아서 사왔다 하잖아요. 옷을 근으로 달아 파는 행위나 책을 무게로 파는 경우요. 그렇게 하면 이걸 참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는 능력 발휘를 안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군에 가서 참 많이 맞았어요. 영덕여고에 있다가 나랑 같이 군에 갔던 성악전공한 친구인데 훈련소 가니까 매일 고참들이 두들겨 때면서 노래하라고 시키는 거죠. 단 뭐? 반드시 뽕 짝으로. 안 한다고 많이 맞는 거예요. 같이 구보하면서, 군대구보 전부 발악이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하지마 하지마 하고 나는 입만 벌리라 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국 하지 왜 안해? 한국 하면 될 거대. 노래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면 안돼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발휘 해보라고 많은 사람이 요구하고 자극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게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해서 있는 힘 쓸데없이 써보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설교가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은혜가 된다. 저는 그 얘기에 대단히 거부감이 많은 편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입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듣고는 아! 그건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본인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 개인 이야기일 뿐이야. 이러면 문제가 크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누가 봐도 아! 저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저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만한 권위 있는 걸로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죠. 그러자면 그 속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너무 주관적인 이런 것들은 배제가 되고요 이걸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걸로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증거 하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 권세와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데요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견해를 자주 강요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에 더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 문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합니다. 나는 요새 외운다고 고생이 많은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고백. 베드로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외워지느냐 하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 외워지거든요. 간신히 외워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봐요. 비록 귀신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꾸짖고, 입 다물고 나와라. (임인규)

그렇죠.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참. 저 말이 맞나? 틀렸나?

귀신이니까. (임인규)

귀신이니까? 저 말이 틀렸나 맞나?

사람이 말하면 기특한데 귀신이 말하면 짜증나고... (임인규)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하면 짜증이 안 나요?

회개하면. (웃으며 임인규) (박장대소)

서양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크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유머감각입니다. 인규 형제가 한국에 나서 시세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서양에서 났으면 아주 값이 많이 나갈 사람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걸 틀림없는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유머 감각이 붙어있으면 서양에서는 값이 아주 많이 나갑니다.

서양에서는 왜 그렇죠? (김은옥)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유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해도 시작은 한번 웃어가면서 합니다. 유머감각이 없는 사람은 좌우간 인정을 안 해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통역이 한 사람 있었어요. 6.25 전쟁통에 미군 대위가 한국사람 모아놓고 협조도 구하고 해야 하니까 연설을 하나 하는데 마을 사람들 앉혀놓고 한 마디 시작을 하는데 통역이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에게 해줘 봐야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웃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번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통역이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이분께서 모두 웃으시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멋진 번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위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통역의 한 마디에 청중 모두가 웃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야기를 정말 멋지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얘기

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웃고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요 뒷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통역사에 길이 남을 명통역으로 남아 있어요.

유머감각이 그렇게 서양 사람들에겐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하거나 뭐하는 데에 있어서 천날만날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 힘들어요,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교회에 하루종일 있어도 입 안 떠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덕수 집사하고 또 한 분이, 성함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부인 두 사람은요 하루종일 따발총이라. 그런데 그 집에 놀러 갔다와서 정말 우스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 아는 사람은 듣고 많이 웃었어요. 모르면 하나도 안 우스워요. “야, 어제 내 안 집사 집에 놀러 갔는데 있잖아, 갔더니만 안 집사하고 모 집사하고 하루 종일 바둑 두더라.” 사람들이 우스워서 죽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입 안 떠는 사람 둘이 앉아서 종일 바둑을 뒀으니깐요. 이 말은 하루종일 입을 한 마디도 안 뗐다는 뜻이 돼요. 좌우간 한국 사람들도 유머감각 키우고 집에서도 부지런히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원소리 했더라? 요는 베드로나 이 귀신은 예수님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고향 동네에서 쫓겨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애한테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 버리느냐 말이죠. 귀신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는데 왜?

때가 아니라서. (이명희)

때가 되어서 그 말하면 괜찮구요?

제 생각에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무섭기만 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지. (임인규)

지금 귀신이 얘기하는 건 방해하는 차원 아니예요? 귀신은 당연히 알잖아요. (김은옥)

그렇죠. 때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그런 고백을 니한테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베풀어야 할 사랑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싶은 상대가 아닌 그가 내게 무슨 소리를 하건 그것은 소용없는 거죠. 또 연애 얘기 하나 할까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나를 보고요 사람이 멋있고... 뭐 어찌고 그건 좋은 얘기 맞아요. 그런데 나를 차버린 사람 있잖아요. 좋은 친구로 남자 그래놓고 정말 내가 비록 교제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너 참 멋진 사람이다라는 얘기가요 듣기 좋은 얘기에요 아니예요? 잘못하면 큰일나요. 우리 그만 끊자, 그래놓고 그렇지만 너 참 멋진 사람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듣기 싫은 얘기 없어요. 아주 기분 나쁜 얘기에요. 왜? 중요한 관계는 다 끊어놓고 병주고 약주는 꼴밖에 안 되죠. 어차피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걸요.

그걸 왜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김은옥)

연애를 안 해봤나. 우야꼬?

아니 객관적인 사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김은옥)

아, 연애를 안 해보고 하는 얘기니까 가능하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좋아하다가 텅졌잖아요? 나를 버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가 절대로 안 되게 되어있어요.

시간이 좀 흐르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김은옥)

안돼요. 안 차여 보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차야 되는데요? (김현석) (모두 다 박장대소)

아니 남녀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논리잖아요. (김은옥)

이건 논리도 아니고 이걸 뭐라 해야 하지? 우리 가곡 중에 ‘언덕에서’라는 게 있는데 그 가사 쓰신 분을 잘 아는데요 젊은 날에 슬픈 사연이 있었나 봐요. 풍경화 같은 시를 한편 썼는데 그게 우리 가곡에 남았거든요. 그 사연이 옛날 신문에 크게 난적도 있어요. 한 번은 부산에 공연을 갔었는데 이분이 지휘를 하려고 무대에 섰는데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가 객석에 와서 앉은 것을 합창단원 중에 한 분이 알아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 분이 오셨는데 한 번 안 만나 보실랍니까?”라는데 이 선생님 얘기가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젊은 날의 아픔을 잊어버렸을 만한대 그렇지 않았나봐요. 나중에 짓궂게 또 물었어요. “왜 안 만나십니까? 만나면 재미도 있을 텐데” “안 만나” “왜요?” 하니까 “환상이 깨질 것 같아서 안 만나.” 우스워요? 그때 나이가 오십이 다 됐을 때인데도 젊은 날에 있었던 그 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더라구요. 평생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가 봐요. 그 정도니까 내 사랑을 거부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요 만날 뭐부터 떠오르는데? 날 버린 여자 그것부터 생각이 먼저 나죠.

납득이 안돼요. 만나서 풀어야지. 이미 그 관계는 끝났지만 왜 그 관계가 끝나면 모든 관계가 끝장나는 것처럼. (김은옥)

하, 참.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노?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현석)

연애를 안 해보면 몰라요. (이명희. 주연찬. 박주영)

해봤는 사람들 또 여기 있네. 자, 그쯤하고 넘어갑시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오죠? 좀 이상 안 해요. 찾아오려면 언제 와야 되죠? 날 밝을 때 와야죠. 그런데 언제 왔어요?

해질쯤에. (임인규)

해질 때에 와서 언제 다 갔어요?

날 밝을 때. (김은옥)

그럼 뭐야. 밤샘 했네요. 이 사람들 왜 이러노?

더우니까. (임인규)

더우니까. 좌우간 머리는 잘 돌아간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환자들이니까 데리고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임인규)

낮에는 근무하느라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임인규)

그것도 정답 아니구요. 환자들이 많이 왔던 건 틀림없어요. 해질 무렵에 와서 아침, 날 밝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환자들이 많았던 것은 틀림없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도 오고 밤에도 왔으면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낮에는 안 오고 밤에만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니까 밤에 몰래... (임인규)

그러면 환자들끼리만 왔을까? 읽으면서 해질녘에 왔다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와 버리면 이상하다라는 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에 오지 않는 이유는 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큰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한 이 사람들은 아예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뭐만 기다려? 해지기를 기다려?

안식일이 끝나기를. (임인규)

그렇죠,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안식일이 언제 끝나는데요? 저녁부터 다음날이거든요. 저녁부터 새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전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해만 딱 넘어가면 이제는 안식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와 하고 오는 거예요. 와서 밤새도록... 이해가 가죠? 마치 뭐처럼? 주일에 공부하지 말라니까 열한시 반에 일어나서 열두시 됐나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땡 하자마자 이제부터 공부해도 된다. 요새도 그런 아이 있나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요 월요일부터 시험은 치지요 주일에 공부하는 하지 말라고 하니 안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가서 누워자다가 열두시에 일어나서 공부할까다 하고 누워있는데 깨보니 너무 일찍 깬더라. 그래서 다시 잠들면 안 되고 시간은 지나가기를 바라고.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그렇게 살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율법주의가 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짧은 날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배운 바대로 한 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보는 그런 기억은 있는 게 맞아요. 어쨌든 여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 거의 전 생애를 광야에서 지낸 셈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지냈다는 얘기가 세상 번잡한 것 꿈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보면 되요. 그런데 그 광야도 만약에 학교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졸업도 안 하고 평생 그 학교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사십일 만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그 학교에 다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명희)

갔다구요. 언제?

자주 갔어요. (이명희)

어디서요?

한적한 곳에. (이명희)

틈만 나면,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틈만 나면이 아니고 틈을 억지로 내어가지고라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러 가셨던 적이 아주 많아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물러나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생애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틈을 예수님은 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바쁘다 하고 뛰어다니면서도 이런 기도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시간 내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죠?

늦잠. (임인규)

늦잠의 주원인은?

게을러서.

게을러서 늦게 자요?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죠. 대체로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기도시간을 많이 빼앗아가는 것 아닐까요? 나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이나 저녁에 노는 것하고는 거의 담을 쌓았어요. 여명의 눈동자, 요새, 용의 눈물, 왕과비, 동의보감 등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신대원에는 새벽기도가 여섯 시거든요. 저녁 열 시 반부터 경건회가 또 있으니까 열한시 경에 마치고 점심 때 경건회, 저녁에 기도회. 하루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수업해 버리고나면요.

사람 잡네.

사람 잡는 거 맞아요. 그런데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까지 새벽 네 시에 꼬박꼬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방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집사님 괜찮습니까?” 묻더니만 며칠 지나더니 질문이 바뀌었어요. “집사님, 오늘도 일어났어요?” “아, 오늘은 퍼져서 늦잠 잤다.” “몇 시에 일어났는데요?” “다섯 시 반.” “다섯 시 반이 퍼진 거예요?” 퍼지는 날이 한 달에 한 번도 잘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공부나 기도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쁜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셨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밤이 늦도록.... 자, 마칩시다.

## 누가복음 5 장

처음 시작 때 보면 예수님의 설교 장면이 참 재미가 있다 싶어요. '우리가 옹위하여' 둘러서 있었다는 얘긴데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서 예수님이 길가면서도 얘기하셨을 테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 설교 모습은 좀 독특합니다. 강단이 어디죠?

호수 위의 배. (임인규)

호수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그럼 강대상은 없었겠네요 원고도 없었을 테고.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있는데 그럼 청중들은요?

호숫가. (임인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호숫가에 있는 청년들에게 소리가 잘 전해졌겠냐는 얘기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전망대 옆에서 토요일마다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망대 중앙 도서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복도가 짝 있고 중간에 호수가 큰 것 있고 이 반대편에서 일곱 명이 노래를 불렀는데 도서관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생각한 게 호숫가가 소리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임인규)

호숫가 경험이 있는데요. 나는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송도바닷가 생각이 나거든요. 송도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설교를 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갈릴리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 쪽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무슨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연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소리를 전달하거나 하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완전히 간접인데요, 이 질문을 언제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갈릴리바다의 이런 곳을 해안단구라고 하는데 해안이 계단형으로 둘러싸인 데가 있대요. 해안이 계단처럼 둘러싸인, 지리 용어로 해안단구라는 거요. 그런 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배를 띄우고 나면 마치 노천강당처럼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주면요 소리전달이 참 잘된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소리가 잘 전해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이상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시 배경으로 봐서 '선지자입니다.' (임인규)

동업합시다. (이명희)

내같으면 당장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일 듯한데 그래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좀 성경적이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동업하면 수지 맞추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겠네요. 좌우간 베드로는 특이해요. 특이한 거 맞아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김성일 장로님이 쓴 글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거 암시하는 대목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 싶은 것이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이때가 아니라 그 전에도 한 번 만났을 텐데 가령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랬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조금 되돌아가서 얘기해 봅시다. 베드로가 순종을 안 하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가령 당신은 목수 출신이고 우리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는 우리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부가 목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비슷한 요소가 이 안에 또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은 잘 알겠지만 고기 잡는 것까지야 잘 알겠냐? 이럴 수도 있죠. 성경공부 잘 한다고 고기도 잘 잡나요? 운동 잘 한다고 공부 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격이 달라요, 그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다. 고기는 보통 언제 잡는지 아세요?

밤에.

맞아요. 고기는 대체로 밤에 잡아요. 새벽에 고기배가 잘 들어와요. 밤중에 나가요. 특히 오징어철 같으면 바다에 불 환하게 대낮같이 밝혀 놓고 그 빛을 따라서 모이는 고기를 잡아들이곤 하는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한 번 보세요.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이 나오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못 잡았다 그러거든요. 고기는 보통 밤에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낮에 설교 실컷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거든요. 전문가가 볼 때는 좀 틀립니다.

그 다음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아세요? 물이 깊은 데 많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깊은 곳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깊은 곳이라고 해서 고기 많은 것 아닌데 깊은 데 가라는 얘기에요. 베드로가 원망을 한 마디 더 한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하고 있었죠?

그물 씻고 있었어요. (임인규)

허탕 치고 들어와서 그물 씻고 있는데 갖다가 넣어봐라 하니깐 베드로가 얼핏 생각하기에 만약에 지금 가서 허탕 치면 괜히 애써 씻어놓은 그물 또 씻어야 되는데요. 이럴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따라했을까요? 아주 궁금해요.

존경스러워서. (임인규)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 저 분이 말씀은 잘 하고 정말 성경은 잘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고기 잡는 것까지... 가만 있어봐. 그럴 수 있나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에 눌려서 고기 잡는 거 영 엉뚱한 일인데도 그 말 따르게 되는 그럴 수도 있겠냐 말이죠. 제법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분야에서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게 되면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엉뚱한 분야에까지 그러니까 영 엉뚱한 분야에서 권위가 생겨버리는 이런 예는 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에 가장 내가 자신 있고 확실한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으면요 나머지가 좀 어설픈 분야까지도 가르치기가 참 쉬워요. 일종의 작전의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가장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느 한 분야에서 확실한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나면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이용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감히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더라고 보는 게 정상이지 싶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 전과의 변화를 한번 찾아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변화에는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호칭에 변화. (김은옥)

처음에 선생이여 했다가 주어로 바뀌었죠. 큰 변화예요? 처음에 선생님 하는 거야 예사롭게 불러봤던 거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야 선생의 시세가 떨어져서 아무나 다 선생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생님은 시세가 많이 떨어졌는데 유대 선생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건 선생님이었다가 주어라고 바뀌어버렸죠. 그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베드로의 태도 변화는요. 주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보다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게 베드로의 변화잖아요. 뭐 고기 잡는 그 사이에 무슨 큰 죄 지었어요? 실제로 그물을 내리기 이전과 이후에 베드로의 행위에 있어서 죄인 아니었다가 갑자기 죄인이 될 만한 행위는 없었던 말이에요. 뭐가 변한 거죠? 자기는 변한 게 없어요. 없는데 단지 내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하는 걸 아는 순간에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버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허물없이 깨끗하게 잘 살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 나타난 걸 알아버리면요 자기가 그동안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드러나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신발에 물이 안 새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비오는 날이면 신발에 물이 새서 양말이 젖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날 남의 집에 가면 참 미안해요. 발자국 디딜 때마다 자국이 남거든요. 그런데 대개가 지저분한 집이어서 들어가서 자국이 남아도 문질러버리면 되는데 어쨌다가 정말 깨끗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불안해서 못 들어가요. 자기 집이나 좀 지저분한 집은 괜찮은데 깨끗한 집에 들어가면 불안해서 안돼요. 예수님이, 이분이 선생님정도가 아니고 어쨌면 메시아고 하나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갈등해도 해답이 안 나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철학이 풀지 못하는 가장 큰 난제가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요새는 철학공부도 안 하죠. 사람이 무엇이나? 답이 뭐죠? 왜 사냐고 묻거든요?

웃지요. (이명희)

그냥 웃지요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웃고 말지요.' 이게 답이거든요. 왜 사냐고 묻거든요이라는 옛날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사람이 뭐냐는 옛날 어느 회의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피부에 털이 별로 없고 두 발로 걷는 짐승이다. 내린 결론이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우스워 죽겠다 싶지요.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자가 닭을 산 채로 털을 다 뽑아서 집어던지면서 자, 이게 너희가 말하는 사람이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명답이죠. 차라리 펭귄 털을 뽑지. 왜 닭 털을 뽑았을까?

구하기 어려우니까. (임인규)

쓸데없이 똑똑한 학생이 꼭 있어.

펭귄 털 있어요? (김은옥)

몰라. 추운데 사는 짐승이 털 없으면 어떡해?

항상 반질반질하게 (김은옥)

똑똑한 학생은 가끔 저런 쓸데없는 질문에 맥을 못추는 경우도 있어요. (High) 사람이 뭐냐 하는데 해답을 내리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철학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알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쯤 해 놓읍시다. 독립된 주제로 다루어도 다 못 다룰 큰 얘기니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죠. 전 옛날에 내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고민도 참 많이 했죠. 난 왜 이렇게 못한 놈일까? 그래서 스스로 방향도 하고 힘들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방향이나 고민이 완전히 끝나버린 정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 그리고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확인하고 난 이후예요. 그 이후에는 신앙적이었던 아니거나 아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 모습을 느끼는 순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안 느껴 보고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려울 테죠. 좌우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둡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베드로를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이 알아듣기가 쉬워요. 본문의 어느 말보다?

사람을 취하리라. (김은옥)

10절에 보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이 마가복음 식으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거죠. 무슨 훈련?

사람 낚는 어부 훈련.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나중에 됐어요? 어느 정도로?

한 번에 오천 마리. (임인규)

맞아요. 그물 한번 던졌더니 오천 명이 걸리고 또 한번 던졌더니 삼천 명이 걸리더라. 그럼 아주 효과적으로 교육이 됐네요 그죠? 어쩌면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물 던져서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을 때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어차피 베드로가 여기서 고기 잡은 것이나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나 아마 그런 관련이 조금 있기는 안 있겠나 싶어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훌륭한 어부가 나중에 되긴 되죠. 그러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배하고 그물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걱정이 하나 돼요. 이 많은 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 마리씩 가지고 가서 점심을 해결... (임인규)

남은 가족들이 처분하지 않았나요? (김은옥)

이래 놓고 내가 답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에 관심을 안 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이걸 아주 참 나쁜 병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말하자면 선수가 시합에 열중할 일이지. 어디에 신경 쓰지 말라?

.....

세대가 다른 모양이다. 옛날에 우린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야 선수가 시합이나 열심히 하지 어디 사이다에 신경을 쓰고 다니냐?" 이런 얘기로.

사이다요?

예, 이거 세대가 다르네. 선수가 열심히 시합할 생각이나 해야지 시합 도중에 뛰어 들어오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그렇게 야단을 치죠. 선수용 사이다가 늘 준비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사이다가 없어서 그런가보다. 선수용 음료수가 있단 말이야. 한 번 뛰고 들어오면 그것부터 먹이는데 뭘 생각은 안 하고 만날 사이다에만 신경 쓰는 그런 선수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속담이예요. 선수가 사이다에 신경 쓰면 되냐? 이것도 속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인데 요새는 음료수가 워낙 흔하니까 이 속담도 폐기처분 해야겠네. 그 때는 사이다 한 병이 아주 귀했거든요.

성경책 보면서 늘 핵심적인 분야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궁금해해서 신경을 너무 쓰는 것도 병이다는 말입니다.

다 따라갔어요? (임인규)

여럿이 따라 갔겠죠. 그 얘기를 한 번 해보자. 왜 따라갔을까요? 나를 따라 오너라 했는데 '사람을 취

하리라'라는 그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나중 행적으로 보서는. 말뜻도 모르면서 왜 따라갔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늘 한자리를 노리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놀라서 아, 이럴 것 같으면 따라가도 밀질 것 없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가지고 부활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우리라도 이정도 능력을 가진 분이 따라 오나라 하면 안 따라갔겠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와 함께 출입... 언제부터?

세례 받으실 때. (김은옥)

요한의 세례로부터라는 것이 정확한 답인데 세례라고 해도 되겠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이름이 안 밝혀진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데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안 그러죠?

나병. (임인규)

그렇지요. 나병이란 말도 안 써요. 지금은 한센씨 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의 특징이, 치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염되요? 안되요?

되니까... (임인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은옥)

한센씨 병 강의를 좀 해야겠네. 일단은 약을 복용하면 전염은 안 되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계란 중에 상당수가 나환자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염이 될 것 같으면 딱도 없죠. 그래서 전염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나병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미있어요. 피부 어딘가에 움푹한 반점이 생겨요. 거기에 바늘로 이렇게 찌러도 감각이 없어요. 안 아파요. 피부 어딘가에 움푹하게 들어가는데 바늘로 찌러봐도 아프지 않으면 의심해봐야 돼요.

한군데만 아니고 여기저기... (임인규)

뭐. 심하면 많이 생기겠죠. 좌우간 어디 이상하게 생기거든 찌러보면 알아요. 찌러서 아프면... 지금은 치료가 돼요. 치료는 되는 병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몸에 돌출된 부분이 자꾸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거든요. 나병 환자가 우선 예를 들어서 코가 문드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이 떨어져나가고 그 다음 눈썹 같은 게 빠져버리고 결국 나병이 좀 진척이 되면 뭐라 그럴까? 너무 보기가 흉측하거든요. 천형. 그러니까 하늘이 준 형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 병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치셨다는 거는 스스로도 메시아임을 증명하고도 남는데 문제네요, 나는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참 존경스럽다라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특별히 저는 나병환자를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만나다면 고민이 좀 될 것 같은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치시는데 능력이 있어서 고치시는 건 좋다치고 역시 아! 하고 존경이 갈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손을 내밀어... (김은옥)

예. 그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기가 좀 심한 경우 같으면 손가락 같은 거 다 문드러지면... 손가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참 흉측해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댔다는 것이. 가령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문둥병 환자는요 조용하게 다니면 안 되요. 항상 소리를 치면서 다녀야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 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소리치면서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구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사람이 얼마나 그리울까? 좌우간 사람에게 접근을 하면 안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접근하는 걸 자기 스스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셨다는 거는요, 우리 형편하고 너무 달라서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저는 군에 있을 때 녹막염을 앓아서 마산 통합병원에 후송을 갔거든요. 그런데 녹막염은 무조건 결핵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담당 군의관이 불려서 왔는데요. 무심코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군의관한테 가니까요. "야" 하더니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급히 마스크를 하더니만 "이리와" 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아직도 못 잊어요. 나중에 한 번 당해보면 그게 어떤지 느낌이 있을 텐데 만약에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매일 이렇게밖에 살 수 없으면 얼마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플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서 손을 내밀었다? 손양원 목사님 전기에도 보면 그분이 나환자촌 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분은 스스로없이 나환자들하고 손을 내밀고 같이 밥 먹고 처음부터 그랬다는데 처음에는 나환자들이 그러시지 말라고 말렸대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감동적이었던 느낌은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성경 보지 말고 한 번 틀린 데 찾아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니 예수는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시더라' 틀린 데 있어요?

고치고자하여 말씀도 들고는 빼고. (임인규)

말씀도 들고는 빼고 병만 고칠려고 왔더라? 설마.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김은옥)

참 대단한 선수야. 고시킬만 한데 안 고시키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들 병을 다 고쳐주셨더라. 이렇게 안 되어있고요 뭐라고? '예수는 몰려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 그만큼 열성적이셨고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공부 열심히 하는 거요?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줍시다. 왜? 이유를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러기 전에 이걸 해야 하는 일이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줍시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해야 되고 마땅히 가르치고 병 고치셔야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소홀히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몰려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큼 그만큼 기도를 해야 한다면 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일에 그만큼 더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중풍 걸린 사람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비 교주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부딪혔다고 칩시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할 거예요? 아니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할 거예요?

일으킬 자신이 없으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죠. (임인규)

일으킬 자신이 없으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낫죠? 왜? 이걸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다른 거 아니예요? (김은옥)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서 가장 최고의 죄 아닙니까? (김은옥)

그렇다고 능력도 없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요? 좌우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는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하려고 하면 너무 가짜냐 진짜냐는 표가 쉽게 나는 그런 명령은 하지 말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끝내버리면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명하시죠?

죄 사함을 받았다. (김은옥)

그런 다음에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말씀에 따라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 동시에 어느 말이 이루어진 거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내적인 증거. (김은옥)

그렇죠. 확실한 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교법사들이 할말이 없죠. 일단은 여기에 바리새인이나 교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 되어있죠?

갈릴리... (김은옥)

그걸 쉽게 말하면요? 전국이죠.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왔단 말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되지만 이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때는 어떤 적극적인 적대감을 표시하기 이전인 걸로 봐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왔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약간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저 예, 예,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점은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옳고 그르냐, 분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적어도 따져가면서 듣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니 참람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해서 대들었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스스로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이 어때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기이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기이한 일이고 희한한 일 다 봤다 이랬겠지만은 적어도 바리새인들이나 교법사들은 저 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을 겁니다. 다만 너무나 엄청나니까 내색은 안 하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차츰차츰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올바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하고 대조가 되는 것이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바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런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속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에 상응한 반응을 안 나타내거든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지적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식은 있었어요. 머리만 긁어져서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 지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안에 사람들이 뻑뻑하게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이 뚫리고 위에서 침대가 내려오는 겁니다. 침대하니까 우리 요즘처럼 몇 십만원짜리 대형침대는 아닐 테고 가벼웠겠죠. 침대가 내려오는 그 밑에 사람들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 저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기우뚱해서 굴러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침상이 내려올 만큼 사람들이 비켜줘야 하는데 지금 비켜줄 공간도 없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간 없는 얘기 잘 모르죠? 요즘 그런 거 못 느끼지 싶는데 옛날 우리 집회 가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밖에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많이 집어넣는지 아세요? 버스운전수네요 사람이 많이 났는데 더 이상 탈 자리가 없으면 운전수가 사람 탈 자리를 만들어요. 흔들어 버리죠. 차가 출발했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아서 사람들을 활짝 한 번 흔들어버리면 사람 탈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또 태우는 거야. 알기 어려울 거야. 예배당에 사람 많이 집어넣는 방법. 우리는 많이 당해서 잘 알죠. 전부 일어나라 그래요. 예전에 의자 없이 마루에서 예배드리던 시절 얘기입니다. 다 일으켜 세워버리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들어올 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뒤에서부터 앉으세요.” 제일 뒤를 먼저 앉혀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앞으로 밀리죠. 어디까지 가는데요? 물론 강대상 목사님 발밑에까지 올라와요. 그래도 좌우간 뒤에서부터 앉혀버리니까 일단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앉든지 앉아요. 끼어서 꼼짝 못할 정도로 앉죠.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옛날 우리 수련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뒤에서부터 앉으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고 침대가 지금 내려온단 말이에요. 나무꾼과 선녀도 아닌 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내려오는 걸 받쳐요. (임인규)

내려오는 걸 받쳐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판국에. 이 사람들 예의도 없는 사람들 아니야, 세상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천장을 뚫고 내린다. 예의도 없죠. 이런 무례함에도 이것저것 예수님 눈에는 아무 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믿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봐야 하는, 정말 중요한 걸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보다는 엉뚱한 데 눈이 더 가요. 우리 애들 집에서 누가 방구 끼면 방구 낄다고 난리 북새통을 치는데요 방구소리가 정말 반가울 때가 있는 것 아세요?

맹장수술. (여럿이)

왜 다들 맹장수술이야? 그건 수술 속에 들지도 않을 텐데... 수술한 사람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 제일 반가운 게 방구소리입니다. 방구 소리가 안 나면요 밥도 못 먹고 물도 안 줘요. 늘 간호사가 와서 물어요. “방구 끼었어요?” 이거 노래야 노래. 방구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대구요. 그것처럼 모든 것이 소중한 의미가 있을 때 소중한 걸 먼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늘 값어치 없는 엉뚱한 것부터 먼저 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령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 봐야 하죠? 우리집에 조카 하나가 와있는데 오늘도 난리를 쳤어요. 자기 할매 잠시 한눈 판 사이예요. 잼을 집어내어 잼 병에 손을 넣어 꺼내어서 얼굴에 처발라서 빨고 땡기는데요. 저거 할매는... 뭘 봐야 하죠? 봐야 될 것 많아요.

가능성. (임인규)

어떤 가능성? 지금은 이게 그렇게 말썹이고 시끄럽고 하는 짓이 그렇지만은 최소한도로 이 아이가 십년 후 혹은 이십년 후에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를 염두에 두면요 소중한게 여길 수밖에 없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한게 여기시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요 합부로 대할 수 없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소중한게 보아야 할 건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부사이에 뭘 봐야 하느냐 말이에요. 참 좋은 답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하라고 내게 준 소중한 동반자. 그러면 부부싸움 못하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싸움 못하고 우리가 위험을 피해 가기가 참 좋아요.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야 그 다음에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못 싸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소중한 것 먼저 보는, 예수님 눈에는요 저 사람들의 무례하고 저게 내려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천정 떨어졌으니까 천장 떨어내다가 안에 흙이라도 쏟아지고 자갈이

라도 우르르 떨어지고 안 그랬겠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보이더라 얘깁니다. 소중한 걸 먼저 볼 줄 아는, 우리 눈에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 보시고 병을 고쳐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엇길래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을 만큼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왔을 것 같아요? 믿음의 내용?

단순한 믿음. (김은옥)

예수님께 가면 고쳐줄 것이다라는 단순한 믿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왜? 그 정도 믿음은 그 당시에 누구라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걸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에 한 대목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시면서요, 뭔가 권수가 하나 있어야 내가 이걸 가지고 퍼부를 거데 무슨 권수 없을까 하고 보다가 발견한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게 위해서 뭔가 권수가 없을까 하다가 우리 속에 발견한 조그마한 권덕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하나 해줄 때도요 그냥 툭 잘 해줄 수도 있겠지만요, 저같은 경우는 뭐 하나 해주고 싶은 때가 먼저 있구요 그 다음에 무슨 권수 하나 안 잡히나 권수만 하나 잡히면 그걸 핑계 삼아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뭐도 해주고 싶은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게 내 공로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작은 마음 하나, 그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작은 마음. 그것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성격 중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봅시다.

교법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이라는 사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 두시구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열 두 제자 이름 중에 레위 있나요? 이 레위는 사실은 마태입니다. 마태 본명이 레위다 그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거의가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어부출신 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명을 줘야 할 제자가 하나 필요해요, 글 잘 쓰는 제자가. 무슨 글을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기록해서 남길만한 사람이 하나쯤 필요한데 그 일을 사실은 마태가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 불렀냐. 그렇게 물으면 할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어부출신들은 글을 별로 못 남겼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문과 출신인가? 이과 출신인가? 아무래도 문과 출신이겠죠. 그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다 말이죠. 세관에서 일보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태를 불렀고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깔끔하게 남기죠. 공부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이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부 출신들 중에 가장 위대했던 베드로가 글을 얼마나 남겼죠?

두 권. 베드로전후서와 몇 편의 설교. (임인규)

맞네. 베드로전후서와 사실은 설교 많이 했죠, 다 성령의 감동으로 했지만요. 실제로 본인이 작성해서 남긴 것은 두 편이네. 마태는 한 편이고. 누가 속겠다 그죠. 베드로전후서 다 합치면 몇 장쯤 되죠? 8장. 제법 되네요. 겨우 그것밖에 못 남겼어요. 마태가 초대교회에서 차지했던 비중하고 베드로가 차지했던 비중을 따진다면 베드로가 훨씬 크죠. 그러나 남긴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대신에 바울이 남긴 거는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도 잘 안 나오는 누가가 남긴 거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분량이 많아요.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은 당대 최고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위대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후서 짤막한 거 두 편 남길 동안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라도 공부해야 할 때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짤막한 거 몇 개하고 넘어갑시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줄기차게 따라다녔는데 아직은 무슨 적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정말 줄기차게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예수님한테 겁이, 두려웠긴 두려웠나봐요. 예수님께 직접 대놓고는 말 못하고 제자들을 비방한 걸로 봐서 조금 겁이 나긴 났나봐요. 방향을 바꿔서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실은 유대에서 굉장히 서러움을 받고 살았던 계층이거든요.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그 집에서 같이 교제를 해도 안 되고. 이런 천대를 받고 살았는데 아마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서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말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김은옥)

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는 이 말씀 한 마디에 아마 그

동안의 서러움이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수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사라지려면 한 마디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들을 우리도 좀 해야 돼요.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한테 심방을 하거나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야, 니한테 이런 몸쓸 병이 걸린걸 보니 아무래도 니가 죄를 많이 지었나보다. 회개해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인들 심방 가서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십일조 떼먹은 거 있으면 십일조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돼요. 사실이 그렇다 해도 그건 하나님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형적인 예가 옴이 드러누워 있을 때 왔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파 누워 있는 사람,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서러움이나 안타까움을 털어줄 수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의 얘기도 그런 류의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둡시다.

금식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금식을 하란 얘기에요? 하지 말란 얘기에요?

지금은 하지마라. (임인규)

그럼 언제 하는데?

나중에 해라. (인인규)

금식이 중요한 것이고 해야 할 일이지만은 아무 때나 금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나 찬송도 하자 하는데 반대하면 안 되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지마라 하면 되요? 안 되요?

때와 장소를. (임인규)

아니.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예를 들면 단체집회 하는데 집회 마치고 저녁 10시부터 취침하는데 한쪽에선 잔다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 말려야 해요? 나뒤편 해야?

산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인규)

맞아요. 사실은 말려야 합니다. 왜?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말려요? 야단 칠 건 쳐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합니다. 전도,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라 해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가면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금식.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씩 했거든요. 일주일씩 하다보면 일주일에 금식할 날이 꼭 끼어있거든요. 그래도 그 날은 금식을 안했던 말입니다. 결혼식을 일주일씩 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어딘가에 있는데? 장가갔는데 결혼 취소하려고 하니까 붙들여 앉히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속았다. 이 결혼 무효다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장인어른이?

야곱.

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칠일을 채워라라는 말이 나와요. 칠일을 채워야 뭐가 되는데? 결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잔치를 마치자는 겁니다. 칠일을 안 채우고 첫날에 이거 무효다 하고 튀어 나가버리면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첫날밤을 자고 일어났을 때 속은 줄 알고 일어났을 때 라반이 칠일을 채워라고 하는 얘기는 그 칠일을 채워야 결혼이 완전히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칠일씩 했다는 거 알아둡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옷이나 새 포도주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복음

단순하게 복음? 본문에 어떤 표현을 빌리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복음 그러면 맞긴 맞을 건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는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보세요. 복음이란? 더러운 인간과 상종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 복음이 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가는 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그 행위를 가리켜서 새 옷이고 새 포도주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죄인하고 세리라 하면 상종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안 믿는 친구들 사귀지 마라. 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친구도 믿는 사람하고만 친구하고 안 믿는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왜 그랬어요?

같이 타락한다고.

신앙 뺏기고 나쁜 물든다구요. 그래서 같이 다니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느 분이 와서 전도 얘기를 하면서요 안 믿는 친구를 열심히 사귀라. 왜? 그래야 전도할 것 아니냐 얘기도. 방향이 많이 다르다 그죠?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오셔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

던 분이 서순득 권사님이었어요. 나중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 권사님은 혼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하고만 사귀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는 채도 안 하고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될 것이지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았으니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복음은 이 복음을 들고 죄인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새 포도주 새 옷은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술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나봐요. 새 술보다는 묵은 술이 낫다고 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을 말하자면 어느 것이 묵은 걸까요?

바리새인. (임인규)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묵은 거죠. 예수님의 교훈은 지금 새로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묵은 게 좋다고 그러나요? 고시는 질문이거든요, 질문이 엉터리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묵은 거, 새 거라는 거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묵은 게 좋다는 얘기는 좋은 것을 택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묵은 게 좋은 거고 새 것이 나쁜 거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택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된 것이 좋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려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택하여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좋은 쪽을 취하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교훈 중에 어느 것이 묵은 것이고 어느 것이 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둘 게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에 새 것이 왔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37-39은 두 개의 교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훈이 왔으면 그 중에 더 나은 쪽을 취해야 하고 그 교훈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쪽 훑어왔는데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조금 있고 있었는데 시간에 맞추다 고 조금 빨리 진행했어요. 혹시 질문할 것 있어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 이런 거예요? (김은옥)

아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사실 이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새 것이라면 전혀 없던 게 새로 생겼다는 말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본래 옛 것을 회복한다.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다. (김은옥)

새건데 왜 왜곡된 걸 바로잡는다 그러요? 새로운 시대 그러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항세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결례, 이런 게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에 의해서 그게 가려지고 왜곡된 거잖아요. (김은옥)

그러면 표현을 새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왜 예수님이 새 포도주, 새 부대란 말씀을 하셨을까? (김은옥)

그동안에 쪽 내려왔던 어떤 그릇된 역사 대신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봐야죠. 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보면 계속 흘러오는 본래의 것을 회복한다는. (김은옥)

본래의 것을 회복한다? 그것보다는 예고되었던 일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복음이 전해져오고 그걸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빌리면 아까 얘기 한 대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얘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묵은 포도주를 좋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묵은 포도주란 참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앞에 새 포도주가 예수님의 교훈이고요. 여기 묵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잘라서 별개로 봐야 합니다. 다른 얘기에요. 그걸 자꾸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해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38절. 39절을 띄워야 한다는 얘기죠? (김은옥)

그럼요. 나는 이걸 이렇게 보다가 한글을 가지고 영문 해석하듯이 독해한다는 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왜 좀 쉽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고 안 틀리게 한다고 용을 쓰지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 잘못봤네. 이런 게 가끔 보여요. 나는 이 모임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제가 혹시 잘못보거나 할 때 이게 지적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임이 있어줘야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자꾸 쌓여져 가면 나중에 세월 지난 다음에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보는데요.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이 보이는 능력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훈련이라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서 보는 버릇을 좀 들이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펴놓고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걸 하나 발견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매듭지으면서 참고로 얘기를 하나 할께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박해받는 장면을 보다가 박해받다,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유명하니까 혹시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박해하다 그걸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래 뜻을 보면 사냥감을 쫓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디오코가 박해를 받다가 되는데 참 묘한 게 그게 의미가 두 가지로 쓰였어요. 바울이 일생동안 쫓아다닌 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 두 개. 하나는 복음전파를 위해서 쫓아다닌 것.

하늘의 상. (임인규)

하늘의 상. 맞아요. 또 하나는? 좀전에 뭐 얘기 했어요? 박해하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박해했다. 이때 같은 디오코를 쓰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 때 이 쫓아가노라도 디오코예요. 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닌 거나 아니면 하늘의 상을 쫓아다닌 거나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는 뭔데? 박해하다라는 뜻이구요. 하나는 그 상을 위해서 뛰어가는 건데요. 두 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떤 점에서?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요. 똑같은 행위인데 하나는 박해가 되고 하나는 위대한 신앙의 표현이구요. 나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게. 하나 더 소개 할까요? '여호와의 진으로 바침이 되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여호와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 바친다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은 동시에 죽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이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나 하면 이스라엘 진이, 이스라엘이 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바친다인데 예를 들면 제물을 바친다. 금은보석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걸 바친다가 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파멸당한다, 죽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나중에 그 구절 보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너희가 만약에 범죄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침이 되게 한다' 여호수아서에 야간이 범죄하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 성을 칠 때에 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묘하게 한 단어가 반대가 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씩 발견하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쯤 해 봅시다.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많은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살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지만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낮추어 가신 모습들을 봅니다.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서 스스로없이 손을 내밀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나누셨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누가복음 6 장

시작합니다. 처음에 보면 제자들이 좀 수준이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의 밭의 이삭을 함부로 비벼 먹어도 되나?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임인규)

허락되어 있다구요?

추수하고 난 다음 아니에요? (한승창)

추수하고 난 다음요? 아닌데...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이렇게 되어있죠. 땅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과수원인가? 안 싸가고 가서 먹는 건 죄가 아니다. (임인규)

예. 이 정도는 돼야죠. 과수원 얘기를 했는데 포도밭이나 과수원 같은 데는 들어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건 괜찮아요. 단, 광주리에 담지는 말 것. 그러면 여긴 밀밭이거든요. 밀밭은 어떻게 되죠? 밀밭에 들어가서 비벼 먹는 건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

잘라먹지 마라. (김은옥)

잘랐잖아요, 그 사람들은.

들고 가지 마라. (한승창)

들고 가지 말라구요? 잘랐으면 그 다음 다 털어놓고 가야 돼요?

먹고. (임인규)

단, 이삭을 비벼서 먹든지 잘라먹든지 먹는 건 괜찮는데 낫은 대지 말라고 하죠. 이해가죠? 과일을 따먹되 광주리에 담지는 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함께 가면서 저자식들 나쁜 짓 하나 안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그러겠어요? 거기서 남의 밭을 막 베먹은 것 그 자체로는 율법위배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있으니깐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이 비슷한 일 있었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훔쳐 먹어도 괜찮죠? 괜찮아요? 불법이에요?

옛날에는 괜찮아요. (임인규)

사실은 괜찮았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서리.

도망가다가 붙들리면 어떻게 돼죠?

제가 언제 한 번 딸기 서리 해봤는데 이놈의 자식들하고 붙들렸는데 죽었다 싶었는데 반나절 잡혀 있다가 딸기 배터지게 먹고 왔어요. (임인규) (모두 웃음)

엄밀히 말하면 옛날엔 잡혀도요 야단치고 뭐한다 하지만 실제로 흉내만 내는 것이고 붙잡아 야단치는 분도 으레 그러려니 하면서 야단치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애들이 겁은 좀 나겠지만 그렇게 큰일은 없어요. 말하자면 공인된 반장난이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먹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요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세상에 과수원에서 밤에 뒤집어쓰고 잠복해 가면서 사고뭉치 잡으러 다니고 하더니 급기야 고소사건도 일어났고 공기총 가지고 지키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법이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발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발달인지 어찌면 퇴보인지 생각해볼 여지는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런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신 23:25)' 그 다음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신 23:24)' 이 법하고 요즘 이런 정신을 살려놓은, 말하자면 사람을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농사짓는 사람도 생각하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냐 말이죠. 인간적인 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법을 지금은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요즘의 질서정연하게 잘 짜여진 법이 신명기에 나오는 몇 천년 전의 법보다 더 발달한 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펍테기만 번지르르하게 잘 다듬어 놓은 것같은 느낌이지 발달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 하니까 다윗이 다급하게 쫓기다가 양식 마련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얻어 먹었던 사건을 지적을 하시거든요.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고 하는 책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이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예외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율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율법위배입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이 얻어서 양식으로 사용했거든요. 분명히 율법위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것을 두둔하는 것 같아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 같죠?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다윗의 그 행위를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듯싶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주목적이 사람을 규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안

식일 규정을 지적을 하시면서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성경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죠? 읽어 드릴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이 구절 기억해주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어요. 옛날에 이 구절 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한바탕 싸워서 이겼어요. 저는 있다 하고 목사님은 없다 하고. 아니요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교칙은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학생을 규제하기 위한 겁니까? 교칙. 학생을 위한 게 교칙이에요? 교칙 좋아하는 학생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학생을 위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교칙은요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드는 사람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각종 법은요 국민들을 위한 거예요? 국민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쪽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대전제가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만드는 과정에서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대체로 규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교회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어야 합니다. 원리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다른 의도가 개입이 됐다면 악법이 되는 거죠. 율법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근본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들을 자꾸 사람을 규제하고 강압하고 나중에는 율법의 껍데기만 남고 정신은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율법의 형식만 남은 그것을 깨고 그 정신을 살리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정신이나 율법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고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위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안식일의 그릇된 개념을 깨뜨리기 원하셔서 사실은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엄청나게 충돌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뒤에 안식일 문제 가지고 바로 부딪쳐 나가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대화를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다른 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안식일은 적극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김은옥)

예. 그렇죠. 예수님의 안식일은 뭔가를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안 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특히 9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뭘 안 해야 하는데 저 양반이 뭘 하는가 눈여겨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얘기는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묻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좌우간 수백 가지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모두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지 말라가 아니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들은 말이 하지 마라가 많았는지 아니면 뭐를 해라가 많았는지 한 번 되돌아 보세요. 우리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하지 마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큰 게 맞아요. 학교 다닐 때 뭐 하지 마라? 대학생들 모이면 만날 의논하는 것 있잖아요. 술, 담배, 권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토론회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서 뭘 해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 (김은옥)

공부해라. (임인규)

공부하라는 거는 환영 못 받지 싶다.

다양한 경험을 해라. (김은옥)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 잘 안할 건데요. 사고 칠까봐 겁나서 하지 마라고 할 건데요. 사실은요 제가 초임지 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전부 안돼요. 교장이 못하게 해요. 이유는? 아이들 데리고 교문 밖으로 나갔다가 무슨 사고라도 났다 하면 하다못해 실수로 교통사고가 생기면 교장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학교 밖에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 인솔해서 마음대로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전부 안돼요. 왜? 그런 걸 자꾸 겁을 내버리니까요. 뭔가 소신껏 하다가 탈이 나고 사고가 나더라도 노력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보다 사고 나면 책임지우는 것만 있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하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자세,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뭔가를 안함으로써 지킨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아요.

어느 정도나 하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고 했죠. 그러면 일하지 마라. 일이 뭐냐. 규정을 지어야

쥬. 글 쓰는 사람이 글을 몇 자 이상 쓰면 이권 일이다 아니다 이것부터 규정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글자를 쓰긴 쓰는데 몇 자까지는 괜찮다.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몇 자까지 괜찮을까? 옛날에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글자 몇 자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것. 그 다음에 걸음을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것. 그러니까 몇백 가지가 나오죠. 무엇보다도 해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뭘 할 것인가. 그러다가 좀 잘못되거나 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겁을 낼 필요없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주된 문제가 사실은 안식일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허물었다, 율법을 허물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은요, 유대인이 유대인다운 것은 안식일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음식문제로 참 애먹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핍박받던 시절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고문한 것 중에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요 엄청난 고문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게 고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희한한 고문이다 그죠?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버티다가 일가죽이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요. 돼지고기 먹는 게 어떻게 고문이 돼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와 똑같이 취급이 되니까 목숨을 걸고 안 먹는 거죠.

안식일을 어긴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과 같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다가 안식일이라고 총 놓고 앉아 있다가 다 죽은 적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되기는 되는 셈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 다시 말하면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유대인들의 이해력 부족이기도 하죠.

제가 영해고등학교로 발령 받아갔을 때 아주 멋진 문구가 걸려 있더라고요. 학교 들어가는데 좌우로 과수원이 있고 도서관도 멋지게 하나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간판에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우리가 이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는 이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 멋진 말이다 그런데 표절이다' 이랬죠. 멋진 말인데 이게 표절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표절이나 하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이게 유대역사를 정돈한 어느 분이 남긴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는데도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포기하기까지 안식일을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라는 민족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려 했던 노력 때문이더라는 거지요. 그게, 참 모한 역설인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유대인들의 삶을 아주 감동적으로 잘 표현한 말인데 그 학교 들어가니까 간판에 학교 환경을 잘 해놓고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링컨도 표절한 거 아세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것도 사실은 표절입니다. 하기가 표절 아닌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그 구절도 고대 어느 성경 서문에 있었답니다. 표절했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 역시 능력이니까. 그런 걸 나쁜 의미로 표절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인용해서 잘 쓰는 것 그건 능력이니까요. 좌우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그러했다는 정도로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손 마른 환자' 손 말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손이 말랐다. 요즘 말로하면 무슨 병이죠?

중풍환자.

중풍이죠. 손이 마비된 자. 마비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손을 고칠려고요 뭐라고 주문을 하느냐 하면 손을 내밀라고 그러죠. 손이 마비되어서 못 움직이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선택을 해야겠죠. 자기는 못내미니까 안 내밀겠다. 아니면 그 말씀대로 내밀어보겠다. (김은옥)

내 생각에는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면 손은 안 움직이니까 야, 발을 들어라. 그러면 고쳐줄게. 이래야 이야기가 될데 못 움직이는 손을 내밀어라 하나까 당장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움직일 수 있어야 내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손을 내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손 마른 환자는요 픽 웃고 말든지.

손을 내밀든지. (김은옥)

어떻게 내밀어. 움직여 본 적도 없는 팔을 어떻게 내민단 말이에요?

안간힘을 쓰든지. (임인규)

쓴다고 나가나요? 그게.

마음. (임인규)

마음만. 그렇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 데요. 믿을 능력이 있어야 믿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한 자락만 있어도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이 환자는 손 내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내밀라 하니깐 내밀어 봐야지 하고 내밀려고 마음이라도 써보고 움직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 되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손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잔혹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잔인한 말이 돼요. 왜? 능력도 없는 게 남의 약점을 들추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밀라고 하는 말은요 되지도 않지마는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 요정도 공로는 있었습니다. 요정도 공로? 어떤 공로? 능력도 없이 되지도 안 하는 거 내밀어 보려고 마음 먹은 정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믿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그 정도라고 기억하면 감사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 열두 명 부른 일인데 제가 보면서 참 머리가 아파요. 예수님 제자 열두 명 이름 다 외울 수 있어요? 안 보고. 나는 참 안 외워지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성경 시험도 쳐야 되니까 기필코 외워야 되는데 간신히 다 외웠나 싶고 한테 꼽아보면 열세 명도 되고 왔다갔다 합니다. 한 번 외워봅시다. 동명이인이 몇 쌍이 있어요?

야고보 둘. 시몬 둘. 유다 둘. (임인규)

그러면 세 쌍이네. 한 학급에 동명이인이 세 쌍이 있으면 학급운영 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끌랑 열두 명에 동명이인이 세 쌍이면요?

별명을 붙여줘요. (임인규)

아마 그래서 시몬 하나는 베드로라고 불렀을는지 모르죠. 이거 머리 아프겠다 그죠? 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김은옥)

그렇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아니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는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도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죠. 동명이인이 세 쌍이나 들어온 게.

그런데 이름이 꼭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은옥)

그래야 될 헛갈리지. 그래도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어릴 때 열두 제자 이름 다 외웠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 없나 한 번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다대오가 안 보이죠? 다대오, 시몬, 가롯 유다, 다대오가 안 보이죠?

유년부 때 배웠는데. (이명희)

맞아요. 유년부 때 이런 걸 잘 배워놓아야 외우지. 나이 들어서 안 외워져요. 유년부 때 배웠다가 까먹었던 노래를 간신히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대오가 없어요. 가롯 유다 아닌 다른 유다 한 사람 있죠? 이 사람 이름이 다대오인가 봐요. 다른 곳에 열두 제자 이름 나온 것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아마 다대오일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가만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왔는가. 17절 끝에 보면 국내의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두로와 시돈이니깐 하기야 나라도 없던 식민지 시절에 국경이나 국외, 국내라는 게 어설프지마는 적어도 외국인들까지도 몰려왔더라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참 궁금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큰 대형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때 교회를 안 세웠을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임인규)

때가 아니어서?

교회라는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다 할 수 있지만 이 무리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김은옥)

이 무리 자체가 교회라구요? 글썽요.

그 질문의 교회라는 건 건물과 조직을 갖춘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은옥)  
 그 애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은옥)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서고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모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데 가서버리고, 제자들 모여라 이런 적도 없구요. 따라오는 사람은 오고 돌아가는 사람은 돌아가고, 무슨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교회는 어떤 신앙고백 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터 위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무리. 그게 교회 아니에요? (김은옥)

그런 셈이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김은옥)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 생각을 안 하시느냐 이 말이죠.

만들어 가시는 중이잖아요. (김은옥)

만들어 가시는 중이예요?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키워가듯이 예수님께서 그런 노력을 안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답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장 교회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임무는요?

죽으러 오셨어요. (김은옥)

그렇죠. 죽으러 오셨죠. 일단은 제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 제자들이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고 자신은요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좀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깐 문제죠. 그래서 제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결단해서 나름대로 신앙을 받아들일만한 기초를 닦는 일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참 많아요.

어저께 영국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홈페이지 방문록에 글을 남겼더라구요. “한인교회의 교인이 백 명쯤 됩니다. 이정도면 영국에서 아마 10위권은 몰라도 20위권은 확실히 듭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교인 백 명가지고요. 농담이지 싶은데 그래도 영 농담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면 우리나라요. 우리 교회만 해도 영국 가서 어떤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인원수 갖다 대면 밑보여요. 좋게 안 보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어린 눈으로 보거든요. 영국에는 이만한 교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몇 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들이 있거든요. ‘와’ 그러는데 지난번 특강을 하나 들었는데 연변과기대 총장이 오셔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 어떤 큰 교회에 더러더러 초빙을 받아서 가는데 가서 “자, 이중에 병 고치고 축복 받으러 오신 분 있습니까?” 하니깐 교회가 터져나가더라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이중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라요. 수만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죠. 소용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단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에 바탕을 두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당장에 무슨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까 누가 때가 안 됐다 그랬죠? 때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지복음이라고 그러죠. 가난하고 주리고 미움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난하고 주리고 미움 받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기 가난하고 주리고라는 것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굶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쪽 의미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 치중할 건 아니고 양쪽을 다 표현한다고 해도 좋겠지만은 여전히 강조점은 영적인 쪽에 있을 겁니다.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미움은 왜 받아요? 게을러서 미움 받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주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릴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미움 받을 수 있다는 거. 게을러서 가난하고 미움 받고 이거는 여기에서 제웁니다. 일하기 싫어서 굶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제웁니다. 말씀대로 살다보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주리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역으로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는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실은 부자구요 굶어본 적도 없구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한다구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내가 인성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아서 모든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한다구요. 그런 사람 있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는 경우도 지금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신앙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자처럼 살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있는 게 죄는 아닙니다. 나는 왜 이리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죄가 많을까? 혹시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가난한 자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뜻이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아라는 뜻이지 있는 돈 다 갖다버리라는 뜻은 그리고 굶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곳에 써야 할 곳이 워낙 많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벌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26절까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세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하나만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화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웃는 사람과 나중에 웃는 사람. (임인규)

그렇죠. 주린 자가 있고 배부른 자도 있죠. 미움을 받는 자도 있고 칭찬받는 자도 있고. 대충 이렇게 정돈을 해본다면 그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조상들이 선지자와 거짓선지자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봅니까? 우선 선지자에게.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며 악하다... (인인규)

못된 짓 다 했다 그죠? 그럼 거짓선지자한테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했다. (임인규)

그렇죠. 왜 거짓선지자에게는 칭찬을 받고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박해를 가했을까요? 거짓선지자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말만 했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들은요. 아무래도 책망을 많이 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니깐 미워했고 거짓선지자들은 와서 듣기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칭찬을 했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 듣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칭찬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좀 용감하게 밀고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상들은 실패했던 말이야. 실패했는데 이제 너희는 원수들에게 어떡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방법이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김은옥)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은옥)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김은옥)

하나만 더 해보세요. 이야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해 버리면? 달라하거든 주란 얘기죠. 이 네 가지도 한 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달라하거든 주라. 한 마디로 요약해 버리면 주라는 겁니다. 선대한다는 게 뭐예요?

혹시 실수로 원수를 사랑해본 적 있어요? 없으면 넘어가고... 나중에 한 번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연습으로 몇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럴 것 같으면 실행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명예퇴직하고 인사하고 나올 때 몇몇 선생님들이 울어서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받았는데 내가 속이 많이 상해서 한판 싸워 버릴까 어쩔까 하다가도 좋게 좋게 넘어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 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가는 사람을 진심으로 아쉽게 여겨준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은요 어렵지 않은 때인데 무슨 원수질 정도의 일은 안 생길 거예요. 그러나 나를 괴롭힐 수 있고 힘들게 할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역으로 '이거 뭐 내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연습으로 한 번 해보는 거다.' 속으로 그러면서 선을 한 번 베풀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어찌면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이 좀 어려울지 몰라 물어보는데요.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35절.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라. (임인규)

빌리라는 뭐죠?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이 빌리란 말 써요?

옛날에 국어공부할 때는 빌다. 빌리다가 헛갈렸었는데 요즘에는 빌리다 하면 내가 빌려온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임인규)

그러면 국어시간에 뭐라고 배웠는지 복습 한 번 해봅시다. 내가 남한테 빌려오는 것을 표준말로 뭐라고 해요?

빌려오다.

아니고.

빌다.

빌려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빌리다. (임인규)

맞아요. 그러니까 빌다라는 것은 내가 빌려오는 거고 빌리다는 것은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렇게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성경에는 표준어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준말로 써놓은 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수정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나 혹은요 위의 형님이나 동생이 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예도 있기는 하던데요. 학비를 대준다거나 어려울 때에 형이 공부를 해야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거야 해서 동생이 모든 걸 포기하고 형의 공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헌신적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꼭 얘기가 이상하게 꼬여서 한쪽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지고 가족 유대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배은망덕한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기대치가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은 것. (김은옥)

그렇죠. 뭔가를 기대했었는데란 말은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형을 그렇게 도운 것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혹은 형제간에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중에 그 관계가 험악해지거나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는 욕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뭘? 선을 베풀되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형이 되고 동생을 돕거나 아니면 형제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도와줄 마음이 있거든 기꺼이 도와주되 이로 인해서 나중에 지가 나를 알아줄러나 이런 생각이라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형제간뿐만 아니라 이웃간에서도 그런 여유로움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은 쌀이 다 봉지에 들었지만 옛날에는 쌀을 되로 되어서 주잖아요. 되로 되어서 주면 쌀을 되로 파는 봉이 있는데요. 싹싹 미는 수도 있고 죽 밀다가 끝에 남겨두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안 밀어요. (임인규)

그걸 안 민다고 그러지 않고 되에다가 쌀을 이렇게 수북하니 쌓은 채로 안 파고 그대로 주면 좋지요. 그런 되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봉. (임인규)

촌놈이지? (웃음)

아닌데요. (임인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잘 모르는데... 이럴 때 고봉이란 말을 썼거든요. 고봉(으로) 한 되 그러면 가득 담아 파지 않고 그냥 주거든요.

밥을 고봉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임인규)

확실히 촌... 맞는데? 맞아. 되, 고봉 그러다가 밥고봉이면 옛날 우리나라 밥그릇 고봉 그러면 밥그릇 안에 든 것보다 올라온 게 더 많죠? 그런 고봉도 알면 확실히... (인규를 가리키며) 그래서 되로 되는데 위에 올라온 부분을 싹 안 치고 많이 남겨 놓은 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되가 뭐하다? 우리말입니다. 되가 올라왔는데 싹 안 치고 조금 밀고 많이 남겨둔 걸 가리켜서 그 가계 갖더니 되가?

후하다. (김은옥)

후하다 그러죠. 여기에 그 말이 있나요? '후히 되어' 할 때 이 '되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되어'입니까? (임인규)

이거 우리말이죠.

원래는 어떤 말입니까? (임인규)

거기에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되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become*이 아니고 *measure*입니다. 쉽게 말하면 되를 후하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 말이죠. 아까 물었을 때 우리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말했을 때 대답 중에 이게 나와야 되죠. 우리에게

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온다? 후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어준 것보다가 더 후하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게 38절 끝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이 어렵게 되어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데. 헤아린다는 이 표현을 되로 바꿔버리면 쉬워요.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준 그 되대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 그것대로 그대로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후히 되어라는 게 되를 이용해서 준 개념으로 반복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사용한 그 되의 크기로 우리가 다시 받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쪼맨한 바가지에 퍼주었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때도 쪼맨한/쪼그마한/ 바가지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가마이떠기/가마니 채로/로 남에게 베풀었으면 가마이떠기로 돌아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줘야 되겠네 그죠?

선생님 그런 경험 있어요? (김은옥)

있냐구요? 더러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요만큼 줬는데도 가마이떠기로 올 때도 있고 가마이떠기로 줬는데 안올 때도 있잖아요. (임인규)

여기의 이야기는 꼭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는 대체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학교생활 하다보면 그런 것 좀 있어요. 내가 고생활 작정하고 일을 뒤집어 써버리면요 1년내내 고생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러길 잘했다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학교선생님들은 학기 초에 잘 싸워요. 학기 초에 잘 싸우면 1년이 편해요. 학급이 가령 아홉 학급이면 영어선생님이 둘이 있을 경우예요. 한 사람이 네 학급 들어가고 한 사람이 다섯 학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네 학급 들어가는 선생님은 일주일에 열여섯 시간 수업만 하면 되고 다섯 학급 들어가는 선생님은 일주일에 스무 시간을 해야 합니다. 네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일주일에 네 시간요? 이거 일 년 간다고 쳐보세요. 일주일에 네 시간 참 큼니다. 그럴 때 누가 할 것이냐?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네 반만 맡으면 일 년이 편한대요. 싸움 안 나겠어요? 사립은 좀 어떤지 모르겠다. 공립은요 "올해 니 다섯 반 들어가고 내 네 반 들어갈게. 내년에 우리 바꾸면 안 되나." 그렇게 약속을 해봤는데 전근가고 없으면? 보장이 안 되기도 하고, 일이 어떻게 꼬일지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찾아먹을 것은 무조건 찾아먹고 보자는 거죠.

저희 교장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다 짜서... (김은옥)

그러면 싸움은 안 되겠다.

주로 시간표 배치 때문에 싸우죠. (김은옥)

예. 주로 시간표 배치 아주 큰일입니다, 학기 초에. 그럴 때에 기꺼이 "야, 내 다섯 반 들어갈게. 니 네 반 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괴로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듬해 그 사이에 전근 가버리고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듬해 있으면 "야, 올해 내 또 다섯 반 할까?" "그래 또 해봐라." 이러는 사람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게 나오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해봐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은옥)

해봐라 하면 또 해버리는 거죠. 해봐라 해서 또 해서 1년을 더 고생을 했다치면요 그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는지 정말 나쁜 놈 같은 경우엔 '저 빙시 같은 게'라는 욕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 전체 시간표 짤 때요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안 하고 남에게 다 좋도록 베풀어 놓은 결과는 사람 사는 보람이 있어요. 좌우간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누가 다시 준다는 말입니까? (임인규)

그건 모르죠. 누가 받은 사람이 그대로 되준다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갚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요.

이것을 기대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임인규)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주기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아주 후하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세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를 때에 그때 선한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한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연결시켜보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께 뭔가 포기했을 때 더 좋은 걸 채워주실 거라는 어떤... (한승창)

하나님 이거 포기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걸 포기합니다. 나중에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겠지요라고 포기할 필요는 있어요.

바라는 자체가... (한승창)

사람이 그렇게 100% 순수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지 싶은데요. 첫번 연애에 깨져서 모든 걸 정리할 때에 '하나님 나중에 다른 데서 달리 찾으실 줄 압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얻은 여자가 지금 우리 집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그때 그랬던 것이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라는 걸 절절히 느끼고 삽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재범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면 나중에 고백할 게 생길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물어봅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요?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안 서니까 어디로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승창)

소경 잘 못봤죠? 길에서 혹시 소경 봤어요? 소경이 길에 가다가 퍽 엎어지거나 넘어지는 것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도 있겠네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틀렸네요. 물어봅시다. 요즘 소경이 왜 엎어지거나 넘어지는 게 잘 없죠?

교육도 시키고 길도 잘 닦여져 있고 나름대로 어떤... (한승창)

예. 소경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지금 많이 고안되고 환경이 좋아진 겁니다. 길 가다가 소경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개를 끌고. 개를 앞세워서... (임인규)

안경 끼구요. 지팡이를 딱딱딱 두들기면서... (임인규)

흰색 지팡이를 쓰게 돼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경이 잘못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잘 없구요. 멀쩡한 게 정신없이 가다가 들이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길 가운데 가다가 차에 치는 경우는 없을까요?

차가 비켜가요. (한승창)

예.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소경이 차도로 갔어요. 차가 저기서 오는 거야. 차가 빵빵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날쌔게 피해요. (임인규)

피해요? 위험하게. 가만히 서 있더라구요,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오는 차가 피해서 가더라구요. 맞다 싶더라구요. 그때 소경이 급하게 후다닥거리면 치어요, 잘못하면. 물론 콤비가 잘 되어서 차는 왼쪽으로 사람은 오른쪽으로 피해갔으면 다행이겠지만 위험합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차가 피해서 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왜 그렇게 똥판지같은 소리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시절에 그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면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왜? 아스팔트가 깔렸어요.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 평지가 별로 없는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요. 옛날에 곳곳에 구멍이 파여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아마 이런 지팡이를 짚고 다닐만한 패도 잘 없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때 그 형편으로는 그런 게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란 말이야?

멀쩡한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라. (김은옥)

둘 다 소경일 경우엔 어떡해요?

빨리 한 사람이 눈을 떠라. (임인규)

빨리 한 사람이 눈을 뜨라고? 두 사람이 다 소경이면 둘 다 빠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눈을 떠라. 맞습니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또 제자가 스승만큼 높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스승만큼 높아지라는 겁니다. 눈 속에 들보를 빼라구요? 이 말씀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둘 다 소경이 되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눈을 떠라 이 말이나 눈 속에 들보를 빼라나 같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쭉 이렇게 해온 이야기들을 실천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실천을 해서 다른 소경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구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뜻에서 39절에서 45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결론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들고 실천에 옮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있는 거죠. 집 짓는 얘기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게 요지거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해설을 붙여놨잖아, 49절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열심히 듣고 행하지 않으면 기초를 제대로 두지 않은 집과 같다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를 표현만 달리해서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 보아야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머리로만 이해한 것과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고민하는 사람이 보는 성경은 그냥 머리로만 배우고 보기만 하는 사람이 보는 성경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매일 일정량을 읽되 다독과 정독을 병행하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 보세요. 실천이 정 어렵다고 여겨지거든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의외로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것은 말씀대로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냥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연습이라니까요. 옆의 동료 때문에 몹시 신경질이 나거든 속으로 ‘야! 이걸 진심이 아니고 연습이야!’ 하고 외친 다음 톤을 낮추어서, 점잖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별 수 있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라.” 속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연습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관중거리가 생길 테니까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바른 성경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중으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마칠까요?

## 누가복음 7 장

좀 빠른 속도로 10절까지만 한번 보세요. 유명한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혹시 있나 보세요. 어디?

5절에. (주연찬)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꼭 아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닌 듯한 느낌을 줌 주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증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임인규)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서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못 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참 기이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개 다를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 9절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방인일 경우 같으면 유대인들은요 교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유대인이 백부장이 될 수 있습니까? (김은옥)

용병이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랬던 경우는 아직 못본 것 같아요.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의 직위를 받은 유대인... (김은옥)

유대인들이 이런 백부장으로서 활동한 예가 없다. 그것도 되네요. 그런데 왜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의 심부름을 해줄까요? 교재조차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심부름을 해줄까?

마음에 드니까. (임인규)

이 사람이 유대인을 위해서 한 일이 많으니까. (김은옥)

그렇죠. 유대민족을 참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회당도 지어주고. 그러면 그것만 하지 않았을 거다 그죠? 뒤에 보면 유대교 입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교의 입교는 완전히 유대인화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회당에는요 유대교에 입교는 안 하지만 회당에 출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닙니다.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함께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령 사도행전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경건했다고 나온 사람,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장로들이 보통 사람들이 심부름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걸 유대 지도자들이 심부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마 유대인들을 진짜 아껴준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의 처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끼던 종이 병이 들었죠. 종을 아끼다는 자체가 벌써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다 그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도, 존중하는 게 정상일 텐데 쉽지 않아요. 하물며 그 옛날에, 종은 사람 축에 들지도 않던 그 시절에 자기 종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종을 사랑했다는 자체가 벌써 남다른 사람인 건 틀림없죠. 종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돈도 들고 뭐 이런저런 방법 안 써봤겠어요? 그런데 잘 안 났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죠. 아 예수님은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일? 유대 장로 몇 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부탁을 뭐라고 했어요? 직접화법으로?

텔코온나. (임인규) (쪽소)

경상도말 참... 축약이 잘돼서 좋다. 네 글자밖에 안 되네요. 좀 표준말로 합시다.

메리고 온나. (임인규)

그것도 아직 덜 퍼졌다.

모시고 오십시오. (김은옥)

모시고 오십시오. 일곱 자를 텔코온나. 네 글자면 되네. 왜 자기가 가면 안돼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별로 상종을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가면 예수님이 놀랄까 싶어서. (임인규)

예수님은 별로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

업무에 바빠서. (임인규)

업무에 바빠서. 혹은 내가 그래도 참... 지방 유지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몸으로 친히 갈 수 있겠나. 뭐 이런저런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기꺼이 갔어요. 그동안 우리민족을 위해서 해주신 분을 위해 기꺼이 모시러 간 거죠. 보내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생각이 조금 더 발전을 했죠.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가 와도 안 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이 분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에 대한 예의를 가져야 되겠다, 오신다면. 와야

무슨 예의를 갖추지. 이 백부장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위대하신 분. 하나님. 혹은 자기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자 그 뒤에 따라온 생각은?

오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김은옥)

그렇죠. 그제서야 떠오르는 생각이 아 이걸 오라할 게 못 된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다른 사람 시켜서 보내어 뭐라고 하죠? 오시지 마십시오.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오지 마십시오. 오지 않고도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또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다른 이유가 또 뭐 있겠어요? 안 오셔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했구요. 또?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한다. (김은옥)

집에 들어오시는 걸 왜 감당 못해요? 집이 누추해서? 모르긴 몰라도 백부장의 집이면 그 동네에서는 아마 가장까지는 못될지라도 제법 으리으리한 축에 들 텐데요.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다니셨던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집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일 텐데요. 그런데 왜 감당치 못한다고 오시지 말라고 하시느냐 말이죠.

집이 누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분상의... (김은옥)

그렇죠. 신분상의... 김 선생 캐나다 가버리고 나면 누가 대답하지?

(모두 웃음) 제가 말하니까 상대적으로 말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요즘 말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열심히 말해요. 아무나 만나서 수다를 떨고... (김은옥)

제가 요새 그래요. 누가 나와서 나를 보고 인사를 하라고 마이크를 주면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교사 생활을 21년을 했다가 스톱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생활만도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두 군데나 짤려서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모처럼 마이크를 잡았는데 시간을 얼마 주시렵니까? 물어보고 주는 대로 한 번 해볼라 하는데 마이크를 잘 안줘요. (모두 웃음) 심정이 이해가 간다.

집이 누추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집 중에서는 아마 이 집처럼 좋은 집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약에 하나님 일 것 같으면 내가 그러니까 그분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잘 살펴서 오시는 걸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아주 파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런 소문만 듣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배홍희)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위대한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했을지도 모르지만 기록에 안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이런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끝에 그 말씀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도 다 부족하다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이 그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없지마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일이 있었겠죠. 어느 목사님 말마따나 “예수 잘 믿는다고 다 신학교 가면 안돼요.” 하더라구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기록은 없지만 로마 교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었겠죠. 특히 로마 교회는 아주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고 그래요. 군인들이 많은 공헌을 했을 수도 있어요.

로마에는 백부장이 흔했나 보죠? 다른 직책은 별로 없는데 백부장은 많이 나오잖아요? (임인규)

백부장 위에 천부장 나오고...

성경에 백부장 이외에는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던데요? (임인규)

맞아요. 일반적으로 백성들하고 접촉하고 뭐할 수 있는 최일선 부대장이 백부장입니다. 곳곳에 백부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시마다 다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백부장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천부장은 너무 높은 분이라서 잘 안 나올 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두들겨 찢다가 혼이 난 천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웬 거냐?’라고 물었던 천부장 말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점이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방인의 믿음. (임인규)

이방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방인이 이 정도. (임인규)  
어느 정도?

유대인도 감히 못하는... (임인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제일 끝에 답이 뭔데?

직접 만나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만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김은옥)

그렇죠. 다른 병은 전부 와서 고쳐주십시오 해서 기도하고 손 얹고 하다못해 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라 하고 가서 씻으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여인은 뒤로 살금살금 와서 옷이라도 만져야 된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했는데 이 백부장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정말 특이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점은 특별히 그 부분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군대에서... (임인규)  
군대에서 생각 것 같다? 군인들의 믿음은 다 이래요?

여기도 나도 뭐 내 밑에... (임인규)

그렇죠. 자기가 직접 그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종이쪽지 한 장에 사립은 잘 모르지만 공립은 종이쪽지 하나에 '영해중학교 근무를 명함' 그 말 한 마디를 가지고 영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뭐 나를 보낸 놈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학교에서 나가는 것도 내 나간다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가도 좋다 해서 나가는 겁니다. '퇴직을 명함' 그래야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부장 같은 경우도 가령 로마황제의 명에 의해서 로마황제가 '너 좀 와' 하는 전갈만 오면 보따리 싸서 당장 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군에 있으면서 그런 걸 본다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일 것 같으면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자기의 삶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의 신앙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기 부모가 아주 포악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구실을 못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거부감이 있어요. 받아들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잘 돌아가는데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이 이 한 구절을 읊었을 때요, 이 말 속에 다윗은 어릴 때 자기가 목자로서 활동을 할 때요 절대 패 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양을 치면서 적당히 피부리고 늑대가 오고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예이, 이 많은 것 중에 한 마리쯤 물려가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자기 먼저 내뺀고 이랬으면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는 안 나와요. 정말 내가 노력하고 애 쓰고 애 쓰고 했다가 나중에 지나보면 거기서 시 한 소절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의 어떤 신앙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든가 내가 쪽 살아온 이 발자취가 정말 신실한 발자취였을 때에 거기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소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올바른 신앙고백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빈둥빈둥 멍멍이 치다가 어느날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위대하게 됐다, 이런 경우 없어요. 혹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것 아는데 했던 이야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에 수위 시험을 치러갔는데요. 그 분이 자기 이름을 못 써서 수위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위로 합격을 못해서 나중에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회사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청소부로 들어간 사람이.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름을 제대로 쓸 줄 알아서 수위로 당선이 되었으면 아마 그 회사에서 평생 경비원으로 생활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 떨어져서 청소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 얘기 맞아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이 얘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홍희)

떨어졌기 때문에? 틀린 거 맞아요. 왜 틀렸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장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배홍희)

그렇죠. 비록 이름도 못 쓰는 공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했겠느냐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속에 있던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사장의 자리에 갔으면 갔지 무식하기 때문에 갔다는 그건 말이 안돼요. 원인이나 이유를 정확하게 잘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분들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력 있는 역사라

해서 어느날 사람이 갑자기 핵 바뀌어서 갑자기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 틀린 답입니다. 무디가 구두수선공이었는데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단순한 구두수선공이 아니에요. 비록 구두수선공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던 무디가 기어코 위대한 전도자로 변신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백부장의 삶은 자기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거기서 놀라운 신앙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핏핑 놀면 안돼요.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인정을 받을 만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의 위대한 신앙,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요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권력도 있고 아주 부자 아니었겠어요? 그 집의 하인을 고쳐줬는데 그렇게 고쳐졌으면 따라다니는 식구들 데리고 한턱 얻어먹고 해야 안 되나요? 그런데 집에 오지 말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어디 갔을까?

예수님은 쫓쫓하지 않으니까 서운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배홍희)

서운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갔을까?

필요한 곳에 가셨겠죠. (배홍희)

여전히 길거리겠죠. 아마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그런 생각했던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백부장, 이렇게 병을 고쳐졌으면 하다못해 모처럼 좋은 집에서 식사대접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말 안 그랬죠?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그랬는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말하면은 정말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나왔으니까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신기한 거잖아요. (배홍희)

예.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일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더라는 것에 대해서 가서 만나서 뭐 얘기라도 들든지 했을 것 같은데 나라면. 그런데 아무 일이 없더라는 게 짤려서 그런지 너무 신기해요. (배홍희)

추리가 안돼서 그런데 (임인규)

응. (배홍희)

제 생각에는 이미 건강해졌더라는 걸 아는 걸로 봐서는 그 소식에 놀라서 먹을 걸 다 들고 나와서 야외 식당에서 팔아놓고 잔치를 했을 것 같은데 (임인규) (쪽소)

이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 많이 잡은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업합니다.” 이렇게 되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나를 떠나라 그래요? 동업을 하든지 붙어야지. 왜 떠나라 그랬겠어요? 이분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생각에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내가 대접을 하고 어찌고 이런 생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문맥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감히 내가 거기 가서 대접을 한다, 모신다는 그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작년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존경했던 목사님 설교를 멀리서 들으면서 가서 인사라도 한 번 하고 싶었는데 멀리서 빙빙 돌다가 그냥 왔어요. 왜? 그 주변에 인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 목사님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서 인사라도 한 마디 하고 싶기는 한데... 사정거리 10m 근처까지는 갔지만 먼발치에서 보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식사 한 끼 사라’고 하면 최고급으로 대접하고 싶지만 내게는 그런 자격도 없다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쫓쫓하지 않아서 섭섭하지 않을 거다 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왜 이거 대접도 한 번 안 하고’ 이 생각이 아니고요. 대접 못 받아서 섭섭하다 이거 말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만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뭐?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제대로 대접을 해 주었다. (임인규)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예수님께서 이제 아, 저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다? 틀린 걸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유는, 저 친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줘서? 어찌 좀 이상해요.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배홍희)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알았다는 것이, 백부장에게 그런 믿음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그 백부장이 나를 위해서 손님 대접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예수님에게는 더 기쁘다 그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줘서 기쁜 것. 이걸 아직도 좀 수준이 낮아요. 아, 저 사람 속에 저런 사랑이 있고 저런 마음이 있고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은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고 반가워할 수 있는 이 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한 마디 들으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에게 그런 기쁨이 충분하게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내게 뭘 베풀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기란 정말 어려운 거 맞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다른 제자들 중에 ‘저런 싸가지 없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죠. 이럴 때에 우리가 그런 소릴 안 하려면요 저 백부장이 왜 저렇게 처신을 하느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를 늘 간직하는 게 좋아요. 시험 한 번 쳐봅시다.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10분 전부터 기다렸는데 저 친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약속했는데 나는 시간 지킨다고 기를 써서 왔는데 저 친구는 30분이나 약속에 늦었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늦었느냐? (임인규)

그건 그래도 근사한 편인데? 엄마들이 아들 보고 그런 말 잘 써요. 한 번 늦었는데 이걸 일반화 시켜 버리는 거죠.

맨날/만날/. (임인규)

만날이라는 말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한번밖에 안 늦었는데” “니 전에도 늦었잖아” “그런 적 없는데...”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입장을 바꿔서 내 입장에서 안 보고 늦게 온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마디 한다면 어떤 말이 있겠어요?

뛰기라도 했냐. (임인규) (쪽소)

뛰기라도 했냐? 그거는... 그것도 어찌 보면 좀 비난하는 투 같은데...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마디 한다면?

나도 금방 왔다. (한승창)

그건 거짓말이잖아.

미안함을 털 수 있잖아요? (한승창)

집사님, 나도 잘 늦기 때문에 너 이해할 수 있어. 그럴 거예요. (배홍희)

나도 늘 하는 짓이니까 이해가 가. 그것도 괜찮네요. 어쨌든 나도 금방왔다거나 아니면 나도 잘 늦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 상대방을 어느 정도 고려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 어때요? 시간 맞춰올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서 마음이 많이 급했제? 바빴제? 이런 거요. (모두 웃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죠.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어렵지만 평소에 자꾸 훈련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학교에 있을 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아침마다 어느 애가 저거 담임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걸 이렇게 들으면 재미있어요. “왜 늦었어?” 그러면 “아, 오는데 버스가 빵구가 나가지고요.” 그 다음날 또요. “또 무슨 사건이야?” “나오려고 하는데 집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며칠 하더니만 하루는 저거 담임선생님이 “어찌 니가 탄 차는 만날 사고가 나냐?” 개가 탄 차는 꼭 사고를 낸대요. 항상 남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버릇을 좀 들여야 해요. 연습 삼아서라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나인성에 들어가는 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죽은 아이를 메고 나오죠? 12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 이거 정상이예요? 그러니까 죽은 애 그냥 메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장례행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를 메고 나온 게 아니고 관을 메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살려달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이 유가 두 가지?

독자. 과부.

그래요. 구약에서 과부라는 말이 언급이 될 때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과부라 하면 조금 불쌍하지 그렇게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복장 편하다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옛날에 과부는 혼자서 살기가 어려워요. 혼자서 먹고사는 게 해결이 안 된다는 뜻에서 과부를 불쌍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완전히 희망이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제가 옛날에 영해 있을 때에 기억이 나요. 엄마가 시장에서 청소하면서 사셨던 분인데 그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청소를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사셨지만 이 아들 하나 보고 아주 즐겁게 사셨죠. 이 아이가 겨울방학 때 연탄가스로 죽어버렸어요. 그 엄마 보기가 정말... 애 목숨은 자기 혼자 목숨이 아닙니다. 자기 엄마가 모든 걸 다 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인데 연탄가스로 죽고 나니까 어떡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는 게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이 과부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혹시 남녀를 너무 차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간혹 보일 겁니다. 보이거든 그럴 때도 참고해 두세요.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나 혹시 다르게 규정을 해놓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여자 혼자서 나가서 생활하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남자 종은 해방시켜도 되는데 여자 종은 해방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들이 나와요.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가 이런 것에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백부장은 정말 위대했다 해서 백부장의 신앙만 열심히 칭찬하면 안돼요.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거죠. 비슷한 예를 하나 들까요?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돼요. 정말 놀라운 거 맞아요. 세상에 세상에 어쩌면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로켓을 쏴서 우주선을 보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될 수 없는 아주 고난도 기술이죠.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이 대단하다고 칭찬해도 돼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야, 과학의 기술이 놀랍다 라고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달나라에 로켓을 쏴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안 움직여주고 달이 지 마음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하면 안되죠. 이렇게 하면 속력이 요만큼 가야 하고 이 각도에 가면 이 시각에 요만큼 가야 하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게 예정한 대로 안 움직여주면 아무 것도 안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가 아주 정교한 규칙에 의해서요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그걸 응용해서 과학이 발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위대하다 사람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조화롭게 만들어놓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돼요. 그것 없으면 안돼요. 백부장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야기의 초점을 백부장에 맞추면 안 되구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여전히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죠. 어떤 예수님?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임인규)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좀더 올라가야 되겠는데. 나도 사실은 아파 그랬잖아요, 내가 담임했던 그 아이인데 그 엄마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겨 도와 (임인규) (쪽소)

그래서 학급비 모으고 선생님들 돈 모아서 엄마를 도울려고 애 많이 썼죠.

..... (임인규) (쪽소)

그래도 만족까지는 못가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쉽게 말하면 앞에 백부장의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보면, 여기서는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보여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건들이 몇 건은 있어야 나중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면 말발이 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었던 사람을 두루두루 살려놓더라. 그 분이 나중에 살아나셨다 하면 말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상황이 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소문을 자꾸 전해줍니다. 왜 이런 소문을 자기 선생님께 전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이죠.

경쟁의식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김은옥)

있을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비하면 늦게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후배잖아요. 친척관계로 따지면 6개월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물러가고 예수님에게서 나는 소문은 너무너무 놀라운 소문이 퍼져나가고 이러니까 시기심이나 경쟁의식이 전혀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런 걸 다 전해주죠. 그러면서 속으로 한 마디, '선생님도 뭔가 한 건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때 요한이 뭐하고 있었겠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요 예수님과 어떤 경쟁의식을... 하긴 뭐 요한에게 그런 것 전혀 없었으니까. 경쟁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사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요부분을 읽을 테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 말의 요지를 한번 정돈해 보세요. '나로 인해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아주 짧막하게 요약하면 무슨 뜻이 되죠?

내가 그다. (이명희)

내가 그다? 그만 고치면?

메시아다. (배홍희)

맞습니다. 내가 메시아란 말이죠. 간단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요? 간접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표현한 이 방식을 잘 보세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에게 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가난해요? 어디 아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우리하고 복음하고 별관계가 없어지나요? 근본적으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계가 없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야 하고 우리도요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자꾸 쏟고 정말 소외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요한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요한이라고 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사에 슈퍼맨처럼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잘 한 번 보세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만능인이 되거나 전지전능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들리는 소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찌면 기대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힘을 펼쳐서 나라를 회복하고 옥에 갇힌 자기를 구해내고 이런 걸 기대했을지도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봤더라는 얘깁니다.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요즘 사이비 예수가 참 많거든요. 옛날도 많죠. 그 사이비 예수들이 하는 이야기와 이 예수님 대답과의 차이가 뭐겠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이비들이 참 많아요. 그 사이비들과 예수님의 이 대답의 근본적인 차이는? 뻔하잖아요. 사이비는 자기가 메시아다 그래서 증거 대라 그러면 증거 대죠, 월로? 주로 교묘한 말장난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해서 전부 팔에 줄로 묶어서 교주를 따라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주님만 데려가고 우리는 안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 줄로 다 묶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안 오시더라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내려왔게?

내가 조금 더 많은 중생들을... (임인규)

그때 그 팀들이 남긴 이야기는 천국에서 급히 전보가 왔는데 연기됐다 하더라. (쪽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배홍희)

희한하죠. 어떤 말을 둘러대든지 둘러대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말장난하다시피 나갈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어요? 아, 이 말씀도 물론 구약에, 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었던 부분을 인용했으니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용은 아니예요. 인용보다 더 확실한 것?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증명해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보다 실제로 귀머거리가 듣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힘 있는 사이비들도 그렇게 했습니까? (임인규)

힘 있는 사이비들도 조금은. 네 맞아요. 조금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다 이 당시 상황에서는 주변에 저희 나라에서는 (임인규)

그래서 저 뒤쪽 나가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노력이 물론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 같은 거 하나 일어나면 우와 하고 뛰지 말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이의 안 달고 다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최소한 세 개 정도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표현 두 개, 긍정적인 표현 한 개. 뭐가 아니다, 두 개, 세례 요한은 뭐가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임인규)

그 당시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많았나보죠? (웃음) 예를 들어서?

바람에 안 흔들리는 갈대가 있어요? (배홍희)

그것도 앉아서 바람에 안 흔들리는 갈대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돼요. (쪽소)

그 당시 시대가 이방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런 시대거든요. 시대가 안정되지 못한 때일수록 지조 있는 사람은 위험해요. 원리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그러면 이럴 때 출세를 잘하려면? 원칙대로 살면 안돼요. 바람 부는 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잘 맞춰가야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광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정치계에도 있고 종교계에도 있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당장 봐요.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될 건데 해룻의 잘못을 끈이끈대로 책망하다가 죽었거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왕의 잘못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바위.

바위? 사철나무. 상록수.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록수. 넘어갑시다. 두 번째?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는 사람도 아니다. (박진순)

예. 그런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죠?

왕궁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재력가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요한은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 (배홍희)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예요?

좋은 사람. (배홍희)

좋은 사람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예수님의 표현은 그래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극찬을 합니다. 자기 표현이니깐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싶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깐 그래서 그런 거냐 이 말이죠.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배홍희)

정말 위대한 사명을 띠고 온 거 맞아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위대한 사람인 건 틀림없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요. 요즘은 그런 거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 길에 약장사를 참 많았어요. 두들기고 보여준다고 난리치고 이거 다음에 뭐 보여주겠습니까 하고 사람 많이 끌어 모아 열심히 뭔가를 해요. 온갖 마술도 다 하고... 길에 있는 약장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보여준다고 떠들어도 결국은 뭐하는데요? 약 팔죠. 서무과장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면요 온갖 좋은 얘기 나와도 결국은 돈 내라죠. 학교선생님이 아무리 그래봐도 결국은요 열심히 공부하라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긴 얘기 많이 합니다. 끝에 가 보면 뭐예요?

날 믿으라. (임인규) (웃음)

날 믿으라. 어디 있는데? 이럴 때는 본문을 보다가 이거다 해서 집어내야 하는데 만날 평소실력으로 두들겨 잡을 생각만 하고...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이 표현이 붙어있죠. 그러면 요한을 팡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임인규)

요한을 그렇게 극찬을 해놓고 왜 또 거꾸로 팡아내려 버리냐 이 말이에요. 절대 팡아내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이까지 읽으면 안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렇게 위대한 요한보다는 더 크다는 말이죠.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한 마디 더 붙인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요 세례 요한 칭찬 실컷 하고도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나 거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나 예수님은 결론을 그쪽으로 이어나갑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렸어요. (배홍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이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은 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구요. 말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배홍희)  
하나님께 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몰라요? (배홍희)  
모르겠어요. 너 나에게 언제 기도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보죠? (배홍희)

그럴 수 있겠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새벽기도요.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 나갔습니다. 왜? 그 소리할라고.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갔다. 나 대단하지? 이 소리 하려고 죽어도 결석 못한다고 1년을 꼬박 채운 사람 있어요. 맞아요? 나 성경 백독했다. 대단하죠. 성경 왜 읽었어요? 백독했다고 말하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헌금요? 늘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이냐? 아니면 남들도 하는데 나도 요정도는 해야지 남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할 수 있느냐. 눈치코치 봐가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늘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하기는 실컷 하고 드리긴 많이 드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받은 적 없다. 이러실 가능성이 많죠.

기사도 왔으니 좀 빨리 나가야 하는데 모시러 왔을까? 그래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 빨리 쫓아왔을까? (모두웃음)

장터놀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비유는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했을까요? 장터에서.

소꿉놀이. (임인규)

소꿉놀이할 때 피리 불어요? “야 우리가 피리 부는데 너 왜 춤 안 추니?” 이걸 무슨 놀이일까?

잔치집 놀이. (배홍희)

잔치홍내를 안 냈었어요. 잔치 중에 “야, 우리는 악기를 불 테니까 너희는 춤을 춰라” 서양 같으면 무슨 무도회를 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잔치 홍내를 낸 것 같구요. 또 하나요?

장례. (임인규)

맞아요. 우리가 애곡을 할 테니까 너희는 울어라. 그런 놀이가 있어요. 무슨 이런 놀이를 하노. 옛날에 기타곡 있잖아요. 금지된 장난이라는 거요. 아름답죠. 가사가 ‘하늘은 푸르게 개이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가사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금지된 장난이 뭘까?’ 야들이 무슨 연애를 하는가보다. 그래서 로망스라는 기타곡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간에 무슨 연애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영화를 보니까 그게 아이데. 장례 이야기더라구요. 거기에 금지된 장난이란, 전쟁 중에 어른들이 시체 갖다 파묻는 그런 무덤과 관련된 그 놀이더라구요. 거기에 나오는 곡이더라구요. 이런 사실에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애들은 이상해요. 장터에서 뭐하고 노느냐 하니까 ‘우리는 애고애고 할 테니까 너희는 울어라!’ 하고 노는데 애들이 장단을 안 맞추는 거죠. 여기에 잔치놀이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 (임인규)

예수님 맞아요. 그 다음 장례식 놀이에는 누가 해당이 되죠?

요한.

요한을 언급하는 두 애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놀자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깐 예를 들면 “우리가 피리 부는데 너희 왜 춤 안 추니?” 이 정도로 꾸중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더 나빠요. 예수님이나 요한이 와서 놀자 하는데 이 어른들은 이 아이들보다 더 나빠요. 아이들은 놀자 하는데 장단을 안 맞춰줬어요. 이 어른들은 장단을 안 맞추면 걸 넘어서 오히려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자 하니까 호응은 안 하고 비실비실 웃고만 있었다 이 정도인데요. 이 어른들은 놀자 하니까 도로 때려치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놓고 끝에 보니까 어려운 말이 하나 붙어있어요.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말 어렵다 그죠. 지혜가 무슨 자녀가 있고... 지혜의 자녀가 뭘까요? 이 말하고 의미가 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말이에요. 가령 ‘나무는 열매로 아느니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보면 지혜의 모든 자녀라고 말할 때 자녀가 뭘겠어요? 여기에 자녀라는 거는요 아까 나무에 비한다면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모든 결과를 보면 이 지혜가 옳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나 요한이 한 일이 오히려 옳은 것이더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빨리하고 마칠게요. 공부하는 애들도 보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거만 잘 외우는 놈들 있어요. 참 특이한 경우인데.

집사님이시죠? (임인규)

물론 그도 집사죠. 우리 집에 집사 많아요. 흥 집사만해도 자그마치 대여섯이니까. 그런데 애는 학교 시험을 치면 점수는 엉망진창인데요 어느 집 결혼기념일, 누구 생일 이런 거 참 잘 알아요. 어느 집은 부부사이에 나이 몇 살 차이이고... 나도 모르는 내 친구 집에 가서 밥 잘 얻어먹고 돌아다녀요. 그런데는 도가 튀었는데 공부는 잘 안 되더라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있죠. 이 사람도 비슷해요. 알아야 될 건 잘 모르고 엉뚱한 것은 아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임인규)

이 여자가 문제 있는 여자라는 거 이런 거는 대번에 알아요. 모르고 있는 건 뭔데?

예수님이 문제없는 분이라는 거. (임인규)

아. 그건 모르는 거다. 맞아요. 그것 말고? 진짜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것? 손님을 모셔다 놓고 나중에 예수님 표현을 한 번 보세요. 손님을 모셔왔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집 주인이 안 했다는 얘깁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안한 거 아니예요? (김은옥)

그럴 수도 있죠. 의도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손님을 모셔놓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짓은 안 하고 엉뚱한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잘 알아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 가만있지는 않을 텐데 이려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불순한 의도나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거나 대접하려고 모셔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자가 좀 이상 안 해요? 여기 와서 이런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여자에게 아마 한이 많이 맺혀 있었을 겁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일단 죄인이라 찍히면요 아무도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유대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찍혀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피해버리면요 그거 고통스러울까요? 괜찮을까요? 왕따의 서러움을 아시나요? 아무도 상대 안 하면 나 혼자 가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입을 열심히 떠던 사람이 입 못 떠다고 저렇게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떠는 것 보면요 입 다물고 못살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왕따 같이 따돌려버리고 살았던 사람은 그러면 입 꼭 다물고 살기 어려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맺힌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라는 메시야가 오셨단다. 그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 얘기가요 귀에 솔깃한 얘기가 하나 들리죠.

죄인도 사하여 주신단다. (배홍희)

나는 그보다 그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이 얘기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다 하고 들고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맺힌 한이나 이런 걸 예수님께로 와서 푸는지도 모르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요. 이 여자의 죄가 사해진 거는 뭐 때문이죠? 이 여자의 죄는 왜 사하여졌죠? 이 여인이 사함을 받은 이유가 뭐난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와졌다. 아니면 행함으로 의로와졌다. 이런 것처럼요 이 여자는 뭐, 뭐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

37절에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사하여줬기 때문에. (배홍희)

예수님이 사하여줬기 때문에 사하여졌다. 예수님이 왜 사하여줬죠?

불쌍하니까. (임인규)

불쌍하면 다 사하여줘요?

빛진 자 비유처럼... (임인규)

예수님이 47절에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는 말을 하는데도 왜 자꾸 다른 얘기해요?

저의 사랑함이 많다는 얘기가 뭐예요? (배홍희)

이는 뭐뭐라는 것은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사랑함이 많다는 것이 어떤 사랑이예요? (배홍희)

여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 씻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것. 앞에 행동들.

제 생각에는 그런 행위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었는지, 읽었는지 기억이 나는 게 이 여자가 아마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고 먼저 용서함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닐까? (김은옥)

증거가 있어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조금 사랑하고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임인규)

그렇지요. 뒤집으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이 말을 뒤집어버리면요 이 여자는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보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뒤에 달란

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하고 연결시켜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탕감했다고 그러잖아요. 탕감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탕감한 게 아니예요. 주인이 불쌍하다고 탕감시켜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다른 한마디가 뭐냐 하면 50절 끝에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그게 예수님 보기에 사실은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여자가 자기가 죄인인데 그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옥합을 들고 온 건 아닌 거 맞죠? 조건부로 온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그 밑바탕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내게 맺힌 이 한을 다 풀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사함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거꾸로 해석하면 이런 현상이 돼요. “봐라, 예수님에게 이런 소중한 것을 바치고 이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그렇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는 뜻이죠. 여기서 매듭을 지읍시다.

중요한 거는 이 여자는 그런 어떤 불쌍하고 죄 많다고 지적을 받고 스스로도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서 큰 사랑이 주어지는 반면에 거기서 눈 이렇게 뜨고 보고 있는 이상한 사람 있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지가 무슨 재주로 죄를 사한다 할꼬” 이렇게 도끼는 뜨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하필이면 또 시몬이고. 시몬이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올까? 시몬이 꽤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아나니아가 몇 사람이냐고 물은 거 있죠? 어제 아래 성경 시험을 안 쳤겠어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치는 시험인데 아예 포기하고 있다가 애들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힌트를 얻어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교수는 참 교수더라. 아이들 가지고 있는, 성경공부한다고 가지고 있는 거는 용케 피해 가더라고. 한 친구가 그래요. “교수님들이 우리 이런 것 가지고 공부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 신경 안 쓰고 성경에 중요하다고 했는 것 문제 내면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모하게 그것은 다 피해가지고 문제 내놨더라고요” 시험치고 나면 60점만 통과하면 되는데... 나는 통과시켜줘도 그만 아니면 뭐... 늘 노래부르는 게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은 여러 번 떨어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유리하다. 그래서 성경고사도 꼭 그와 같다. 네 번의 기회가 있는데 초장에 붙어버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성경 안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장에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붙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합격시켜준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심정으로 시험을 치는데 시험치고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야, 내 58점 아니면 59점 같다.” 이려고 있는데 저녁에 한 방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문제집을 구해 왔어요. “집사님, 채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두 종류예요. 쉬운 쪽, 어려운 쪽. 쉬운 쪽은 50문제인데 성경의 내용들을 알면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두 개 틀려서 48점. 이쪽 시험지 50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 내놓고 어느 성경 몇 장이냐? 몇 절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 몇 장이냐 그것만 쓰면 되는데 이게 약 한 5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알고 쓴 게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만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퀴즈대회 같은데 가서 웬만큼 들으면 아 저거 어느 성경. 이 정도는 갈 수 있는데 다 낯설어, 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어 실력을 발휘해서 빵구때우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팔호 메꾸기인데 팔호 메꾸기도 내가 워낙 많이 봐서 웬만한 거는 좀 넣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때웠는데 모조리 다 낯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세 글자짜리가 세 개가 연속이 되어 있는데 무슨 적, 무슨 적, 무슨 적.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끝에 것은 팔호가 세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적? 아, 세상적. 이 앞에 거는 마귀적. 대충 끼워보니까 그럴 것 같다 싶어서 세상적, 마귀적 그래봤는데 나와서 찾아보니까 바뀌 봤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맞추면 잘 하면 열 개는 맞겠다. 이라고 나왔죠. 심지어 어린양과 신부.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같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써봤는데 신부? 신부? 요한복음에는 신부가 잘 안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계시록이다. 계시록인데 신부가 나오고 어린양 나오는 거 보니까 계시록 뒤쪽이다. 그래서 계시록 22라고 써야 하는데 21이라고 썼단 말이야. (모두 폭소)

그걸 따로따로 매기는 거예요. 계시록 했으니까 1점, 22장 그러면 1점. 그래서 그것 하나. 내가 ‘신부’라는 말 때문에 요한복음 쓸려다가 계시록으로 고쳤다. 나와 보니까 이게 맞았어. 그래서 이게 48점이 나왔으니까 60점이 되려면 12점이면 되는 거라. 50문항 중에 12점만 나오면 되는 거라. 그런데 어째 이렇게 끼워 맞추어서 했는데 이거 12점은 안 되겠고 9점이나 10점쯤 되겠다. 이라고 있는데 틀리는 희소식이 뭐냐 하니까 세상적, 마귀적 자리바꿈을 맞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폭소)

그래서 저녁에 맞춰보다 보니까 59점, 아니면 60점 둘 중에 하나. 에이 안 되면 잊어버리고 할인데... 이 잡담을 하면서 ‘아 성경을 대충 어느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겠다’는 것을 요약본을 해서 다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인제 드는 거예요. 다음 번 시험칠 때까지 한 번 해야 되겠다. 그 시험 통과 못해서 졸업 못하면 강제 휴학. 학교 참 재미있어요. 점수가 안 되거나 몇 개가 통과 안 되면 강제 휴학이 있어. 일반대학하고 다른 점이 공납금은 안 내고 학교는 와서 기숙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날린 학점만

열심히 듣고 그 안에서 공부만 하고 1년간 휴학을 해야 된대, 무조건 다. 재미있는 학교야. 그러다가 확실하게 웃으면서 쓴 게 뭐냐 하면 아나니아. 성경에 아나니아가 몇 사람 있지요? 그런 문제들은 신나게 잘 해봐 놓고 47점 아니면 48점 이래 놓고 여기 와서는... 완전히 여담입니다. 그만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 위해 고생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명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누가복음 8 장

제가 오늘은 질문할 걸 이만큼 적어 왔는데요? (한승창)

그래요? 그러면 질문부터 받고 시작해 볼까요? 8장의 질문을 있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씨 뿌리는 데에 길가하고 바위하고... 그런데 씨가 자라지 않는, 길가에서는 밟히고 새들이 집어가고... 바위에는 마르고 시들고... 자라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승창)

닫혀 있으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설명을 할 때 길가에는 사람들에게 밟히기 때문에, 집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그게 이해가 안돼요. (한승창)

마태복음에는 뺏고다고. (김현수)

그건 뭐 길가에 떨어진 걸 참새가 쪼아먹고 하는 게 결국은 사탄이 방해로 놓는 그런 경우죠. 그게 왜 이해가 안돼요?

일단 그 상태가... 사람은 다 악하잖아요. 악한데 말씀이 떨어지면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하면. (한승창)

그런 곳에 떨어지면 결실치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악한 사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승창)

당장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복음을 듣고도 안 받아 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승창)

그런데 그 많은 씨 중에 예를 들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씨는 왜 안 보고 우짜다가(어떻게 하다보니/ 텅겨/튀어) 나간 씨, 그걸 자꾸 봐요?

좋은 땅이니까, 자란다 하니까 저는 할말은 없는데 이런 땅에는 안 자란다 하니까... (한승창)

안 자랄 수밖에요.

이건 비유잖아요. 땅에 대한 비유지. 사람으로 치면은 저는 말씀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승창)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이 복잡한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단순히 마음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한승창)

아,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한승창)

그 얘기 아닌가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에게 동시에 말씀이 떨어지면 택한 백성들 사이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있지만 택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닫혀져 있잖아요 이미. 그 얘기 아닌가요? (윤수현)

거기서 또 택한 백성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 아파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길 때에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작은 노력이 필요해요. 문 여는 거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열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김현수)

능력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승창)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건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지마는 안 받아 들이려고 문을 굳게 닫아 놓은 상태 같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닫아지면 어쩔 수 없다? (한승창)

그렇지. 로마서에 내버려두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 표현을 생각하면 돼. (이명희)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잘못 돌려버리면은... (한승창)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사람과 관련된 일은 자신의 뜻대로 임의로 하시기보다는 늘 사람과 동역하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이 씨 뿌렸을 때에 그걸 안 받아

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실이 없다는 얘기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들어오는 겁니까? (한승창)

그래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뭐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그걸 우리 문 앞에까지 갖다 놔는데 날보고 문이라도 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문을 여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 공로라 하면 할 말이 없고 없는데 이런 선물을 받는데 그걸 내가 공헌한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일이 되도록 다 되어 있는, 받아들이는 이 일,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이 역할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씀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승창)

99.99%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0.01% 그건 니가 하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래 놓고 야 잘했다 하면서 왕창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니가 믿었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다라고 말하지마는 실제 내용상 들어가면 사람이 한 게 아무 것도 없죠.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받아들이는 게... (한승창)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바로 그 0.01% 조그마한 그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라는 게 내 공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마어마한 일을 다 해놨는데 나는 그냥 문을 여니까 그대로 안으로 도로록 하고 굴러떨어진 정도밖에 안돼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그 행위가 결코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웬 딸기예요? (임인규)

늦게 온 사람은 쓸데없는 질문하기 없기, 먹기는 있다.

설교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말씀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말씀이 사람에,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나?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 (한승창)

승창이는 말씀의 능력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데 일리는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의 능력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문을 우리 스스로 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니, 어쩌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온갖 쪽(부끄러움, 수치)을 다 팔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큰 주제에 초점을 안 두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조그마한 귀퉁이를 자꾸 물고 늘어지면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지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고 함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아주 조금은 남겨 두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제자가 많아요. (한승창)

많아요? 열둘 할 줄 알았는데.

어, 찢려. (윤수현)

대표로 부른 제자가 열둘이고요 실제로는 몇 명쯤 될까요? 혹시 숫자로 나온 데가 있나요?

백이십 명. (임인규)

백이십 명이 모였던 적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경우가 있는데?

칠십 명. (임인규)

백이십 명보다 더 크다 했는데...

오백 명. (이명희)

떡 먹었을 때? (임인규)

아니. (이명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일시에 오백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열둘을 불렀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중에 또 누가 있다?

여자도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옛날에 여자는 사람 취급이 좀 잘 안됐거든요. 지금은 참 좋은 때 우리가 나 있는 겁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유대역사책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전쟁이 없는 이런 때에 나 있다는 게 대단한 복입니다. 감사해

야 돼요. 제자 중에 이런 여자들도 있었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중에 제일 좀 친한 여자라고 할 것 같으면?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 좀 귀부인이라 할 것 같으면요? 요안나인데 직책이 여기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돼있다 그죠?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 집사님. (임인규)

헤롯의 관리 집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전에 왜 김영삼 대통령 집에 집사 한 사람이 몇 억인가 뇌물 받았다가 감옥 갔던 일 있잖아요 청와대에 따라갔다가. 몰라요? 단순한 관리인입니다.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고 집안 일 봐주다가 이 사람이 청와대까지 따라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한테 뭐 뇌물을 몇 억씩 갖다 줘요? 대단한 권력이란 뜻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청지기 그러니까 그냥 집안 일 봐주는 집사쯤 되는데. 왕의 집안 일을 봐주는 사람이요 아주 높은 권력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니까 요안나는 아주 대단한 귀부인이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장관부인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그 당시에 쉽게 대외활동이나 이런 곳에 필 수 없던 여자들도 있었구요 이 여자들이 뒤에서 아주 후원을 많이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친한 여자들도 있었고 귀부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마 온갖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모양이죠. 보편성의 원리라 할까? 그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했던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더 정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정돈은 간략하게 하고 이런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발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친구 한 명 전도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주일만 되면 놀러 가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참 핑계가 많은 친구가 있어요. 요번에는 됐다 싶었는데 “야, 다음 주 시험이잖아” 이런 친구는 어떤 발에 해당이 될까요?

길가.

길가에 떨어진 씨.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교회생활하기가 쉬워요. 학교는 일종의 온실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현실세계가 참 냉혹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갔다 치면요 더하지요. 일단 취직을 해놓으면요 참 장애도 많고 눈치 볼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학교 다닐 때 학교선생님한테 매 맞고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진짜 장애문제가 걸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그대로 계속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것도 길가라? 길가에는 아예 싹도 안 났지요. 어쨌든 신앙생활은 해보고 싶은데 하려니까 참 걸거치는/거리적거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해 있다가 결국은 별 열매를 못 맺는 형국이 돼버리죠.

들밭.

들밭요? 이런 경우는 가시떨기라 하면 좋겠어요. 싹이 나긴 났지만 외부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니까. 또 하나 해봅시다. 옛날 우리 수련회는 보통 6박 7일씩 했거든요. 그런데 그 6박 7일 하는 수련회를 20회 가량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딱 짓 안하구요 죽으나 사나 공부만 했지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수련회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게 대학부 공부 조장 정도 했는 게 유일합니다. 하도 내가 옛날 공책을 들고 공부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젊은 친구가 “집사님 이거 언제 됩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한 번 보자” 하고 뒤에 펴보니까 ‘제34회 동기수양회 2조 명단’이라고 명단이 적혀 있는데 그중에 이 친구들이 알만한 목사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송길원 목사. 지금 우리나라 가정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내가 조장을 맡았던 그 조원 명단에 적혀 있으니 기절을 하는 거예요. ‘우와’ 대학부 조장이라는 거는 공부에 지장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4학년 때 불들려서 일을 좀 해주고 나왔죠.

나는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게 많았으니까 뒷바라지를 좀 해주고 나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수련회 준비위원장 맡아서 제가 뛰다가 임원들이 일하는 거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임원들을 전부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양회에서 내 공부만 하다가 이제 불들려서 뒤치다꺼리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다. 그런데 대학교 금방 들어와서 수양회 임원을 맡아서 도와주는 거는 고마운데 수양회 임원한다고 뒤에서 뒤치다꺼리만 몇 년 해주고 지내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 자기가 성장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남 뒤에서 열심히 일만 해주는 사람은 언젠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하고 공부 시간은 철저히 들어가라 절대 소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신신당부하고 왔는데 나중에 후배들 이야기가 그때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그죠?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고 실제로 자기가 성장해야 하는 일에 동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걸 씨에 비유하면 이게 바위에 떨어진 씨가 됩니다. 바위에 떨어지면 싹이 나나요? 실제로 바위

에 떨어지면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여기 표현이 약간 다른데, 마태복음 가서 대조를 해보면 풀밭이라고 되어있어요. 풀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약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고 약간 달라요. 그런데는 싹은 나겠지마는 그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기 때문에 이내 스스로 허물어져요.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자기는 자라고 싶은데 위가 막혀서 못 자라는 거지만 이런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나더라도 스스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일 열심히 한다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도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날 보면은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픽 쓰러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는데도요 그런데도 뭔가 미심쩍으면서 분명치 않아요. 이 비유의 제목이 여러 종류의 밭이예요? 아니면 씨 뿌리는 비유일까요? 어느 게 옳을 것 같아요?

뿌렸더니 다 자라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임인규)

밭이죠. (김은옥)

그러면 제목을 붙여보세요. ‘여러 종류의 밭?’ ‘밭의 종류?’ 일단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많이 들은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로 많이 들은 설교는 관심이 밭이더라구요.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 관심은 밭.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이 비유가 밭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좋은 밭이 됩시다. (임인규)

그렇죠. 씨에 관심을 두면요?

나쁜 안 나쁜 열심히 뿌립시다. 좋은 밭에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임인규)

씨에 관심을 두면 그렇게 되나요? 이걸 본문하고 영 관계없는 것 같아요. 씨에 관심을 두게 되면 결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골라야 한다.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죠.

씨는 좋은 것이다. (임인규)

하기야 가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걸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사람. (김은옥)

예. 씨 뿌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밭에 기회를 준다. (김은옥)

모든 밭에 기회를 준다구요? 풀밭에도 이왕지사 싹은 안 나겠지마는 풀밭에도 관심을 두고 뿌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뿌리다보니까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뿌려라. (임인규)

이게 감 잡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씨 뿌리는 것하고 어디하고 내용이 같으나 하면 8장 1절하고 같아요.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할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일이 곧 뭐하고 똑같으나 씨 뿌리는 것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사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 여겨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요 비록 싹이 안 나는 씨가 있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더러는 열매를... (임인규)

더러는 열매를 맺어요? 이상한 동무네. (웃음)

더러는 안 맺지만 더러는 맺는다. (임인규)

밭이 여러 종류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씨를 뿌렸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 결실을 합니다. 씨 뿌리면 어디에 많이 떨어지는데? 전부 밭에 떨어지잖아요. 길에 떨어지는 것하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은 전체에 비하면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싸워가며, 압박을 받아가며, 고향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싹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쪼아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봐요.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라고 말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김은옥)

그렇죠.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라 하면 정말 쉬워요. 쉽지만은 그러나 그 쪽보다는 예수님께서

는 열심히 뿌린다. 그러다보면 튕겨나가는 게 더러더러 있고 하겠지마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 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말하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결실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은사다 이런 게 아니고 천국 비유니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면 진짜 천국에 사는 백성 처럼 천국을 누리다는 거죠. (한승창)

생활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결실한 거다. 천국을 어떻게 누리죠?

만약에 백성이라면 말씀이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한승창)

좋은 표현인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좋은 표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걸 보통 쉽게 알아듣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에 결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게 결실이라고 눈을 거기에 너무 돌리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묻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결실이 뭐고 열매가 뭐냐 하면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이걸 자꾸 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실의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다시 돌아오면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이거 뭘데? 전도나 예배나 이런 건 뭘데요? 그렇게 누리게 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그 결과만 자꾸 강요를 해대면요 이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다라는 점을 기억해둡시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었을 때에 씨를 뿌릴 때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예배에 은혜가 없다면가... (윤수현)

그것하고 씨 뿌리는 것과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건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합시다.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10절.

맞아요. 비유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비유를 쓰는 거죠. 비유를 잘 쓰면 어려운 것도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요. 알아듣는 사람은 잘 알아듣게 하고 반면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게 하는데 더 유용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쓰신 것 중에는요 아는 사람은 더 잘 알고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못 들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 안에 있나요? 18절 어때요? 끝에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하는데 이거 공평한 말이에요? 불공평한 말이에요? 실제로는 없는데 괜히 지(자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것까지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자는 비유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고... (김은옥)

비유하고는 훨씬 많이 지났는데요.

아까 비유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없는 자는 있는 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그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막상 왔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을 거절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은옥)

이 경우는 꼭 그 경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에 다 안 맞아요.

아는 사람은 듣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하고 모르는 사람은 엉뚱하게 해석하면서도 엉뚱한 데 가면서 나중에 이상하다 이러면서... (임인규)

아무 생각없이 이 말을 보면 아 이거 말이 이상하다 싶지마는 가만히 보면 대단히 많은 곳에서 이거 진리입니다.

제 생각은 있는 줄 아는 것이 육적으로 어떤 후손들이잖아요. 그것까지 없이 한다 그렇게... (한승창)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를 자꾸 집어넣지 말고 쉽게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해 아는 바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별 것 아닌데도 감격을 해서 감동을 하고 있는데 뼈뺀 사람은 감격은커녕 트집만 잡고 투덜대고 나오는 거죠. 음악회에 갔어요. 음악을 아는 사람으요 감격하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잠만 자는 거죠. 이게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어야 할 때가 많아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수업시간 중에 눈이 말뚱말뚱해서 잘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요 그나마 안 하는 사람은 그것마저 안 하는 거죠. 이런 표현 어떨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다 싶은 말인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없는 자는 그냥 빼앗기리라고 아니고 그 있는 줄 아는 거 그것은 뭐예요? (김은옥)

실제로 없는 거죠. 실제로 조금 있어도 뺏기고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데 착각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뺏길 거도 없죠.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중요한 거는 뭐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거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뭘까? 별로 거기에 집착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에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음악을 좋아해서 내가 판을 사 모은 게 몇 장이나 이걸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책 수집하듯이 레코드판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명답은 이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판이 몇 장이나 그걸로 말하는 거죠. 판을 몇 백장 모았느냐 그게 음악애호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판이 몇 장이나. 그게 많아야 진짜 애호가 되는 거죠. 똑같은 곡을 반복해서 듣는 그게 몇 장이나. 이러면 어지간한 애호가는 없어질 겁니다. 보통 판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약간 엉터리 애호가 많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맛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게 뭐다라는 거. 예를 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한 번 누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계속되면서 기쁨 속에 사는 거죠. 천국의 특성 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특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있는 이 천국의 비유를 풀어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로 인해서 풍성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천국의 복음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비유로 나온 게 등불 비유죠.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온천하에 복음이 드러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아파뻬던 18절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게 아마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천국복음이 참 좋은 겁니다. 씨로 말하면 참 좋은 씨기 때문에 풍성한 결과가 맺어지고요 이게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맛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천국이 참 소중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어요. 모처럼 찾아온 엄마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발언을 해도 되나요? 예수님이 효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한쪽으로 보면 효자인데... (한승창)

한쪽으로 보면 효자인데 한쪽으로 보면 효자 아니다? 옛날 운동권 아이들 모양으로 “어머니, 지금은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 팽개치고 그러다가 죽고 난 후에 그 엄마들이 아들의 뒤를 이어서 투사가 되는 그런 예가 더러 있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엄마를 생각해준 때가 있었나요? 언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엄마를 부탁한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부탁한 거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불효자는 아닌 것 같다 그죠?

혹시 짐이 부요했으니까. (임인규) (쪽소)

웃고 넘어가도 되죠?

그 상황이요. 예수님의 형제가 없었어요? (한승창)

십자가 밑에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타나 있으니까.

보통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한테 부탁하잖아요. (한승창)

그런데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죠. 예수님이 모친이나 형제를 냉대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겠느냐는 거죠. 모친을 안 만나고 돌려보냈겠어요? 그 뒷얘기를 기록 안 해놨을 뿐인데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결국은요 육신적인 혈통보다 사실은 영적인 형제가 더욱 소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기회에 강조하시려는 의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불효자였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할 것 또 있어요? 자, 그래서 배타고 넘어갑니다. 광풍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당하는 제자들이야 죽을 지경이지만요. 광 자가 무슨 광 자예요?

미칠 광.

미칠 광 자요? 그러면 광풍이 뭐야? 미친 바람? 제자들이야 죽을 지경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피곤하셨나봐요. 이럴 때 퍼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면서 애처롭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복음사역에 피곤하셨을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었겠지만 내가 볼 때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왜 재미있을까? 제자들은 전공이 뭔데?

어부.

어부였잖아. 예수님은 전공이 뭐였죠?

목수.

목수였잖아. 그래 이 판국에 누가 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부출신 제자들이 지금 광풍이 일어나서 못 하겠다 하고 누구한테 살려 달라하느냐 하면 목수출신 예수님을 보고 살려달라 하니깐 옷을 수 밖에요.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깨웠을까요?

그런데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지금 광풍을 맞아서 물도 들어오고 죽을판 살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한 곳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알립잖아요. 그런 심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김은옥)

미워 가지고? (웃음)

죽을 판국에 자다가 빠져죽으실랍니다... (임인규) (쪽소)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요 제자들이 뭐 별로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구중하시는 게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느 구절 때문에 그렇죠?

25절. 저가 뉘게... (윤수현)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별로 안 놀라던 제자들이요 이걸 굉장히 놀라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조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능력은 제자들이 보기에 대단한 거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왜 깨워? 목수출신인데.

배는 목수담당이니깐. (한승창)

배는 목수가 만든다? 바다에 일단 띄운 이상 목수하고 관계 있나요? 헛소리 그만하고... (웃음) 그래서 미친 바람에서 간신히 빠져나왔거든요. 육지에 올라왔더니 어? 이젠 또 미친 사람이네.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책도 나온 적이 있는데, 광인, 미친 사람이란 뜻이죠. 이 사람은 힘이 대단했던가봐요. 쇠사슬로 묶어봐도 끊어버리고 나갈 정도니까 괴력의 소유자였죠. 슈퍼맨정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슈퍼맨처럼 팔을 치켜들고 날아가거나 미키마우스처럼 그런 폼을 잡으면 안돼요. 힘은 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슈퍼맨 흉내 내면 안돼요. 왜?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임인규) (쪽소)

옷을 안 입었으니까? 맞아요. 격에 안 어울린다 그죠? 참 잘한다. 저 소리 나오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아무리 아는 게 많고 괴력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모양이 꼴사나울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괴력이 있었죠.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을 찾아보니까 로마의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군단' 그러면 여자들은 실감이 잘 안날 거예요. 군인들은 사단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일개 사단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 군인들 다 풀어놓으면 어디까지 휘어잡을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군단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개 군단이에요. 이름도 거창하고 힘도 대단하지만 어차피 그것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꼴은요 무덤에서 그냥 고향을 지르고... 타잔은 그래도 기본 매너도 있고 모양새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천하를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귀신은, 괴력의 소유자에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끄러운 인생일 뿐이죠. 그래서 내게 얼마만한 소유가 있고 내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소유요? 누구에게 잡혀 살고 있느냐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귀신이 돼지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이 귀신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아! 감동적이다. 이런 기쁨이 먼저 오나요? 아니면 돼지때가 죽은 게 아깝나요? 이때 돼지가 이전 마리 정도 됐다 그래요. 돼지때 이전 마리 몰살했는 게 먼저 가슴에 와 닿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게 더 감동적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어요? (한승창)

플아가서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어, 이상하다. 아무 대답이 없어? 돼지 이전 마리가 아까워요? 이 한 사람이 참 잘됐다 싶어요?

예 (합창으로)

잘됐다 싶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은 구원 받지만 돼지는 구원 못 받잖아요. (한승창) (웃음)

너무 많이 알아. 돼지 이전 마리면 그게 어디야? 한 마리 요즘 얼마하지?

좋아요. 돼지라고 안 그러니까 넘어가겠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돼지 이전 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그거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 생활에서도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누구와 싸우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돼지 이전 마리를 차라리 죽이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종종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하나 잘못해서 애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그럴 바에야 돼지 이천 마리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안 먹으니깐 당연히 돼지를 키우지도 않죠. 그런데 이 근처에서 돼지 이천 마리나 키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성분이 좀 불량한 사람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어떤 징계의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미국 가면요 나도 물론 들은 얘기지만 유대인들의 율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조리방법과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입니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받은 상표가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상점에서 안심하고 사먹어요. 다른 음식은 합부로 사먹지 않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 맞아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거라사 사람들이 귀신들린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왜? 힘도 세고 좌우간 조심해야 돼요. 붙들렀다 하면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한방에... 무서운 거 맞죠? 유대인들은요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차이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거나 이런 일을 볼 때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어쨌든 선지자거나 메시아거나 자기들 편이라고 여기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에서는 전혀 두려워 안 하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무당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래서 무서워했나요? (윤수현)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과 생각이 약간 다르다 그죠? 아마 이 지역이 유대 땅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 쫓아내는 게 구약에도 나오니까? (임인규)

구약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신학교 갈려고 상담하러 오면 무조건 가지 말라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신학교 가서도 몇 년을 썩히니 그 동안 열심히 살아라. (임인규)

그러면 신학교 간 사람 몇 년씩 다 썩는 거예요?

다 신학교 갈 필요 없으니까. (임인규)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잘 해주어야지. 누가 들으면 큰일 날라.

신학교에서 몇 년 시간을 아깝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여건들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영역들 속에서 열심히 해라. (임인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반드시 신학교 가는 길만이 복음을 위한 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보란 뜻에서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목사가 가지 말라고 말려도 아무리 생각해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면 “이 놈의 자식,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가?” 이러나요? 아노, 그 때는 뒤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직장이나 여기에서도 정말 복음 들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저는 요런 소리 해싸면서도 도망을 간 이유가 또 안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직장 그 속에서도 복음 들고 증거하면서 사는 삶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죠? 39절에. 집으로 돌아가서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렇게 되어있죠.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서 배척을 받아 쫓겨나왔지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전하는 말은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포항시내에 유명했던 광패가 어느날 갑자기 사람이 해파닥 바뀌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면요. 아마 효과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잘 했나요 안 했나요?

잘 했어요. (임인규)

예수님께서 시키신 거는 뭔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이랬죠. 그런데 집에 안 가고 어디 갔어? 성에 갔다 그죠? 누가 한 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얘기 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하신 것을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지켰어요? 잘 안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한승창)

그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잘 지켰다. 나중에 공부용으로 문제를 냈으면 이런 차이를 발견하고 잘 지켰다고 했으면 2점, 그런 차이도 모르고 덮어놓고 잘 지켰다 하면 1점, 잘 안 지켰다 하면 0점. 자세히 보는 거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는 사탄의 얘기가 말이 된다 싶은 것도 무조건하고 안 들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 얘기를 참 잘 들었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때가 안됐더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나요? 그것 때문이 아닌가요? 아직 때가 안

된... (윤수현)

때가 안됐기 때문에 영영 멀해버리지는 않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앞의 것은 유혹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쪽같은 경우는... (임인규)

그렇지요. 사탄의 경우는 시험받을 때 뭐냐 하면 목적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미 행복했어요. 이미 행복한 상태에서 손발을 싹싹 빌면서 봐 달라는 거니까 이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왜 돼지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임인규)

글쎄요. 왜 돼지한테 갈려는지 그건 모르죠.

이게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는 것하고 익사해서... (한승창)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저갱이 뭐예요? (윤수현)

없을 무 자에 바닥 저 갯은 구멍 갯, 굴 갯? 바닥이 없는 굴이란 뜻인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다 이런 것보다 나중에 사탄이 갯혀야 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들어갈 때는 아니란 말이죠. 돼지때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몰살하게 되면 그 다음 귀신이 죽어버리나요?

물귀신이 되는 거죠. (임인규) (박장대소)

갑소사.

근대 귀신이 돼지 귀신 됐다가 그 다음에 물 귀신이 돼서... 자, 귀신 얘기 그만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가 옹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했으니깐 옹위가 뭐예요? 뻑뻑이 둘러싸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부딪힌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청와대 경호실 모양으로 경호요원이 붙은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부딪힌 사람이나 손댄 사람이 많을 텐데요. 왜 유독 이 여자 한 사람을 두고 '내한테 손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럴 알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몸에 손댄 것도 아니잖아요?

능력이 나가니까 돌발상황이... (임인규) (쪽소)

갑자가 막 하다가 힘이 쭉 빠지면 이런 것처럼...

맞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딪치고 만진 사람도 많았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의미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이 여자. 옷에 손만 댔어요. 심지어 바로 곁에 섰던 베드로조차도 눈치 채지 못한 이 작은 움직임이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딪치며 밀려가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깁니다. 예수님은 가끔가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많은 것보다가는 어떤 조그마한 것 하나에 감동을 하는 이런 예가 더러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노라고 하지만 가장 예수님께 의미 있는 것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바치는 작은 것 하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눈은 아예 그런 곳을 향해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어떤 불행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좀 알아야 이 여자가 받은 복의 의미를 좀 알 수가 있겠죠. 남자들은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상처 나면 피가 안 멈추는 그런 거 아니예요? (한승창)

백혈병 아니예요? (윤수현)

백혈병하고는 다르고요.

피가 계속 흐르게 되면... (임인규)

그러면 상처만 안 나면 괜찮네 그죠? 여러분 생각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생리현상하고 비슷하게 하혈이 계속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했다 해도 이혼이예요. 정상적인 성생활이 안 된다는 뜻이예요. 그 정도라면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겠다 싶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성생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하면 법적으로도 이혼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끔 얘기 했으니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불결한 결과 취급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안돼요. 항상 불결한 여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자로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돼요. 다른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 잘못하면 뜰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십 몇 년 그랬으니깐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죠? 승창이 말대로 피가 흐르다가 안 멎는 상처다. 상처만 안 나면 탈없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취급을 못 받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랬던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을 고쳤으니 큰 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은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윤수현)

다른 복음서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여런 군대를 돌아다녔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승창)

물론이죠. 그래도 못 고치고 가산만 탕진했는데 질문의 요점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누가 손 댔느냐 하고 묻지 않았더라면 물은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윤수현)

모르면 어때요? 예수님 입장에서 꼭 이걸 밝히고 드러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더 복을 받았다면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병을 고쳤다는 것이 누구로부터인지 확실히 안다라는 거... (한승창)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쳐졌다는 걸 확실히 알 텐데요.

그러니까 옷이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그런 거 아닐까요? (한승창)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마디가 더 붙잖아요. 끝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 여기 봐요. 네 믿음이 병을 고쳤으니가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육체적인 병만 고치고 끝난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까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병 고쳐지는 것 이상으로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한 걸로 봐서 영적인 구원의 축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일면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누가 예수님을 무당처럼 생각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렇게 고쳐 나가버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어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무런 영적, 혹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확인하고 그러심으로 해서 이 여인과 어떤 영적인 교제까지도, 말하자면 이 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게 아닌 그런 경우를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서 의사노릇만 하겠다는 뜻이 아닌 거죠.

이때 이 여자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한승창)

똑같은 수는 없지만 일단 같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사실은 증거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그 여인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당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정도 같으면 유대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어른이거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자격도 없는 랍비거든요. 그것도 자기한테 비하면 젊었을지도 몰라요. 그 젊은 예수 앞에서 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딸 때문에. (임인규)

딸 때문에? 자식이 뭔지 몰라도요 자식 문제 걸리면 체면이고 신분이고 다 벗어던져 버릴 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가 비웃다니요? 꿇어 엎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체면을 던지고서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런 정도의 의미있는 존재입니다. 이 회당장이요 당장 뭘데? 답답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위대함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고요 그 딸 때문에 엎드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은 죽은 자기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은 거 아닙니다. 차근차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심리 변화라 할까 그 과정을 한번 찬찬히 훑어봅시다. 무남독녀 딸이 죽을병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은 결심을. 우리 얘기라고 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병에 걸렸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보겠다. (윤수현)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요즘 딱딱 뜨는 예수라는 젊은이가 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자. (임인규)

그냥 가자만 하면 안 어렵겠나? 아까 얘기한대로 체면이고 뭐고 다 접어놓고 가 봐야 되겠다.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다같이)

있었어요.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 왔을 때 사람들이 웃었거든요. 웃은 사람이 자기 집에 있었던 걸로 봐서 말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못된다. 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오는데 예수님의 걸음이 대단히 느립니다. 왜?

우리들이 하도 많아서. (임인규)

예. 우리들이 하도 많아서요.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

답답해서 미쳐요. (임인규)

초조하지. (윤수현)

조금이라도 빨리 갔으면 하는데 야, 누가 날 만졌나? 웬 여자가 나오더니 “제가...” 이러는 것을 보면서 회당장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

바빠 죽겠는데... (윤수현)

미운 여자. (임인규)

미운 여자하면 디게[야주] 점잔테이[점잔하다]. 툼 답답한가봐. 사람들 참 나쁜 게요 앰블런스가 앵앵거리는데도 차들이 잘 안 비켜 주더라고요. 사실은 운전하다 보면 저 뒤에서 소리는 안 들려도 불이 반짝이는 게 대번에 보여요. 뒤에 앰블런스가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빨리 비켜줘야지요. 사실은 뒤에 오기 전에 저 멀리서 번쩍거릴 때 이미 비킬 준비해서 비켜줘야 하는데 바로 뒤에 와서 앵앵거리는데도 안 비켜 주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앰블런스에 만약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실려 있고 보호자가 같이 옆에 있다면 그 차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욕하겠죠. (윤수현)

욕만 하고 말아요? 지금 회당장 마음이 안 그렇겠냐 이 말이야.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이려고 있는데 또 가다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획 돌아보면서 누가 만졌냐 하면 “아이고 예수님 마 누가 만졌건 말건 빨리 갑시다.” 하고 밀고 갈 가능성이 많은데 한참을 멈춰 서서 이야기를 했다 그죠? 어떤 여자가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는데 다 나았습니다. 하고 간증 비슷하게 하더라 말이죠. 그걸 보는 순간에 희망이 보인다 그죠? 짜증이 좀 나긴 냐고 바쁘긴 바쁘지만은 제대로 잘 왔겠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을 테구요. 그런데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죽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 끝났다. 또 한 마디 안하냐? “이 여자만 아니었어도 빨리 갔더라면 됐을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말고 믿기만 해라 집에 가자.” 하거든요. 야이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죽었는데 가면 뭐하노? (김현수)

혹시? (임인규)

혹시? 그런데 설마 죽었다는데 살린다고는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더니요 정말 간단하게 일으켜버린단 말이죠. 뭐라고?

일나라. (윤수현)

틀렸어요.

달리다굼.

본문에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정답?

아이야 일어나라.

옳지. 아이야 일어나라. 그냥 일나라 이게 아니고. 여기 아이야 일어나라는 게 가만 있어봐. 그걸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달리 다굼.

달리 다굼. 아니고?

달리다 굼

맞아요. 달리다 굼. ‘달리다’가 뭐예요? ‘소녀야’ 아니면 ‘일어나라’겠죠. ‘일어나라’는 게 ‘굼’이에요. 이 말이 노래 말에 쓰여서 잘 아는 말이 되었는데요. ‘달리다굼’ 이 말은 엄마가 아침에 잠자는 아이 깨울 때 쓰는 그 표현이래요. 우리식으로 하면요 ‘야야 일나라 학교 가야지’ 아까 수현 자매가 한 말이 결국 맞긴 맞는데 알고 그랬을까? 아니면 우짜다 보이 맞춘걸까? (일동 폭소)

그 말이 맞을 것 같죠?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했거든요. 자는 아이니까 어떻게 깨워요? ‘야야 일나라’ 완전히 잠자는 아이 깨우는 그 말 그 투 그대로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믿는다 그러잖아요. 모를 세울 때 보통 영화 보면 영원히 잠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이상한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잠들다. 잠들다라는... (한승창)

에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철저하게 기독교적이지는 않아요. 그게 짬뽕이 되기도 하고 의미가 약간 곡해되기도 하고 그 영원히라는 게 예수님 재림과는 상관없이 써졌겠죠.

신부님이 장례식으로 치르는 데도 그런 구절이 보이던 데요? (한승창)

여러 사람의 잘못된 가능성이 있네요. 신부는 신부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 영터리 신부일 수도 있고 재림을 믿지만 무심코 일반인이 하는 말을 따라 했을 수도 있고, 영화 만드는 감독이 그렇게 만든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원문을 우리말로 옮긴 번역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누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잠깐 잠드는 거죠.

미국 사람들 묘비명은 참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마누라 묘지에다가 '나는 이제 해방되었노라' 이런 식의 묘비명도 있다는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거는요 처가에서 들으면 때려 죽일 놈이라고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글을 묘비에 써도 싸움 안 난데요. 괜찮네? 웃고 만데요. 그런데 부인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미국 만화에 부인한테 시달리는 이야기가 만화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묘지에 그렇게 썼다고 시비를 걸지도 않으니 재미있고 재미있는 동네인가 봐요, 그건 잡소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다음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8장 얘기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어떤 훈련이나 확신을 주는, 훈련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야? 풍성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 이 복음이 역동적으로 뻗어나갈 것이라든가 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확실한 구세주임을 확신시키는 훈련과정이라고 보면 되요. 그러고도 남은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귀신들린 자에게는 고하라고 그러잖아요. 야이로의 딸 살린 것은 마지막에 말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는 알리라 하고 하나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지. (한승창)

아까 얘기대로 저쪽 얘기는 예수님께서 쫓겨나신, 대상이 이방인들이어서 예수님 이야기가 좀 퍼져 나가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유대인들에게 이거 말하지 마라고 하는 예는 굉장히 많아요. 주원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때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자기가 메시아 되심조차도 좀 물어두라고 당부했던 거죠. 물어두라 해도 사실은 안 물어졌어요. 또 질문 있어요?

아까 1%만 얘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승창)

결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비율을 0.00001%라고 낮췄는데도 그게 걸린단 말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헌한 바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채 로봇처럼 다루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노력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반응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는 '좋은 밭이 되라' 하잖아요? (한승창)

누가 그런 설교를 해서 이렇게 괴롭히냐?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냐 아니면 좋은 밭의 비유냐고 물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라 해놓고 결론은 '좋은 밭이 되라'니까 문제가 되긴 되네. 이 비유가 다음 장에 나오듯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록 싹이 나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가 더러 있긴 하겠지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러면 아주 자연스럽죠?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라' 이러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해도 문맥을 놓치면 절대 안돼요. 더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이용해서 말하는 경우는 더욱 두려운 겁니다. 됐죠?

예

## 누가복음 9 장

자, 시작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 임무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되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한 가지, 병 고치는 것 두 가지. (한승창)

예.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일이지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는 육적인 일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느 한쪽만 집중한 거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늘 같이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병을 고친다는 일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인 일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육적인 일은 좀 좌락시하나요? 노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소중한 것 아니고. (한승창)

소중한 것 아니고 필요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요 육체에 속한 일도 사실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밥 먹고 쉬는 이걸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니까 주일에 교회 봉사한다고 바쁘면요 굶는 건 아예 기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챙겨 먹으면 어딘가 모르게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싶어지고 오히려 먹는 것 신경 안 쓰고 쉬는 것 신경 안 쓰고 죽자고 뛰면 그런대로 신앙이 있어 보이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신앙이 좀더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지금 포르투갈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밥 챙겨 먹을 때 안 챙겨 먹고 잘 때 안 자고 뛰는 것은 일종의 간접 살인 죄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젊을 때 물불 안 가리고 한 번 뛰어보는 것도 한 때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 육체의 어떤 쾌락을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보존하고 오래도록 꾸준하게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육적인 일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쉴 줄도 알아야 하고요 먹어야 할 때 그렇다고 금식이 나쁘다가 아니고 금식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먹어야 할 때 먹어야 하는 것. 이런 일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정도로 기억을 해둡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정말 소중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소중한 일이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10절에도 열핏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벤티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라고 되어 있죠.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일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반성회 하려고요?

한적한 데 가서 좀 쉬라고.

한적한 데 가서 아무래도 좀 쉬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 있겠죠. 쉴 때 쉬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해둡시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 하나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죠. 왜 이런 걸 가지지 말라고 할까요? 아무 것도 가지지 말래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 머리 덤수룩하잖아요 그죠? 중학교 들어갈 때 싹 밀어버리잖아요.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싹 밀어버리니까. 왜 밀까요?

신경을 안 쓰게. 머리 길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한승창)

머리 감는데 비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한승창)

맞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게 맞을 겁니다. 머리 싹 쳐버리면 확실히 신경 덜 쓰고 공부만 하라는 뜻에서 그랬는지, 그런 점도 있고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생활지도 같은 것. 저거 중학생이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는 것. 죄수를 머리 깎는 이유는 아마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죠. 다양한 이유가 있고 할 겁니다마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영똥한 데 신경 덜 쓰고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라 여겨져요. 제자들 전도하러 나가면서 먹고 살 걱정이나 뭘 입을는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 하나에만 몰두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절에 스님들이 왜 뽀뽀 밀어버리죠? 뽀뽀 밀면 머리를 감아야 하나요? (웃음)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는 잊점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목사님들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신의 집도 없이 교회 사택에서 사시다가 소천하셨다고 신문에 크게 났던데요?

(양성수)

그래요? 일단은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고 가신 분이죠. 그래도 여기 말씀에 비하면 많이 가졌잖아요? 여기 말씀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렇게 가라는 얘기지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평생 그렇게 살란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누나가 봉사활동을 조금 하는데, 요번에 중도 실명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상이었다가 무슨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실명된 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무슨 연주회도 열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우리 누나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요번에 행사를 하는데 티켓을 조금 팔고 이래야 된다 해서 갔는데 사실은 평소에 협조를 할 만한 분들이요 돈이 좀 관계되니까 다들 그렇게 선뜻선뜻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교회의 고물을 지으려고 의논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몇 몇 가정의 속속 빠져 나가버리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 딱 걸려들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써야 할 때, 진짜 우리가 써야 할 때 선뜻선뜻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되 그 돈이나 소유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요 이 모든 것도 전부 내 것이 아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항상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야 합니다. 비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으로 그걸 산상보훈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구요?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승창)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게 사실은 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 이게 욕이 될까요?

다시는 안 온다. (한승창)

여기서 묻힌 흙조차 반갑지 않다. (임인규)

항상 이런 걸 해석할 때 우리식 사고 말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비교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자꾸 염두에 두세요.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요. 예를 들면 '내 백성이 아니라' 이게 욕이 된다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걸 심한 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밭의 먼지를 떨어버린 다?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이 먼지처럼 너희들을 떨어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아주 심한 욕이 되죠.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되버려요. 이런 작은 한 대목을 보면서도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의미를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요. 그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이건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전하고 싶었던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중에 유심히 보시면 이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본문에 네 번이나 나와요. 2절에 한 번 있죠.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이 있고요 27절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구요 저 끝에 가면 두 번 더 있네. 61절에 있고 62절에 있어요. 다섯 번이나 나왔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강조하고 싶고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 다 요약이 되어 있었는데 한동안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고 어떻게 본다면 관심에서 잊혀졌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 단어에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책도 여러 권 나온 걸로 압니다. 여기에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길게 설명하려면 한도 없는 이야기고 성경 전체를 다 훑어야 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임인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러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러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조금 전에 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빼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고 싶은데 그죠? 왜 그걸 '가' 안 하고 '이'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게 언젠지 혹 아세요?

1964년.

64년에 초판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된 시기는 그것보다가 더 이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이 아주 옛날 용어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나라이'라는 게 고문 공부할 때 나오죠. 고어의 주격조사 '이'로 나오잖아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나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나라가 바로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따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전도여행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가지쯤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요.

해롯한테 들릴 정도로. (임인규)

그렇죠. 해롯 귀에 들렸다는 것은 해롯에게 그 말이 들어갈 만큼 이미 다른 곳에 소문이 짝 퍼져나가서 결과적으로 해롯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즉 해롯의 반응이 되겠다 그죠? 또 있어요? 해롯의 반응이라는 게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겠고 그걸 들로 쪼갠다면 해롯의 반응과 백성들의 반응 이렇게 들로 나눌 수 있겠죠. 그것 말고 또 있을까요?

5절에

그거는 제자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랬던 그 결과로 그래서 그 뒤에 요상한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 거죠. 아마 이런 일이 그 전에 잘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 버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온 것도 역시 제자들의 전도여행이 그렇게 효과적이었던 결과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사실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반성하면서 도리어 은혜를 나눌 생각이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느닷없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 버린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을 고치시기 바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무슨 걱정?

먹는 것.

예. 먹을 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괜찮은데 저는 이게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지만요 저 뒤에서 머리숱자 헤아리고 그 다음에 안내하고 하는 부교역자들을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왜? 저는 뭘 일 하다가도 예배시간 그러면 다 제끼고 들어와서 옆드려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역자들은 그 시간에도 뭐해야 되요? 다른데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참 불행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구요. 우리교회 일 맡은 사람 중에 혹시 예배에 참석 못하고 다른 일 해야 하는 사람 있나요?

강도사님 같은 경우엔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임인규)

왜 그래요?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 초등부할 때 1부 예배, 중등부할 때 2부 예배. 그 다음에 (한승창)

결과적으로 예배 안 드리네.

중간에 잠시 들어왔다가. (윤수현)

중간에 잠시 얼굴만 내밀고 간다구요? 그것이 예배가 될까요?

새 교역자가 오시든가... (임인규)

문제가 되네 그죠? 불행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좋은데 제자들은 앉아서 뭘 생각하느냐. "아이고 저 사람들 밥 먹여서 보내야 할 텐데..."

그런데 꼭 밥을 먹어야 되나요? (윤수현)

예? 생각 안하면 될 건데 걱정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폭 잊어버리고 같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 은혜를 누리면 좋았을 건데 불행이란 얘깁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가장 소중한 일은 말씀에 집착하는 것. 그런데 그러다가도 자꾸 결과지로 많이 셉니다. 가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하는 그 본질보다는 약간 엉뚱한 일에 더 열심인가.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는 짓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밥 먹는 것 걱정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 집착하는 게 어찌면 그들에게 불행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먹이고 키워가지고 바른 신도로 자라게 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가령 건축에 바쁘다? 아니면 교회 치장? 아니면 교회 행사에 바빠서 정신없이 된다? 불행이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일 열심히 하되 하면서도 이런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은 아이들만 전념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요 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만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전적으로 가르치는 일 외에 또 무슨 재주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급운영. (임인규)

학부모와 만나는 일.

맞아요. 학부형 만나서 얘기 잘하는 거요. 나는 학부형들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안 만날 수도 없어요. 설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협조를 얻어내기도 해야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까요? 도망가는 아예/ 잘 잡는 것도 선생으로서 아주 대단한 능력입니다. 요즘 아이

들은 선생님이 부르면 다 도망가거든요. 부르면 서는 애가 잘 없어요. 일단 다 내빼버려요. 어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는데 교문 앞에서 애가 한 명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 이튿날요 전교 교실을 다 돌아서 애를 찾아냈어요. “너 나와, 어제 너 내가 부르는데 도망갔지?” 하는데 그 애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곧 자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문이 짝 퍼져서요. “야, 어제 누가 멀리서 도망갔는데 교장선생님이 전교를 다 뒤져서 바로 딱 잡아내더라.” 이렇게 되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교장선생님 앞에서 도망 못가죠. 이거요? 선생으로서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아주 좋죠. 가르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있죠. (임인규)

있죠. 생활지도에는 이게 무서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 선생님한테 도망가면 절대 안 잡힌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는 잘못하다가 들켜도 겁을 아무도 안 내요. 다 내빼버려요.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 공부만 열심히 가르칠 수만 있다면 참 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요. 다른 어떤 잡무, 다른 능력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요구됩니다. 괜히 헛소리 같지만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일이 뭐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때 가장 본질적인 일이 뭐냐 하는 걸 기억하면서 거기에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 아! 이걸 결과지지만 별도로 있으면 좋은 거, 필요한 거 이 정도 분간은 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앉아서 이런 일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참 기가 찬다 그죠? 아이고 농담이 좀 지나치시네요. 뭘 말이? 13절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뭐라 했겠어요 속으로? 나 같으면 할 말이 있는데.

날 뜯어 먹이세요. (임인규) (쪽소)

뜯어다가 먹이면 몇 명이나 먹일 건데? 쫌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걱정을 했겠습니까? 뭐 이런 투로 이야기가 나갔을지도 모르죠. 참 제자들 보기에 예수님 답답하다 그죠?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런데 묘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없으면서도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줘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바울이 한 말 있죠?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이럴 때 좌악 외워서 나와야 되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고’** 그죠?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게 어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없는데 어떻게 줘요? 예수님의 얘기는요 ‘쫌라.’ 쫌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평안을 누리려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돈으로는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요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쪽 나눠줬는데요. 예수님 같으면 남은 걸 거둘 이유가 있어요? 거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능력 가진 예수님이 그 남은 걸 다 거둘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임인규)

왜요? 또 환경 이야기하려고. (웃음) 필요하면 또 고집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하면 제자들이 먹을 거... (임인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능력으로 만날 제자들 먹여 살린 것 아니에요. 자기도 배고프면서도 그런 능력 발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능력 있으면서?

합부로 쓸 능력이 아니고. (임인규)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한 예수님께서 그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절로 편안하게 자꾸 얻어만 먹고 살아라. 예수님에게 결코 그런 법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얻어먹고 살도록 그렇게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남은 거 거둬야지요, 아껴야지요. 요즘 하나 더 불인다면 환경을 더럽히지 말아야죠. 우리가 좋은 점수 따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기도만 부지런히 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신앙적으로 옳은 얘깁니다. 물고기 두 마리 해봐야 물고기 조그만 한 걸 겁니다.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이 붙었다던가 뭐 작대요. 보리떡요? 떡 아주 조그만 합니다. 혹시 동그랑땡이나 그런 것일 지도 모르죠. 애 도시락인데 혼자 먹기에도 넉넉치 않은 양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는 이런 비합리적인 얘기가 종종 나오죠.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넉넉하게 먹인 이것이 결과적으로 뭘 상징하고 있겠느냐는 얘기죠. 아마 예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하고 비슷한가 보세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셨다? 예수님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있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심풀이로 아니면 배고프니까 단순하게 그런 의미라기보다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생명의 생선은 아니냐... (임인규)

꼭 시간 중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뜻이 물고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던데... (양성수)

아, 익투스? (임인규)

익투스 맞아요. 그게 예수와 뜻이 같은 게 아니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 메시아?라는 문장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가령, USA처럼... 그렇게 첫 글자를 모았더니 물고기의 철자와 같았던가 봐요. 이럴 때 원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아마 반찬이고 떡은 주식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생명의 떡이다라고는 했는데 생명의 반찬이다라고는 안 했던 모양이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막상막하다. (윤수현)

선생님 알기를 뭘로 알고 막상막하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에 베드로가 정말 멋진 대답을 남겼죠. 마태복음에서 남긴 말이 아마 가장 멋진 말일 겁니다. 나 이거 외웠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새 좀 외운다. (웃음)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라?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말 보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자, 교회 다니는 우리는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 다녀도 비슷하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임인규)

(호호호) 그리스도 뜻이 뭐죠? 기름 부어 받은 자. 메시아 하고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그걸 헬라어로 옮긴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기독교적인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요럴 때에 요런 것을 만약에 남이 물었을 때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딱 한 마디로 확인해봐 놓구요. 뭘 확인하고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뭘 확인하고?

말하지 말라고. (윤수현)

적어도 제자들이 이런 고백이나 이런 확인이 안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안 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데 나 죽을 거다.' 이러는 거죠. 뭐?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니깐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닌데 죽으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메시아라고 확인하는 순간에 제자들 생각과 다르다는 점과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것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상급이 안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은 거요. 지가 잘못해서 남한테 욕 얻어먹고 두들겨 맞아 병원에 드러누웠는데 거기 앉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면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데나 비슷한 것만 갖다 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죽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몹시 궁금하게 여기던 건데, 얘기를 할까 말까 싶은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삼일.

삼일요?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후 3시?

언제 일어나셨죠?

주일 새벽.

미명이니까 4시라 합시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 만에? 금요일에서 사흘이면 월요일 아녜요? 금요일에 '사흘 만에 올께' 하면 언제와요? 오늘 토요일이예요. 사흘 만에 올께. 그러면 언제와요?

화요일

월요일.

2박 3일이니까

저녁 때 하루가 시작하지 않나요?

아니 옛날에 나는 이게 디게(몹시) 궁금하고 헛갈렸는데 궁금 안하면 안 건드릴 게. 넘어갑시다.

(붙잡으며) 아니. 궁금해요. 선생님.

상당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사흘장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금.토.일 이렇게 칩니다. 내 하루 만에 올게 하면 언제 와요? 내일을 가리키잖아요. 사흘이냐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틀만인 것 같아요. 하루가 짧아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사흘만에도 있고, 세 번째 날에라는 말도 있고. 세 번째 날은 어때요? 세 번째 날에라는 건 돼요. 사흘 만에라는 말도 있고. 사흘 후에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후에라는 말은 아닌데 궁금해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정 목사님이 있잖아. 잘됐다 싶어서 오늘 전화를 걸었죠. 아무래도 그 쪽의 특수한 표현방식이나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찾아보고 대답을 하죠 하더니 아까 여기 오니까 하는 얘기가 헬라 원어에는 메타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대요. 그런데 그 메타라는 게 안에가 될 수도 있고 사흘만에가 될 수도 있고 사흘 후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영어에 in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전치사가 시간을 나타낼 때 전, 후를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하고 성격이 흡사한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됐는데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찾아봅시다. 적어도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사흘만인가? 내가 볼 때는 사흘이 아닌데. 이 정도 생각은 하면서 읽으라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보면 이상한 것 참 많이 나와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주 은혜가 되는 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없이 읽지 말자는 뜻입니다. 너무 쓸데없이 아멘 아멘 하지만 말구요.

예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렬은 참 우스운 거예요. 왜 우습다고 말하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제일 선두에 예수님이 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십자가를 지고, 제일 큰 거죠. 그 뒤에는요.

자기 십자가. (임인규)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니까 똑같지는 않겠네요?

자기 명치에 맞게. (임인규)

더 클 수도 있지. (윤수현)

그러니까 더 클 수도 있고.

2인용도 있고.

아. 2인용도 있고. 행렬이 참 이상합니다. 제일 앞에 예수님이 대형 십자가를 지고 그 뒤에 형형색색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따라 가고 싶어요? 나는 뒤에 자가용 타고 갈란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고 따라오라는 내 십자가 이게 뭘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져야 하는 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십자가는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싶죠. 버리고 싶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없는 그런 것.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버렸으면 싶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고 가는 것. 때로는 그게 가족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개인적인 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인내일지도 모릅니다. 참을 것 참으면서 아! 이걸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질문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그것으로 가슴을 치면서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아니면. (윤수현)

아니 아니, 그것 좀 이상하네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는 빨리 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바뀌어야 하는데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 안돼요. 빨리 고쳐야 되는 거라.

십자가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거든요? (윤수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 모양으로 사모님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 고쳐지는 거요. 결국은요 이걸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지고 다닐 게 아니고 이때 십자가의 개념이라는 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분명하게 감은 안 잡히지만 그걸 빨리 무슨 수를 쓰든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돼요. 무서운 사람이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자폭할지 모르는 시한폭탄하고 비슷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것 큰 병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의 이기심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수현)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 같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가 어떤 자기가 처한 상황일때, 십자가라는 것이 이미 사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어떤 일, 복음 때문에 자기는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따르라는 그게 아닐까. (한승창)

나를 버리고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될 만한 게 27절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니깐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시다만 제일 좋겠다 싶은 설명은 얼마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목격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해서 별로 안 놀랄 일일는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그 당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무섭도록 퍼져나가는 복음의 위력이 어찌만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거라고 여겨도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요 로마에 들어가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보잘 것 없는 종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로마를 뒤집어요. 로마는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런 도시 외곽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속했던 그 종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로마를 뒤집어요? 기적같은 일이에요.

어저께 내려오다가 김용옥 씨가 강의 중에 종교는 돈의 힘이니까 이런 종교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에 돈을 안 갖다주면 됩니다. 헌금하지 마시오.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저 사람 정신이 좀 나갔나보다. 예? 그래요? 종교에 대한 견해가 저 정도밖에 안되나? 그러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돈으로 힘을 발휘했나요? 최근에 들어와서 교회가 돈의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 때는 돈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돈 갖고 교회가 로마를 넘어뜨린 것 아니에요. 기적같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을 발휘했던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걸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질문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김현석)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는 그 말씀을 그것보다 차라리 이쪽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요즘 참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연변과기대에서 글 써 놓은 게 하나 왔길래 보니까 어느 공산주의자가 한 말 중에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자기들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공산주의도 뇌물이 성행하는 그런 사회인데 연변과기대 사람들을 접하면서 공산주의자가 했다는 말이요 진정한 공산주의는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거의 울 뻔했어요. 진정한 공산주의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했다는 거예요, 연변과기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뜻이겠어요?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자가 거기 사람들을 보고 진정한 공산주의는 여기에서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요. 공산주의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올려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도 한 방울 안 나고 콧등이 시큰거리지 않더라. 상상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적같은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아마 어찌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전도를 마치고는 제자들이 신이 나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벳세다에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신 장소나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산이나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지녔다?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 하는 장소일까요?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하셨나보다. 산에 잘 올라가시는 것 보면, 가만 있어봐. 예수님이 산에 왜 올라갔지?

조용하고 사람하고 좀 떨어진 그런 것 아니에요? (윤수현)

예수님이 그러면 대신 기피증이 있나요?

기도할 때 산에 자주 가셨잖아요. (임인규)

그러면 기도하러 가셨나요? 28절 끝에 보면 '기도하시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자들 불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18절 한 번 보세요. 거기기도 기도란 말 나와 있죠. 물론 벳세다에 갈 때는 그 말이 없긴 없어요. 없으나 따로란 말과 또 벳세다가 빈들이었음을 감안하면요 빈들에 따로 나가서 오락했겠어요? 아마 기도를 위한 장소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

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부지런히 다니고, 시간 없다 할지라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둡시다. 물론 열두 제자 부르실 때에 기도가 조금 부족해서 그만 동명이인이 세 쌍이나 나온 거는 기도부족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물어보고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중요한 일에 항상 기도에 열심을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퀴즈하나 합니다. 변화산 위에는 모두 몇 분이 있었을까요?

사람요? (윤수현)

귀신도 포함해서. (임인규) 쪽소.

없는 귀신 왜 자꾸 집어넣을라 그래? 몇 명?

여섯 명. (임인규)

어떻게 여섯 명이나 돼요?

제자 셋, 귀신 둘, 예수님. (임인규)

제자 세 명 올라간 것 맞아요? 맞네. 그러면 여섯 명. 혹시 다른 답 있어요?

하나님. (임인규)

하나님? 정답. 입급 명. 하나님도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양성수)

이 때는 두 분으로 쳐야지.

질문 있는데요. 왜 뭐하러 갈 때 모세나 엘리야가 등장하나요? (윤수현)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윤수현)

이런, 이제 내가 물을 질문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무슨 얘기 했어요?

어떻게 죽는다. (윤수현)

예. 그때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모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장소에 꼭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짐작가는 사람 있어요?

으. (임인규)

으. 뭐?

다윗이...

아브라함.

지금 죽으러 가는 판인데 왕이 오면 뭐해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왕은 지금 부활 때나 오시면 오시지. 부활 얘기 하실 때는 왕이 오면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맞아요. 요한복음 8장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는 멀리서 환상 속에서 보았겠죠. 이제 막상 현실이 되어오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나타나요. 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 최종 기착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그 의미 속에는 이 율법 전체가 예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율법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많은 제사. 예수 없이는 그 제사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많은 율법을 전해주고 그렇게 한 그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거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열심히 외치고 전했던 모든 이야기가 역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나타나서 그 문제 가지고 과거에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 이야기죠. 또 한편으로 모세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 독하게 말 안 듣는 백성 때문에 옛날에 모세가 말이죠. "옛날에 얼마나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도 저보다야 더하겠지만 똑같은 길일 겁니다." 그래서 위로 했는지도 모르죠. 엘리야는 뭐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말 안 듣는 백성 (임인규) 쪽소.

엘리야에게도 참 말 안 듣는 백성들이 물론 있었습시다. 그것 말고 엘리야는 한 마디 했을 것 같은 게 있어요.

부활하는 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신이 나더라. (임인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멋진 경험을 한 번 하게 되실 겁니다.(웃음)

참고 주무십시오. (임인규) (박장대소)

갈수록 태산이다.

세상에. 맙소사.

아까 질문에 답이 됐어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두 사람의 삶이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문득 두 사람이... (임인규)

그런 것까진 나도 모르겠어요. 한자 설명할 때 불(火)자 있죠. 불 화자를 어떻게 써요? 사람 인에다가 좌우로 찍은 불 화자를 설명할 때 장작개비를 이렇게 쌓아서 불을 붙여 놓은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빛이 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서 그런 빛이 났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 그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보니까 지하고 사람하고 동급이네? 이래되면 말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놔 가지고는요 권위가 안 서서 안 되죠. 누가 말을 들겠어요?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서 보니까 어! 같이 놀 수 있는 급수가 아니네라는 표가 적어도 났을 거란 얘깁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많이 해서 조금 지위가 높아지면요 말단에 있을 때 안 나오던 돈이 좀 나와요. 무슨 이름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품위 유지비. (임인규)

참 쓸데없는 것 많이 알아. 그것 어떻게 알아 그거?

장교가 되면.

근대 얘기가? 장교가 되면 품위 유지비라고 돈이 나와요. 왜? 쫄병이나 장교나 해가[하고] 다니는 행색이 똑같으면 품위가 안 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마 사람에게 품위 유지비를 주셔가지고 이런 짐승들이 딱! 보는 순간에 우리하고는 한 급수 다른 분이구나 하는 그런 모종의 장치가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몸에서 모르긴 몰라도 이런 빛이 있었을거라 여겨지고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 때 이 불 화 자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여겨져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불 화 자가 실제로 사람의 의미로 한자에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영화로울 영자 알죠? 써지거든 한번 써보세요.

榮 불 화 자에다가 지붕같은 거 그 다음에 나무 목 자. (임인규)

그렇죠. 두 사람이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았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지죠. 묘하지만 한자에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기본적인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불 화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아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 하고 간격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선악과에 접근하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영화로울 영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글자 설명이 돼요 그게. 안 그러면요 한자 설명이 안돼요. 글씨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영화로울 영자가 왜 이렇게 되어서 영화롭다는 뜻이 되느냐? 성경적으로 풀어가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 아까 귀신 그랬나요? 모세나 엘리야가 나타난 이 모습이 어찌면 우리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서 있게 될 모습일지도 모르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이 그러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어느 정도의 모습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상한데요 사자가 사람을 보고는 그 앞에서 도저히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잃어버릴 정도로요 사람에게 아마 그런 빛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나 이들에게 나타난 그 빛이 예사 빛이 아니고 대단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뭐죠?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옷을 뚫고 광채가 나는. (임인규)

뭐 전파도 옷 뚫고 다니는데 뭐.

옷이 희어져서. (양성수)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베드로가?

홀딱 반해서 여기서 살자 하더라. (양성수)

어디 홀딱 반해서 살자 했나보죠? 왜 그런 것만 눈에 띈다? 베드로가 뭐라뭐라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돼있어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죠. 그럼 무슨 얘기가 지금? 비몽사몽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통 단순하게 멀쩡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런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다른 일이 뭐 있어서 정신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대도요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년센스 퀴즈, 베드로의 전공이 뭐죠?

어부.

그런 년센스가 아니잖아.

조는 것. (쪽소)

조는 것? 맞아요. 잘 조는 사람은요 그것부터 눈에 띄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즐었다는 거는 유명한 거니까 잘 알죠? 여기도 즐았어요? 어디?

감옥에서 즐다가 (양성수)

맞어. 감옥에서 즐다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더라고 (웃음)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런 데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즐다가 눈떠봤더니 그래서 정신 못차린 게 아닐까?

이 상황에서 잘 수가 있어요? (한승창)

그 전에 기도하고 있었을거야 아마.

즐다가 아주 깨어... (양성수)

맞아요. 즐다가 아주 깨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정신이 들었어요. 디계/ 많이 놀랐을 거야 아마.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면서 그 장소를 생각하면 의외로 재미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 '아주 깨어'라는 말입니다. 그쯤하고 또 넘어갑시다. 내려갔더니 아래에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 있었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제자들.

제자들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요? 바리새인들까지 나와버렸나. 바리새인들 어디 있죠? 없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아이의 아버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좀더 가져야 할 것은 얼마 전에 전도여행 갔을 때 제자들 병 다 고치고 귀신 쫓아냈거든요. 갔다 와서 제자들이 자랑을 얼마나 했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왜 이려고 있어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 듯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물잖아요.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김미숙)

그렇죠. 선수 다 돼간다.

박수. (김미숙)

그렇다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박수치고.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도하러 올라가 만날 잤는데 뭐. 기도할 때마다 즐았는데 뭐. 그러니까 받았던 능력도 그렇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 고친다는 권사님들이나 은사 받은 분이 더러더러 있다는데요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비슷한 병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능력들을 다 받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권성권성 지내다보면요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린대요. 결국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하다가 그런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또 여전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체로 기도원을 차리거나 기도원에 계시는 분이 많죠. 거의 기도로 한평생을 살면서.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있어요? 나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없는 것보다 나아요. (임인규)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 가지고는 은사를 못 받게네. 어쩌다가 이런 은사를 받게 됐습니까라고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려면 두 가지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그런 은사를 얻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몸부림쳐 가면서 기도할거냐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 내게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런 은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 한평생을 기도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다 갖추고 그 다음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포기? 기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능력만 있었으면? 그런 암체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 그러죠? 48절.

가장 작은 자라고 돼있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너희 중에 제법 큰 사람은요 그래도 높은 사람 모시고 높은 사람 영접하지요. 그런데 제일 힘없고 제일 없는 사람 누가 영접해? 어찌 보면 힘도 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제일 작은 자겠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란 말이예요. 거꾸로 이렇게 해봅시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요?

물론 여기서 가장 높은 자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승창)

새로 정리해야 되겠다. 여기서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은 가장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고 동시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영접을 하긴 하는데 가장 작은 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그럴싸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영접한 사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힘도 없고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천국 가서 가장 위대해지는 방법이구요. 그러면 천국 가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만 영접하면 돼요. 주로 어떤 사람?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 집사님도 넣어줄까? 집사님 예예하고 받들어 모시는 사람요. 그래서 누가 제일 약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거란 얘깁니다. 사실은 교회가요 힘없고 약한 사람 들어오면 잘 대접 안 하잖아. 대신에 돈 많고 번쩍번쩍한 사장님이 어디 객지에서 교회에 한 번 왔다고 쳐봐요.

फल권이예요. (양성수)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덕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을 영접한다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하고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김익두 목사님이 광패 출신이거든요. 버스관에서 시답잖은 광패를 하나 만났거든요. 저거 성질대로 한다면 한 방에 날려버릴 텐데 주먹을 부르르 떨고는 성질 안 내고 한 마디 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니가 본데이." 이 말 한 마디 하고 그냥 내렸다 하거든요. 멋있어요? 나도 한 마디 하긴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시동생들 하도 잘 행기고 이래서 하루는 집에 앉아서 시아버지 뭐 사주고 동생들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나는 없잖아. '장가는 내가 가고요. 덕은 누가 다 보고' 그까지만요 내심으로는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신랑 하나 행긴다고 뽀뽀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동생들 행기고 어른들 행기고... 잘하는데 옆에 앉아서 중얼중얼 나도 한 마디 하긴 하죠. '장가는 내가 가고 덕은 니네들이 다 보고...' 히히. 쓸데없는 소리했다고 야단맞을라...

48절에 가장 작은 그 이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양성수)

예. 여기서 어린아이 가장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를 영접한 그 이가. 그러면 말이 쉽죠.

그냥 작은 그 이를 어린아이로 보면 쉬울 텐데. (양성수)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묘한 구석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 또 한번 합시다. 머리 나뻑 놨이 쓴 글은요 한 번만 읽고 치우면 돼요. 그런데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애가 쓴 글은 절대로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돼요. '애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썼을까?' 한 번쯤은 파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쓴 글은요 많이 파야 돼요. 적게 파서는 안돼요. 파고 파면 팔수록 자꾸 나와요. 요한이 신경질이 좀 났던 모양이예요. 요한이요 우리는 못 쫓아내서 예수님께 한대 맞았는데 웬녀석이요 우리하고 같이 안 다니는 웬 낯선 녀석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저거 우리편 아닌데 저러면 안 되지요?" 이런 요한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더러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가만 있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부쩍부쩍 잘 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 뺏길까봐. (임인규)

우리 교회 뺏길까봐 겁나구요. 저기 안 가면 우리 교회 올근데 그죠? 그러면 요한하고 좀 비슷하지 싶어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이름이 힘을 발휘하고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저게 우리편이냐 아니냐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더해줄 작정으로 열심히 예수를 전한다고 하더라.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기쁘다.

왜? 그 사람이 악으로 하든 선의로 하든 어쨌든 뭐요? 전해지는 것은 예수니 그거면 나는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걸로 해답을 합시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요샌 밤길 걸을 일 없지만요 밤에 길 걸어갈 때 후레쉬를 발밑에 비취요? 저 앞에 비취요? 발 디딜 데 안 비추고요? 발밑은 팍팍해도 괜찮아요?

넓게 나가기 때문에. (임인규)

넓게 나가기 때문에 발밑에는 안 비취도 저절로?

주위 조명이 있잖아요. (임인규)

주위 조명 없을 때 이야기지. 조명 있는데 후레쉬 왜 들고 다니노? 참 이상하테이... (쪽소)

그럼 이야기를 바꾸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악보를 끝까지 치는 것보고 넘겨줘야 되요? 아니면 미리 넘겨줘야 돼요?

되기 전에. (한승창)

그렇죠. 마지막 줄 정도는 남겨두고 미리 넘겨줘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피아노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와서 연주하는 사람 옆에서 악보 넘겨주는 사람 무시하면 안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멍청하게 앉아있다고 그냥 넘겨 하면 넘기고, 그러면 일 안돼요. 어디까지 왔을 때 미리 알아서 넘겨주지 않으면 연주하는 것 그것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도 차 바로 앞을 보고 가다가는 사고나요. 저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운전을 잘하셨나 봐요. 바로 눈앞을 안 보고 멀리 보고 가시는 거죠.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갈 때 뭐 보시고 갔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시느냐 하면 십자가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뭘 보고 계시느냐 보세요.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까 엘리야 누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구절이 잘 보인다 그죠? 결국은 지금 예수님 앞에 당장 닥쳐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을 승천의 모습! 아까 엘리야의 표현을 빌리면 아까 '그거 되게 재미있던 데요' 하던 그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너무 눈앞에 것을 보면 실족하기 쉽고 힘들어요. 이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펼쳐질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좀 멀리 보면서 사는 거 말이지요. 가장 멀리 보면 어떤 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늘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면 눈앞에 닥친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눈앞에 닥친 것만 보고 가노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교통사고 내기 쉽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승천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있네요. 요즘 유행어 한 마디 빌리면 '형제는 유명했다.' 언젠가 이 엄마가 와서 애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나중에 좌의정 시켜주세요 했던 바로 그 형제거든요. 이 형제는 정말 공감했어요. 성질 대단하죠. 뭐라 그래요? 불을 명하여 확 싸질러버리라 할까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거든요.

보아너게. (임인규)

뜻이 뭐죠?

우뢰의 아들. (임인규)

잘한다. 좌우간 이런 것 많이 읽어서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둘이거든요. 이 둘을 가리켜서 보아너게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성질 벨란/별난/놈들이... 어이쿠 그러면 안 되지. 성질 벨란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 맞아요. 5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게 잘 보여요. 다른 것 놔두고요 끝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걸 한국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베게 빌 곳이 없다. (한승창)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요? (한승창)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한국식 표현? 우리말을 잘 몰라. 속담 비슷하게, 속담은 아니고 흔히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가진 게 몸밖에 없다. (임인규)

대접도 못 받는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양성수)

이게 대접이에요?

하늘을 지붕 삼아... (한승창)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이불 삼아? (쪽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에 이런 거 있죠. 집도 절도 없다는 말.

절은 왜 나와요? (임인규)

아니, 속담에 인용되는 게 절이니까.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을 간혹 쓰긴 씁니다.

스님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임인규)

아니요. 스님들만 쓰는 그런 말 아닙니다. 처음 들어요? (인규를 가리키며) 출신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전에 언젠가 보니까 분명히 촌 출신이었는데 고봉도 알고... 우리가 옛날에 한국식 표현인데 제가 어디 가서 사전을 하나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속담풀이를 잘해 놓은, 속담을 모아 놓은 우리말 사전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동의어 경상도 사투리 많은데 이 사투리를 표준말로

뭐라 할 것인가를, 이런 걸 정리해 놓은 사전을 하나 구해야 되겠다고 불현듯 요새 국어공부를 새로 좀 하려고 그러합니다. 집도 절도 없다는 게 참 좋은 표현입니다. 어제 뭐 들었냐 하면 “베지밀 가쪽 아십니까?”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한테 베지밀 가쪽이 뭐냐고 물었더니 콩가루 집안보다 더 심한 경우를 베지밀 가쪽이라 하는데 처음 들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콩가루 집안 뜻 알아요?

콩가루? 바람이 확 불면 날아가는... (임인규)

그럼 밀가루는 불면 안 날아가요?

콩가루는 떡을 못 만들잖아요. (임인규)

왜 못 만들죠?

콩가루는 물 부어도 이게 반죽이 안돼요. 따로따로 늘거든요. 밀가루는 물 부으면 덩어리가 되잖아요. 콩가루는 반죽이 안 되기 때문에 단결이 안 되는 단체나 식구들이 다 제각각 노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지요. 베지밀은 왜 베지밀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콩을 아예 갈아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어거지로 만들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말 한 마디 한 마디 들어보면 참 정감있고 재미난 표현 많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사람이었으면 이때 ‘나는 집도 절도 없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하도 재미있어서 시간이 가더라도 이걸 좀 해봅시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지독하게 손발이 안 맞아요. 제자들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해보세요. 이걸 했던 거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밥이라도 사먹게 해야지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임인규)

그랬거든요. 그거 손발 안 맞는 얘기 맞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는 뭔가 잘 나가는 얘긴데 내 죽을 거다 이랬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여기가 종사오니. (임인규)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자고 있었어요. (임인규)

자고 있었죠. 제자들이 여기가 종사오니 하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자. (임인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막 싸웠는데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이런 얘기했고 나는 죽을 거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또 반복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우리편도 아닌데 저게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요.’ 하니까.

넙도라. (임인규)

넙도라가 어디 말인지 모르겠다. 표준말로 합시다.

놔뒤라.

놔뒤라는 경상도 표준말이고 넙도라는 광주 표준말이에요? 불로 확 싸질러버려야죠. 이러니까 놔두고 돌아가자 이랬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일곱 가지인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손발이 맞는 거야 안 맞는거야? 이거 하나도 안 맞는거야. 도대체가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임인규)

콩가루 집안요? 원래 이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철딱서니 없는 제자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못 읽고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변화가 있으면... (안수현)

좀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죠. 돌아가실 때까지도 없었죠. (양성수)

돌아가신 이후에도...

성령 받더니... (임인규)

그 뒤에죠.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겠어요? (임인규)

아 그랬어요? 어쨌든 참 독하게... 예수님은 그러면 훌륭한 스승에는 해당이 되나요?

이런 애들을 끌고 다닐 정도면. 그래도 안 도망가고 다 붙어있는 걸 보면. (임인규)

애들 가르치는데요. 정말 시끄럽고 말썽꾸러기고 속 다 뒤집어지는데도 그 애들이 밍지 않으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가슴을 치며) 아휴. (윤수현)

어디서 가슴 치는 소리가 들리노? 아니요. 재가 시끄럽다. 사고도 친다. 그런데도 재가 밍지는 안하네. 이러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재가 자랑하나 할까요? 이권 실명으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니까 항도여중에 라는 애가 있었는데 재가 개 볼 때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좀 예쁘다고 해주세요.”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반에 제일 예쁜 왔네.” 이랬는데요. 애가 광패 두목입니다. 개 밑에 있던 즐거들은 그 해에 전원이 찢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애만 안 찢렸어요. 선생님들이 말끝마다 뭐라 했느냐 하면 “니는 올해 담임선생님 잘 만난 줄 알고 니 고마운 줄 알아라.” 지도 알아요. 지 밑에 지하고 같이 펼렁거리며 놀고 다니던 계집애들 다 찢렸는데 애만 안 찢렸어요. 왜? 담임선생님이 만날 예쁘다고 감싸고도는데 그 애를 어떻게 잘라.

나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시끄러운 것으로 들리지 않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야 단치러 왔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시끄러운 아이들 곁에 붙어 있으니깐 편향은데 자리를 비우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야단을 잘 맞죠. 나는 별로 안 시끄럽던데... 시끄럽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사고는 혼자 다 쳐대는 아이가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결코 밍지 않아야 좋은 선생님입니다. 의무감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래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라고 여기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제자들을 끝내 훌륭한 제자로 만드신 예수님이야말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해야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시도했다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사람들의 악한 의도나 예수님 자신의 자포자기 등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51절에 굳게 결심하시고 (한승창)

그렇죠. 무얼 굳게 결심했어요?

.....

혹독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신 거죠. 그 길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나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은 어느 말씀일까요? 역시 51절에 있는데?

기약이 차가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신 일입니다. 못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 삶의 모든 원동력이 이것입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48절의 가장 작은 그 이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녜요? (양성수)

예,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가장 작은 자가 된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군요. 어째 말이 좀 이상하더라. (양성수)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못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열심히 가르치고 본을 보이셔서 훌륭한 제자로 만드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까지 믿게 하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대 이토록 사랑하시며 이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그저 이 사랑에 감격하여 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또 어떻게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난을 애독하신 분들께:** 적용 부분을 특히 사랑해 주신 분들께 미안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서 이 공부를 더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기회가 오면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만 일단 적용 부분만 여기서 중지합니다. 다만 매주 1장씩 질문과 대답은 평생 계속하려고 합니다. 신대원공부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설교란에 설교를 계속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